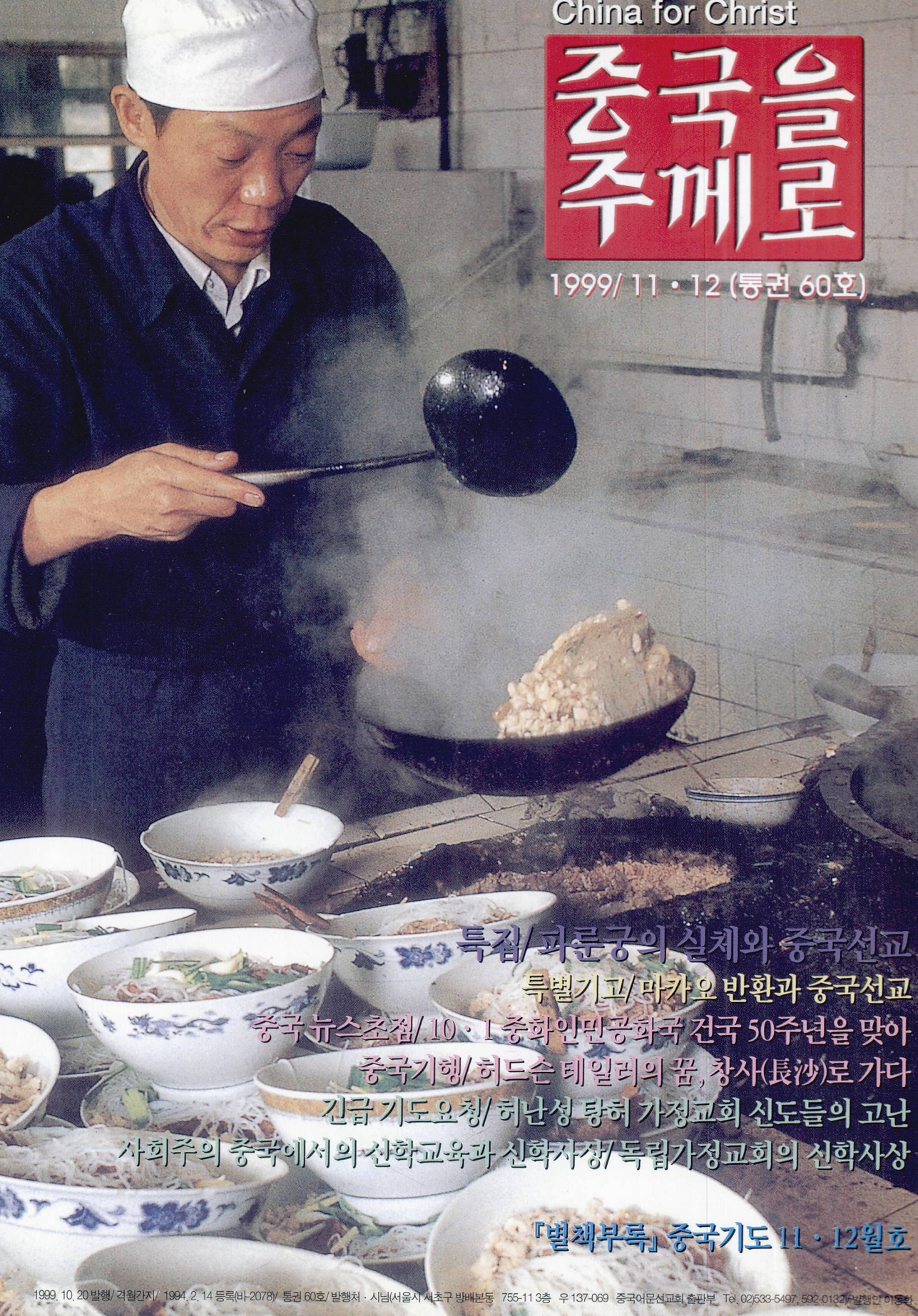


China for Christ

중국을 주께로

1999/ 11 · 12 (통권 60호)



특집/ 파룬궁의 실체와 중국선교

특별기고/ 마카오 반환과 중국선교

중국뉴스초점/ 10·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을 맞아

중국기행/ 허드슨 테일러의 꿈, 창사(長沙)로 가다

긴급기도요청/ 허난성 탕허 가정교회 신도들의 고난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자장/ 독립가정교회의 신학사상

『별책부록』 중국기도 11·12월호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아십니까?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 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금하계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훈련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 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훈련기간

6개월(매년 3월, 9월 개강 / 주 5일 28시간 훈련)

훈련내용

선교중국어 집중과정, 현지 훈련 과정,
차이나 퍼스펙티브(CHINA PERSPECTIVE)과정

훈련대상

1.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선교사
2. 교회, 교단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02) 535-4255, 594-8038

FAX: 02) 599-2786

* 현재 15기 훈련 중(1999. 9~2000. 2)이며, 16기 훈련은 2000년 3월에 개강합니다.

‘창춘사건’ 이 주는 교훈

이동화

올 한 해도 중국선교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은 얼마전 창춘(長春)에서 있었던 한국 사역자의 구금, 추방사건이었을 것이다. 사건 발생 26일만에 추방 형태로 풀려나기까지, 일반 매스컴의 주요 뉴스로 다루어지는 등 사회적, 외교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했으면 한다.

첫째, ‘관계(關係)’를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은 자기는 중국의 모 기관 유력자와 관계가 남다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종종 한다. 그러나 이 관계는 믿을 것이 못 된다. 우선 내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표리부동한 사람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그 자리에서 떠날지도 모르고, 설령 자기 권한 내에서 보호해 주려고 해도 상부 기관이 나설 경우 속수무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 당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중국 정부를 해롭게 할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사랑하여 도우러 온 친구라는 사실을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 인식시킨다는 의미일 뿐이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시 146:3)라고 말씀하고 있다.

둘째, 조용하게 사역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사역은 크게 제자 삼고 일꾼 키우는 직접 사역과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성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주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개인적 사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이것도 질보다 양을 추구할 때 얼마든지 요란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반면에 후자의 프로젝트성 사역은 그 성격상 요란해지기 쉬운 경향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중국 같은 지역에서는 프로젝트성 사역은 될 수 있는 한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사역지 형편과 전략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도 중후장대형(重厚長大型) 사역보다 경박단소형(輕薄短小型) 사역을 택함으로 거창하고 요란한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 선교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한 선교사가 한 지역에서 한 평생 한 가지 사역을 하는 이른바 사역의 고착성이 현저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선교환경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중국과 같은 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적으로, 사역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동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집이나 사역장소를 구입하지 말고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고, 주거지와 사역지를 달리하는 비거주 사역이 보다 유리하며, 사역계승과 지도력 이양을 위해 현지 지도자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키우는 것이 좋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나그네들이다. 나그네는 특별히 누군가를 의지하지도, 거창하거나 요란하지도, 그리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 하지도 않는 법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외방에 거하며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중국선교 길라잡이

4 선교일언 / 교회가 선교사에게 바라는 것 / 이동휘

7 중국 교회 현주소 / 가정교회가 말하는 가정교회는...

I. 핍박받는 중국 가정교회 상황과 이에 대한 호소문

II. 삼자회 내(內) 동역자들에게 고함

12 선교나침반 / 가정교회 이해와 선교전략(II)

- 산은 높고 골은 깊으며 대지는 넓다 / 김요한

16 특별기고 / 마카오 반환과 중국선교 / 권요셉

20 제3국의 중국선교 / 사이판(Saipan)에서의 중국인 선교 / 이만열

특집/ 파룬궁의 실체와 중국선교

26 파룬궁이 물고 온 기공 바람과 탄압 전쟁 / 편집부

31 파룬궁, 기공인가 사교(邪敎)인가? / 석은혜

38 성경적 관점에서 본 기공의 문제점 / 박선경

44 파룬궁과 나의 가정 / 양요셉

48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 원인과 중국선교에 미치는 영향 / 상푸정(邢福增)

헌신의 삶

56 중국 사역 체험기 / “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너자” / 왕쓰웨

61 내가 만난 하나님 / “떠나라”는 부르심에 따라 / 장루자(張路加)

64 현지에서 온 소식 / 준 만큼 받은 것도 넘친 여행 / 이귀민 외

70 중국선교사 행전 / 한밤중의 기적 -애니 스코 번스틴

74 이삼열의 중국 이야기(6) /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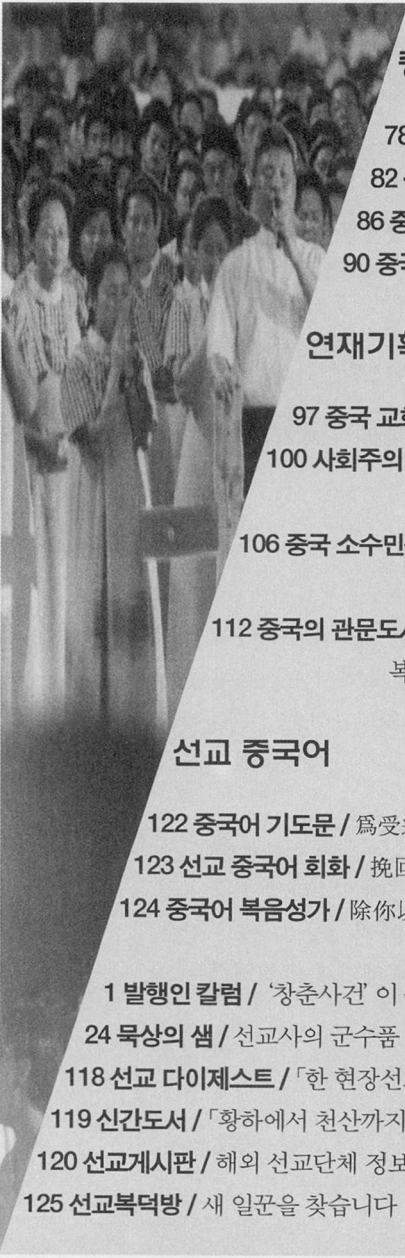
77 긴급 기도요청 / 허난성 당허 가정교회 신도들의 고난



특집/ 파룬궁의 실체와 중국선교



제3국의 중국선교/ 사이판에서의 중국인선교



중국은 지금

- 78 중국은 지금 / 신공항, 새호텔, 나날이 변모하는 상하이 / 장자웨이
- 82 중국기행 / 허드슨 테일러의 꿈, 창사(長沙)로 가다
- 86 중국 뉴스초점 / 10·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을 맞아 / 연구부
- 90 중국 동향 /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 / 연구부

연재기획

- 97 중국 교회를 찾아서(19) / 윈난(云南)성 산간지역 사역자들
- 100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사상(8) /
독립가정교회의 신학사상(Ⅲ) / 주피득
- 106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14) /
바오안(保安)족 / 김중하 · 한동대 차이나 필드 리서치팀 2기
- 112 중국의 관문도시(11) /
북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창춘(長春) · 옌지(延吉) / 연구부

선교 중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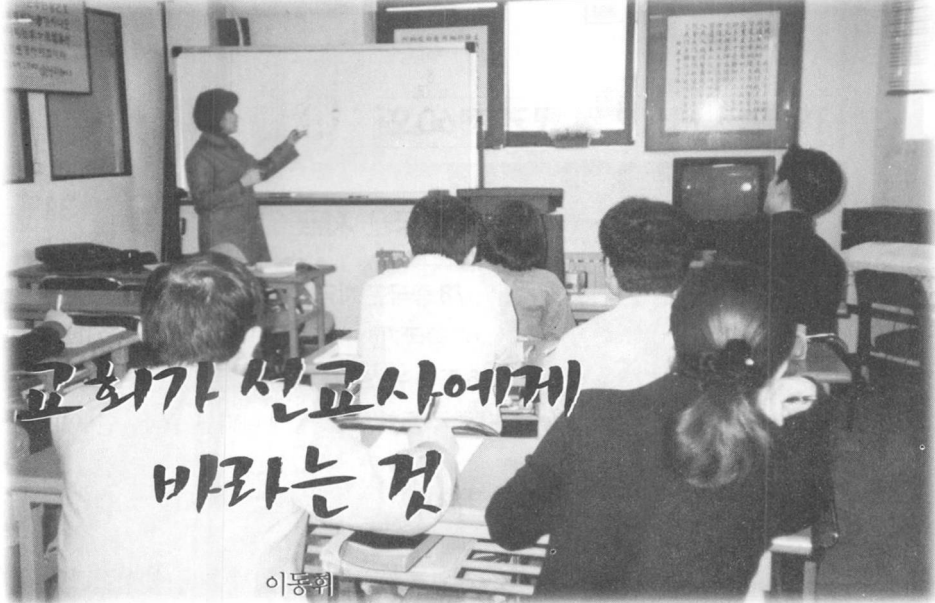
- 122 중국어 기도문 / 爲受逼迫的教會禱告(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 123 선교 중국어 회화 / 挽回祭(회복제물)
- 124 중국어 복음성가 / 除你以外
- 1 발행인 칼럼 / '창춘사건' 이 주는 교훈 / 이동화
- 24 목상의 샘 / 선교사의 군수품
- 118 선교 다이제스트 / 「한 현장선교사의 직설적 조언」외 2권
- 119 신간도서 / 「황하에서 천산까지」외 2권
- 120 선교게시판 / 해외 선교단체 정보
- 125 선교복덕방 / 새 일꾼을 찾습니다



중국은 지금/ 신공항, 새호텔, 나날이 변모하는 상하이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14)/ 바오안(保安)족



교회가 선교사에게 바라는 것

이동휘

선교지의 문제들을 선교회와 협의하기 바란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야기된 중대한 문제를 자기를 지원한 수리아의 안디옥교회에 가서 제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회의(선교회)에 가서 논의하여 문제 해결을 보았다(사도행전 15장). 선교회는 전문적인 선교기관이요, 선교정책을 수립하여 선교사를 보호하는 특수영역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제반문제를 같이 협의해야 한다.

모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선교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군림하려는 태도는 현명치 못한 것이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와 같은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교 사역지 결정, 문제 해결책, 선교계획 등이 선교회와의 원만한 협의 속에서 진행되기 바란다.

협력선교(Team Work)에 능해야 한다

“누가를 나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오라. ...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 겨울 전에 너는 어서 내게 오라.”(딤후 4:9~12) 유능한 선교사 바울은 다른 많은 선교사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졌다. 보내고, 오게 하고, 머물게 하는 등 복음에 유익한 편대를 이루었다.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서구 선교단체들은 팀사역으로 세계적인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다. 반면 한국 선교사들의 최대 취약점은 협력사역의 미덕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단점을 알고 인정하자. 한국 선교사들의 수가 증가함에 비례해서 분쟁도 크다

一言

는 실례를 우리는 인정하며 과감히 수정해가야 한다. 팀선교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보여 주도록 하자. 독불장군이라는 불명예가 붙지 않기를 바란다.

후원자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위치를 인정하라

선교사들의 입에서 불평이 없기 바란다. 불평이 들릴 때 지원 교회와 선교회는 슬퍼진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라는 마음을 품게 된다. 그리고 후원자 없이 나 혼자 선교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에 속한 것임을 알았으면 한다. 사도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 시 모두 수리아 안디옥교회의 후원 속에서 출발하였고, 돌아와서는 선교보고를 하였다. 서바나 선교를 계획했을 때도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줄을 바람이라.”(롬 15:25) 하여 지역적으로 가까운 로마교회가 책임져 주기를 바랐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 바울도 후방 사역자들의 지원 중대성을 인식하여 파송해 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물은 그 근원의 수위보다 높지 못하며 해외선교는 국내에서 지원하는 교회보다 강할 수 없다.”는 허버트 케인의 말도 의미있는 말이다.

감독자를 환영하라

선교지에서 선교사는 군왕일 수 있다. 피선교지인들이 간섭할 수 없고, 모국 교회도, 선교회도 간섭할 수 없다. 이것은 선교사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선교비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요셉처럼 사단의 공격을 받을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감독자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검열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최후 심판대에 인생검열, 장부검열을 받을 것이다.

한편 선교회에 재정보고를 비롯하여 생활 전부를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여 자기 탈선을 막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감독자가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엡 6:20). 바울은 비밀이 없었다. 선교회가 감독자 노릇을 해서는 안 되지만, 선교사는 선교회를 감독자로 환영해야 한다.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서구의 퇴각이 ‘선교의 퇴각’ 까지 몰고 온 과거 선교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선교사의 발디딤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선교사는 어느 위치에 서야 할까? 바울의 태도가 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악한 자 같이…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고전 9:20~

인격을 높일 것이다.

로 선교하기 바란다. 나는 오로지 선교사' 라는 활동장은 소명의식도 선교사의 인도하자. 선교사는 팔방미인보다는 성자(聖子)가 되어야 한다. 고매한 인격을 요망시키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못 생명을 주게로 기는 못 백성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다. 도덕적인 타락과 이기적인 삶으로 기독교를, 겸손한 사람... 기술로 선교하면 바닥이 나지만, 인격으로 선교할 때 그 향 회방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 영혼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여파는 생각하다. 돈에 욕심 없는 사람, 이성문제에 절대 깨끗한 사람, 남을 죄의 복음이긴 하지만, 성직자에게는 한 번의 범죄도 허락되지 않는다. 범죄하지는 말을 명심하자.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기독교가 사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반면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 (딤후 2:21, 공동번역).

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성결한 사람이다. "모든 악을 버리고 자 적이며 모든 선교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선교의 능력인 언어습득, 선교학의 지식, 문화 적응, 생활보장에 대한 안전 등은 선교에 필수

인격으로 선교하라

야 한다.

는 해체되어야 한다.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 부흥을 위해 힘쓰고 그 절차를 따라 복 하자. 바울은 옳으로서 성도를 섬겼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선교사의 권위에 따라야만 될 곳도 있을 것이다. 바울의 여러 모양의 겸비된 자세를 배우도

본국 선교회의 정책을 펴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피선교지 교회의 정책 야 한다.

한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빌 4:12) 선교사 스스로 낮아질 줄 알아 위해, 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선교사역을 위해 항상 낮아지는 위치에 있어야 전도를 따라 움직여서도 안 될 것이다. 선교지의 교회가 요구하는 선교사역과 22). 선교회의 정책만을 갖고 가셔도 안 될 것이고, 배경이 되는 교단의 신학과



가정교회가 말하는 가정교회기...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가정교회는 외부적, 내부적 요인에 의해 변화의 길을 모색해왔는데, 가장 큰 변화는 가정교회 안에 신앙적 연합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계속적인 등록 강요와 사교(邪教)로의 규정은, 작년 11월 화중지역의 주요 가정교회 계파 지도자들로 하여금 단결하여 신앙고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했다. 이에 이어 올 8월 16일, 몇몇 가정교회들이 연합하여 다음의 두 글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글은 정부에 의해 핍박받아 온 가정교회의 상황과 함께 자신들의 입장과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를 향해 가정교회의 합법적인 지위를 승인할 것과, 더 이상의 박해를 중지하고 수감된 전도인들을 석방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두 번째 글에서는 삼자에 대한 가정교회의 입장과 함께, 삼자 내의 복음적인 동역자들을 향해 건전한 가정교회에 합류할 것을 환영한다는 담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점차 드러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중국 가정교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핍박받는 중국 가정교회 상황과 이에 대한 호소문

1950년대 중국에 삼자(三自)조직이 성립된 이래로,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삼자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들을 일괄적으로 단속하고 다수의 전도인(가정교회 지도자·역자 주)들에게 5년 내지 10여 년의 구형을 판결하였다.

1983년 이래 공안부서는 후한파(呼喊派: 교주 리창서우(李常受)를 구세주로 믿는 중국의 대표적인 이단·역자 주) 집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동시에 가정교회의 여러 계파들을 연루시켜 탄압 대상으로 삼았다. 신도들의 모임은 금지되었고 몇몇 전도인은 체포되어 투옥 당했는데, 이 중에는 15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이도 있었다.

90년대에 들어와 정법(政法) 부서에서는 매번 ‘종합치리’라는 명목으로 가정교회를 연타(嚴打: 사회범죄를 엄격히 퇴치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중국 정부의 집중 단속·역자 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여러 신도들이 구류, 벌금형에 처해졌고 전도인들은 노동개조형에 처해졌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法輪功) 관련조직을 검거 중이다. 정부가 사교(邪教)에 대한 대대적인 타격을 가할 때마다 이는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곤 하였다. 각 지방의 수많은 가정교회들도 이 때 핍박을 받았고, 이것은 각 가정교회 신도들 대다수가 구류되고 벌금형에 처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중국 가정교회의 몇몇 주요 교회의 책임자들은 함께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하였다. 지금 우리는 공개적으로 각계를 향하여 핍박받는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밝히고자 한다.

1. 신앙 방면에서

가정교회의 기독교인들은 변함없이 진리를 고수한다. 삼위일체 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확고부동하다. 전국 각지에서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또한 정부의 간부와 군중들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

2. 모임 방면에서

모임이 봉쇄되고 구류되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큰 능력만을 의지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3. 사명 방면에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날마다 그 수를 더하고 있다.

4. 사랑의 마음

모든 형제 자매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정부 관원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며 저주하지 않는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한다.

5. 사회 방면에서

가정교회는 언제나 헌법을 지키고 위정자들의 권세에 순복한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사회 도덕을 엄수한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솔선수범하여 납세의 의무를 수행한다.

6. 정치 방면에서

비록 가택수색, 감금과 벌금 등의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전도인들은 늘 신도들에게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가르친다.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며, 입으로 저주하고 증오하는 말을 내뱉지 말고 나라를 배반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간절히 호소한다. 정부가 가정교회의 합법적인 지위를 승인하고, 기독교에 다양한 계파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며, 가정교회 신도들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고 수감된 전도인들을 석방할 것을 호소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현행 종교정책을 개정할 것을 호소한다. 더 이상 가정교회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관여하지 말라. 가정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해 달라.

中華蒙福教會
中華眞理教會
中華福音團契
華人歸主教會

1999년 8월 16일



삼자회 내(內) 동역자들에게 고함

삼자회 내의 주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고합니다. 우리는 과거, 모두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함께 교제할 기회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태도를 밝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삼자회에 가입된 각지의 교회 중에서 여러분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서로 교제하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삼자원칙, 삼자조직, 그리고 삼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자원칙, 즉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의 원칙에는 결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가정교회 역시 이 원칙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자조직, 즉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존재의 필요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교회는 이미 자립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삼자회에 소속된 이들 중에는 전혀 신앙이 없는 정치가들도 있고, 동시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삼자회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부패들을 보았습니다. 말단 관직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교회의 재산으로 종교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독단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소유 회사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활이 문란하여, 먹고 마시고 놀며 심지어 음란한 행위까지 자행합니다.

우리는 삼자회가 신앙적으로 완전히 성경의 진리를 떠났음을 보았습니다. 일부 삼자의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들은 신(新)신학(자유주의 신학-역자 주)을 선동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와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등 기본적인 신

양의 진리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삼자회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배척하여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자회가 항상 정부 앞에 서서 예수 안의 지체된 자들을 고발하고 비방한 나머지, 가정교회 신도들은 매일 매일 안절부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기에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삼자회 내에서 충성되어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삼자회의 진면목을 아십시오. 부디 빨리 삼자회에서 나오십시오. 지금 가정교회는 이미 전국에 흩어져 주님 안에서 연락망을 취하고 있으며, 성경적인 신앙에 부합된 교회라면 어느 곳에 와서 여러분이 섬기셔도 환영합니다.

삼자회 내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삼자회의 왜곡된 신앙에 의해 오염된 교회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물질로 삼자회의 부패를 조장하지 마십시오. 가정교회의 각 처소는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되길 기대하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중국 교회를 사랑하는 해외의 동역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삼자회를 정확히 아십시오. 각 지체들의 사랑을 오용하여 이들이 드린 헌금을 삼자회에 갇다 바치는 잘못을 행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전해지고 순전한 중국 교회를 세우는 데 여러분의 인력과 물력과 재력이 사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삼자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사역의 길을 선택하게 되길 간구합니다.

中華蒙福教會
中華眞理教會
中華福音團契
華人歸主教會

1999년 8월 16일

출처/ 中國福音宣教會(CMI) 제공(<http://www.csea.tw/~cmi/p-book1.htm>)

번역/ 권수영 · 본지 편집기자

살은 높고 골은 깊으며 대지는 넓다

김요한

지난 호에서 계속

믿음의 가족공동체

중국의 가정교회가 그 긴 영적 겨울을 겪고 난 후 나타난 네 번째 신앙의 변화는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깊이 위탁된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35)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서로 나누는 것은, 그들의 가정에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서로를 보호하고 신뢰하면서 가족처럼 모든 생활을 함께 나누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에게 서로 나눔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듯, 그들도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 왔고, 또한 가족 구성원이 많아지면 다시 분가를 하는 형태로 믿음의 공동체를 재생산해 왔다.

가정에서 가장이 모든 짐을 지듯이, 먼저 믿은 영적인 연장자가 나중 믿는 자들의 짐을 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처음 믿음을 가지고 보살핌을 받는 자들은 다른 곳에서는 전에 받아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또 사랑을 주는 믿음의 연장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며 서로 깊은 신뢰를 쌓는다. 더욱이 형제 자매 가운데 병이 들어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많은 지체들이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을 해서 나르고, 없는 형편에 물질을 보낸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병실 문을 들락거리며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병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곧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싶은 부러움과 갈망을 가짐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유랑하는 연장자가 생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돌보는데,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



결코 자기 가정보다 뒤지지 않게 정성스레 돌본다. 가정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의 전통이 계속 이어진 것이 개방 이후 중국 가정교회 부흥의 원동력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초교파

다섯 번째로는 중국의 가정교회가 초교파적인 지역교회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5·4운동 이후 중국에서는 젊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적인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중국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 자립과 토착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몇몇 교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이 '중화 기독교'의 이름 하에 각 교단간의 경쟁을 배제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독교회의 자립도는 높지 못했다.

1949년에 들어선 공산정부는 삼자애국위원회의 성립을 시작으로 간접적으로 중국 교회와 외국 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심한 비판과 핍박을 가했다. 이 당시 어려

움을 겪은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교회들은 중국 교회가 외세 의존적이었다는 비판을 당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어려움을 겪은 대부분의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교파를 만들고 서로 경쟁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들은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들을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교회관은 지역교회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주며 비신앙적인 세력이나 잘못된 권위가 지역 교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보호해 준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이 혈액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유기적인 기반도 된다. 따라서 특별한 교회의 규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지역교회들은 필요한 여러 지식과 지혜들을 다른 지역 연장자들의 의견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얻고 있다.

공산화 초기부터 지금까지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가정교회의 연장자들은 대단한 존경의 대상이며 상징적인 영향력도 매우 크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낱 고



예배 드리기 전,
교회 밖에서 기
도하고 있는 어
느 가정교회 성
도의 모습.

집스런 인생 황혼기의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선배로서 좋은 본보기이며, 그들의 생활 태도는 나중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곤 한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마지막 여섯째, 중국 가정교회 사역의 주체는 성령으로,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요 10:3~4).

중국 가정교회의 부흥을 살펴보면 이렇다 할 독특한 신학적인 입장이나 교회 성장학이 없다. 더욱이 효율적인 교회 조직도 없고 대평원에 흩어져 풀을 뜯어먹는 엄청난 무리의 양떼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큰 무리를 인도하고 먹이는가? 해답은 성령님이다. 즉 그들과 늘 함께 계시는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이다.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과 무거운 죄로부터 자유

함을 얻지 않았는가?

중국 가정교회 교인들은 늘 열심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비교적 생활이 덜 바쁜 농한기에 농촌에 있는 가정교회를 가보면 예배나 기도회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많은 신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슨 방언을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엄마 품에 안겨서 칭얼대는 아기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무슨 긴급히 필요한 간구가 있어서도 아니다.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미한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홍수나 재난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TV에서 본 전세계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특별한 기도제목이나 계획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고 주님 품에 안겨 있으니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기도 가운데서 항상 많은 위로를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곤 한다.

필자가 아는 한 화교는 90년대 초에 친척들

개방 후 중국에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으리라
추측하던 많은 해외의 교회들에게 중국 교회는
봄에 들판을 꼭 메우고 일어나는 밀들처럼
보란 듯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을 방문할 목적으로 중국 벽지 오지인 고향에 갔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안 친척들이 여기 저기 소문을 내는 바람에,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그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다. 영문을 모르는 화교는 도리어 의아해 했다. 알고 보니 그 지방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나 있었던 모양이었다. 자기도 과거에 병이 나면 병원부터 찾았지 기도해 본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자기에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던 이 화교는, 그러나 도무지 이 난처한 판국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그곳까지 온 사람들이 불쌍하고 민망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하나 같이 병이 다 나았다. 병이 나온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갔는데, 너무나 놀란 나머지 당연해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뿐이었다고 한다. 귀국하고 나서 몇 달간은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정말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고 다른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봤는데, 돌아와서는 전혀 병을 고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술한 간증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성령으로 특별히 중국의 영혼들과 가깝게 계시고 직접 그들을 위해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가정교회 부흥의 주체를 중국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자신이 아닌, 주님에 대

한 역사나 신학이나 사역자, 방법론적 연구에서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중국 가정교회가 공산 정부하에서 긴 영적 겨울을 보내고 개방의 물결과 함께 큰 부흥을 가져 온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영성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긴 겨울을 나기 전, 중국의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부흥을 가져 올 만한 영성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겨울을 난 밀이 환경과 병에 훨씬 강하듯이, 그 긴 겨울을 난 가정교회는 영적으로 크게 성숙되었다. 개방 후 중국에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으리라 추측하던 많은 해외의 교회들에게 중국 교회는 봄에 들판을 꼭 메우고 일어나는 밀들처럼 보란 듯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교사역에 있어서 성령이 주체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교파나 선교단체, 선교사가 선교사역의 주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또한 교파, 선교단체, 선교시는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 안에서 쓰임 받는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문으로 인도받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순종의 도구여야 함을 깨닫게 해 주었다.

다음 호에 계속

김요한/중국 선교사

특별
기고

마카오 반환

중국선교

마카오 반환과 중국선교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 중국 반환!

1557년 포르투갈이 명(明)으로부터 마카오 조차 후 정확히 442년만에 중국으로 반환되는 마카오 주권이양의 작업이 분주히 진행되고 있는 현지에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역사 안에서 당신의 왕국을 확장해 가시는 살아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다. 이번 마카오의 중국 반환은 홍콩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출발부터 다르다. 영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점령했다면 마카오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중국을 구슬러 통치권을 따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의 상인들은 중국 정부에 조공용 물품을 진상하기 전 햇별에 말릴 장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1557년 마카오를 조차하는 데 성공했다.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생각도 홍콩에 대한 마음과는 달리 또박한 입장이다. 포르투갈은 이미 66년과 74년 두 번에 걸쳐 마카오를 반납하겠다고 했으나 중국이 오히려 이를 막았을 정도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큰 실익도 없는 마카오를 덜컥 돌려 받고 나면 그에 따라 홍콩 처리 방향도 자연스럽게 결정될텐데 그러기에는 중국의 내부정책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탓이다. 결국 84년 홍콩반환에 관한 중·영 공동성명이 체결된 지 3년이 지난 87년에야 베이징(北京)과 리스본 정부는 99년 12월 20일 마카오를 중국에 이양키로 합의할 수 있었다.



반환조건은 홍콩과 비슷하다. 마카오에도 역시 반환 후 50년 동안 중국과는 다른 현재의 체제가 유지된다. 지난 93년 제정된 「마카오 특별행정구법」에 따라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가 보장되는 것이다. 마카오 반환 후 기본법 규정에 따라 중국어와 포르투갈어를 모두 공식언어로 할 것이다.

마카오 반환을 바라보는 마카오인들의 심정은 홍콩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마카오인들 자체가 포르투갈 통치에 대해 별 미련이 없다. 홍콩 반환 시 강렬하게 나타났던 영국에 대한 홍콩인들의 아쉬움을 마카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중국의 마카오 통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마카오 정청(政廳)은 치안유지 능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재 마카오는 갱들의 전쟁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마카오 중국 반환 이후 마카오에 군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원래 군을 주둔시키지 않기로 중국과 포르투갈이 합의했던 것을 어기고, 마카오에서 범죄조직의 폭력사태가 잇따르자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마카오 반환이 중국선교에 미칠 영향

채 100여 일을 남겨놓고 있는 「마카오 조국 귀환(澳門回歸祖國)」행사는 마카오가 442년 동안의 포르투갈 지배를 벗어나 중국으로 반환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2년 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던 행사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기독교 관계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 된 이후의 마카오와 중국선교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이유는 일국양제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을 볼 때 그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13억의 중국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카오 반환은 오히려 중국선교에 있어서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별히 마카오 선교지가 중국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중국선교의 역사적 관점

포르투갈인이 처음으로 마카오 땅에 도착한 것은 1553년이다. 그들이 정착하고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557년으로



마카오의 한 아간 신학교 개강 예배 모습.

영국이 홍콩으로 진출하기 약 300년 전이다. 그로부터 11년 후 1568년 카내로 주교가 마카오에 도착 천주교가 전래되기 시작했으며(오랜 후지만 김대건 신부도 이곳 마카오에서 수학), 17세기 초 1807년 9월 4일 개신교 중국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이 마카오 땅에 발을 디딤으로써 마카오는 기독교의 포교기지로서, 그리고 동양무역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왜 역사의 주인공시는 하나님께서 일찍 이곳 마카오를 통해서 중국과 동양의 문을 여셨을까? 뿐만 아니라 마카오가 중국 중앙정부와 옛부터 지금까지 별로 큰 다툼 없이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을 영국이 아편전쟁을 통해서 빼앗았다고 표현한다면, 마카오는 당시(1553년) 포르투갈인이 중국 남해 근처에 출몰하던 해적들을 징벌함으로 중국 정부로 그 공적을 인정받아 마카오에서 조치권을 얻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마카오에 대해 관대하며 좋은 관계 가운데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실제로 2년 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 될 때의 「홍콩특별행정기본법」과 「마카오특별행정기본법」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기본법」의 제6장 '문화, 사회, 사무'와 제128조의 종교활동에 대한 조항에 있어서 많은 여유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선교와 종교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본다.

중국선교의 지리적인 관점

한반도의 45배에 달하는 959만 7천 평방 킬로미터나 되는 중국은 한 마디로 말해서 광활한 대륙이다. 또 이곳에는 전세계 인구의 1/5에 달하는 13억 영혼들이 살고 있다. 마치 거인 골리앗과 같은 중국을 국경으로 접하고 있는 국가만 해도 12개 국이며,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면 모두 14개 국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중국이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는 선교 활동이 자



마카오 아간 신학교 교수인 지(吉) 목사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카오와 홍콩은 중국선교에 있어서 정말 좋은 복음의 전초기지임을 확신한다.

중국선교의 효율적 관점

하나님께서 IMF라고 하는 큰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선교사역을 향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는, 선교는 돈으로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교훈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카오 선교지는 대만과 홍콩에 비해서 물가가 비교적 싼 편이며 교통과 안전성에 있어서도 용이한 편이기에 중국선교를 접근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맺는 말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세워 가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2:14).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중국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마카오 땅을 포르투갈인의 손에 맡기시고 조용히 이 일을 진행하여 온 것이다. 이는 마치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소아시아를 거쳐 서북쪽으로 뻗어나가 유럽으로 건너갔고, 유럽에서 다시 영국 해협을 지나 전세계로 퍼져 나갔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복음은 로마의 박해, 헬라의 문화, 유대인의 민족주의 등등 겹겹이 쌓인 두꺼운 장벽을 뚫고 세계를 향하여 즐기차게 뻗어나갔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것이다(슥4:6). 그러므로 중국선교의 유일한 대답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이다.

사이판(Saipan)에서의 중국인 선교

이만열

중국선교, 대륙에서만?

‘제3국의 중국선교’란 말은 아직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느낌을 주는 말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되, 중국 본토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에는 분명히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로 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실제적인 신앙활동 면에서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制約)을 받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으로서 현 삼자정책하에 중국 내에서 선교하는 일은 불법이기에 제3국에서의 중국선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1981년 세계화인복음사역연락중심(世界華人福音事工連絡中心)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총수를 4,500만 명이라 했으니, 18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약 5천만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리고 이들 대다수는 아시아 여러 국가와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 각 나라에 영주하고 있는 화교(華僑) 외에도 대륙으로부터 온 유학생과 외화를 벌기 위해 한시적으로 나와 있는 노무자로 크게 구별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가 선교대상이 되지만 본인은 여기서 노무자만 논하고자 한다.

중국인이 있는 그 어디든 간다

본인은 지금까지만 28년 동안 중국인을 대상으로 복음사역을 하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나 할까, 전부 제3국에서의 중국선교에 속한다고 하겠다.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의 10년은 인천중화기독교회에서 7년 간 목회를 했고, 이어서 3년은 남한 전역의 읍·면 이상 중소도시를 순회하면서 중국인이 열 가정 이상 살고 있는 도시는 거의 다 방문했다. 그리고 1981년 8월부터 총회의 파송으로 홍콩에서 11년 간 선교했고, 그

후 1992년 2월 선교지를 싸이판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기까지 7년 반 동안 중국인 노무자를 상대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중국 본토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다고 해도, 이들 해외에 살고 있는 5천만 명에 이르는 귀중한 중국 영혼들, 그 중에서도 조만간 귀국해야 하는 영향력 있는 유학생과,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유리한 조건 속에 있는 노무자들을 상대로 누군가 선교를 해야 하는데, 본인은 그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맡겨 주셨다고 믿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사이판 중국 노무자들의 실태

중국인들이 이곳 사이판까지 오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1986년 북마리아나 군도가 미연방에 정식으로 흡수 편입되면서 많은 봉제공장들이 설립되었다. 이들은 Made in USA 상표로 의류제품을 생산, 무세금, 무제한으로 미국 본토로 반출하였다. 그러므로 당연히 노동임금이 비교적 싼 태국, 필리핀, 중국 등지로부터 2년~3년 기한부 조건으로 노무자들을 고용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 중국인 노무자의 수가 제일 많은데, 대략 13,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조선족과 한족의 비율은 반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돌아간 숫자만큼 즉시 새 노무자가 보충 투입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선교대상 인원수는 상주 노무자의 몇 배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이판에는 이들 중국인 노무자를 상대로 선교하기 위하여 한국 여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3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여 선교 중이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대다수의



중국인 예배의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필자(앞줄 중앙).

교회는 조선족만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한족을 상대로 하는 교회는 3곳에 불과하다. 그 중에 한 교회인 사이판 화인기독교교회는 현재 본인을 포함, 목사 2명, 여(女) 선교사 2명, 모두 4명이 협력하여 사역 중에 있다.

자라나는 사이판 중국인 교회

1992년 2월, 필자는 홍콩에서 이곳으로 선교지를 옮겨 오늘까지 만 7년 동안 사역 중이다. 1997년 말까지는 본인보다 한 달 늦게 이곳에 온 싱가포르 선교사 팡(彭) 목사와 함께 동역을 했고,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98년 봄부터 여 선교사 2명이 증원되었다. 그 동안 본 교회는 1,002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중 700여 명의 신자들이 귀국하여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다. 그 중에는 직접 가정교회를 개척하여 인도하고 있는 사람도 20명이 넘으며, 대략 80% 정도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교회는 그 동안 집회장소가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이판 한인장로교회의 배려와 도움으로 지난 6월 첫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시간을 오전 11시 30분으로 늦추어 제2부로 본당에서 드리고 있다. 주일예배는 낮과 밤 구별 없이 평균 300명이 모이고 있는데, 작업이 없는 주일이면 500명 이상까지도 출석한다.

그리고 주중 행사로는 월요일 밤 각 공장별 혹은 각 기숙사별 자체 기도회가 있고, 화요



소그룹 성경공부 후 중국인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외로이 객지에 혼자 살고 있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감싸주면 가족이나 타인의 간섭 혹은 반대 없이 자의로 결심하고 예배에 출석하기가 쉽다는 점 등이다. 반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들이 귀국한 후에도 계속해서 돌보아 주고 상담해야 하는 후속 조치

일부터 금요일에는 매일 밤 9시15분에서 11시까지(대부분 공장들이 밤 9시에 근무 교대) 평균 150명 정도 모임을 갖고 있다. 상황에 따라 과목을 약간씩 바꾸기도 하지만 성경공부, 제자훈련, 구원의 진리, 기초신학 등 한 사람의 전도자를 양육하기 위한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곳 사이판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교통을 해결해야 한다. 지금 현재 본 교회는 대형버스 1대, 중형버스 2대, 소형버스 2대를 직접 운행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밤 예배를 마치고 두 차레나 왕복하고 나면 거의 자정이 되어서야 귀가하게 되므로 운전하는 분들의 건강유지에 어려움이 많다.

중국 전역에 흩어지는 양들을 위해

그 동안의 선교사역을 통해 느끼는 이곳 사역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선교 대상자들이 중국 전역에서 왔다는 점과 모두 20대 혹은 30대의 청년층이고 중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들이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는 점, 그리고 가정을 떠나

이다. 서신 왕래는 가능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회답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전국에 분산거주하고 있어 설사 중국을 방문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다행인 것은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현재 부르나에서 목회 중인 중국인 목사 한 분이 11월에 이곳에 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다. 이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를 중 누군가 한 사람은 귀국한 신자들을 전담하여 돌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도 1년에 한 차례씩 약 1개월 동안 주로 팡 목사님이 중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700여 명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제 3국 중국 선교, 넓혀지는 지평

현재 사이판은 미 연방정부로부터 이민법, 노동법,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사이판 선교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필자는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결실로 미루어 볼 때 분명히 성령께서 동역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곳을 중국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특별

한 뜻이 있다고 믿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앞으로 5~6년 간은 중국 사역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만일 사이판에서의 선교사역이 끝난다 해도, 이곳 외의 남태평양의 다른 섬들 즉 피지(Fiji), 팔라우(Palau)와 심지어 중·러 국경 지대의 조련영 내에도 중국인들을 고용하는 공장들이 세워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 하여간 중국 내에서의 선교가 계속 여의치 못할 경우, 차선택으로라도 제3국에서의 중국선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라고 여겨진다.

중국의 공허한 마음에 복음을 심자

본래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사회주의 제도 밑에서 생활하며, 철저히 무신론과 진화론의 교육을 받아 온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수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필자가 그동안 중국인 노무자를 상대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은, 오늘날의 중국 청년들은 과거 중국인들이 절대 신봉해 온 공산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상실한 채, 온통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 있는 기성세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갈등하며 공허함에 허둥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참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고 전할 때,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잘 받아들인다.

기성교회의 많은 신자들조차 잘 믿으려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 예를 들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이 사역을 통해 나타난 결실로 볼때 분명히 성경께서 동역하고 계심을 믿는다.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마 6:31~32),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전 4: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딤후 6:7), “부모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마 10:37), “산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후 5:15). 등의 말씀들을 전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새 힘을 얻고, 마음에 벅찬 보람으로 강한 도전을 받는다. 밤 11시가 지나도록 모여서,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진지하게 말씀을 받되 설교가 아무리 길어져도 시계를 보거나 조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연상하게 된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말할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3국에서의 중국선교 사역을 기뻐하고 계시며 또 이 사역에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을 내어 꼭 한 번 선교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끝을 맺는다.

※이만열 선교사는 현재 89세로 현재까지 8년째 사이판에서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다.

-편집자주-

이만열/사이판 중국선교사

선교사의 군수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

기회가 있을 때마다 봉사하라.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관하시는 환경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말이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서 드러내는 특성은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가장 천하고 평범한 것들이었다. 이것이 곧 내가 평범한 일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하다는 표시이다. 나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발수건을 사용할 수 있는가? 수건, 식기, 신발 등과 같은 우리 생활의 자질구레한 일들은 우리들의 영적 위치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밝히 드러내준다. 꼭 해내야 하는 가장 천한 일들을 우리가 하려면 전능하신 성육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5)

하나님이 당신 주위에 데려오는 사람들을 유의하라. 지금까지 당신이 주님께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꽤 창피스러운 것이다. 주님은 당신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본을 그들에게 그대로 실행하라고 요청하신다. “아, 나는 외국에 선교사로 가면 그런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 군수품을 생산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십 리를 더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몇 발자국을 떼어보고 중단하는 자들도 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앞길을 걸어가라고 미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큰 위기에 접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작은 걸음으로 차분히 행해 나가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 아무 것도 못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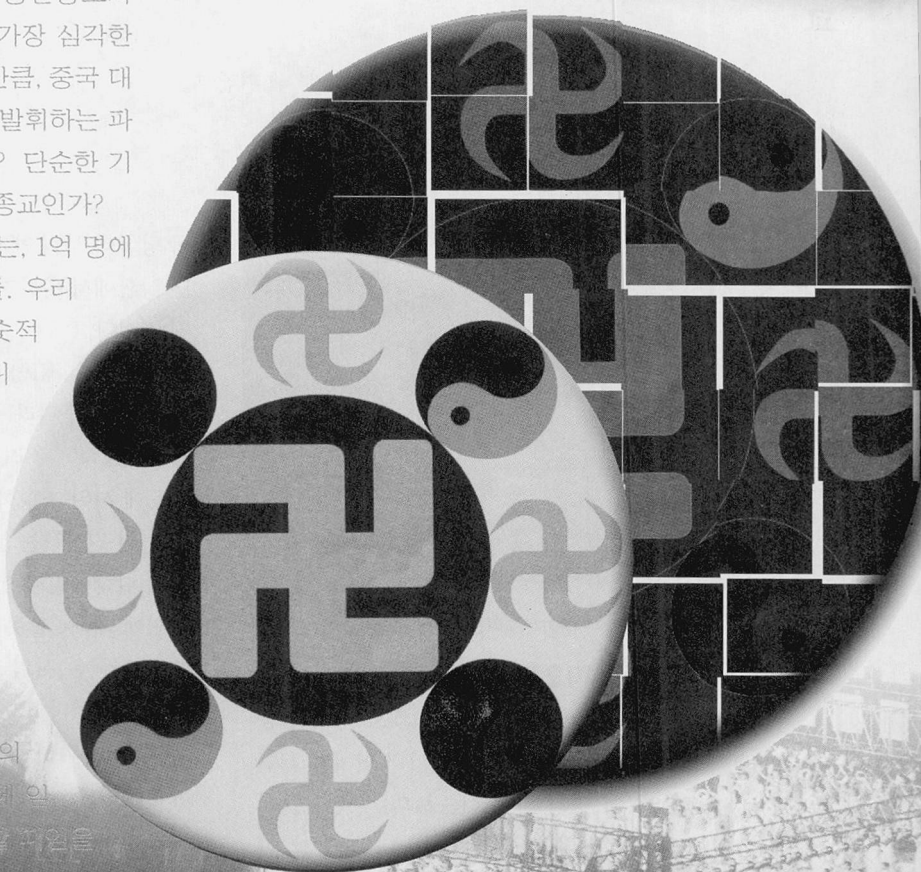
-『주님은 나의 최고봉』(오스왈드 챔버스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중에서-

1999년 4월 말, 1만 여 명에 이르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베이징 중난하이 시위는 중국 전역 뿐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다. 흔하디 흔한 일개 기공 수련단체의 영향력이라고 보기에는 그 숫자적 규모도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파룬궁 활동 금지 조치와 강력한 진압 과정도

특집/ 파룬궁(法輪功)의 실체와 중국선교

대단한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조차 6·4 천안문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사건이라고 표현할만큼, 중국 대륙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파룬궁의 실체는 무엇인가? 단순한 기공단체인가 아니면 신흥종교인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1억 명에 달하는 방대한 추종자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숫적 방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중국이 처한 정신적, 영적 상황일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파룬궁의 허와 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의 정신적 빈 공간에 유일하고도 완전한 대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그 땅 위에 임하도록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할 자임을



안다. 홍콩
國敬拜與讚美節慶香港



경배와 찬양
'95 All Nations Worship & Praise

파룬궁이 몰고 온 기공 바람과 탄압 전쟁

편집부



지난 4월, 중난하이를 둘러싼 파룬궁 수련자들의 시위 모습.

수면 위로 떠오른 파룬궁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 그것도 정치의 중심지인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지난 4월 25일 1만 5천여 명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름하여 4·25 사건. 이들의 시위 목적은 파룬궁을 기공 수련단체로 합법화해 줄 것과 구속된 수련자들을 석방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50주년, 천안문사태 10주년, 5·4학생운동 80주년이었던 1999년, 그 어느 때보다 중

국 당국이 사회 안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파룬궁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처음에는 “이들의 활동을 막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내렸고,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시위대 대표를 면담한 덕분에 시위는 평화적으로 끝이 났다. 공안들도 전혀 긴장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시위 발생 4일 후인 4월 29일 장쩌민 주석은 시위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당국은 시위 관련자를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 몇 달 지난 7월 22일, 중국 정부는 파룬궁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하고 파룬궁 수련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7월 29일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파룬궁 창시자 리홍즈(李洪志)에 대해 공공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국제경찰) 회원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리홍즈 체포 협조를 요청받은 미(美) 국무부는 중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

왔기 때문에 리홍즈를 중국 당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 국무부는 중국 당국에게 파룬궁 추종자들의 시위가 평화적인 것이었다면서, 파룬궁 금지 방침을 재고할 것과 억류된 관련자들을 석방해 줄 것을 촉구함으로써 중국 내의 파룬궁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될 위험까지 몰고 갔다.

본 기사에서는 파룬궁 시위의 확산 전말을 살펴보고, 파룬궁이 어떤 단체인지,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탄압하는 이유 등을 보도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4·25 파룬궁 시위 사건

중국과학원의 원사(院士) 허쥘시우(何祚庥)는 4월 19일, 텐진(天津)사범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청소년과학기술박람회(青少年科技博覽)〉이라는 잡지에 “나는 청소년들의 기공수련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파룬궁 수련을 하면 정신장애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발표에 분노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허쥘시우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매일 몇 십 명씩 텐진사범대학에 몰려들어 연좌시위를 벌였다.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자 4월 24일, 잡지사가 있는 텐진교육원 정문 앞에서 약 6천 명이 모여 연좌시위를 하며 허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사과를 받아 내지 못했고, 오히려 수련자들이 공안들에게 구타당하거나 구속되었다. 그러자 4월 25일, 1만 5천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베이징으로 몰려와, 정치핵심 인물들이 모여있는 중난하이로 포위하고 연좌 침묵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이들은 허쥘시우 문제를 엄격히 처리해 줄 것과, 텐진에서 공안에게 구속된 파룬궁 수련자들을 석방해 줄 것, 파룬궁을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끌었지만, 주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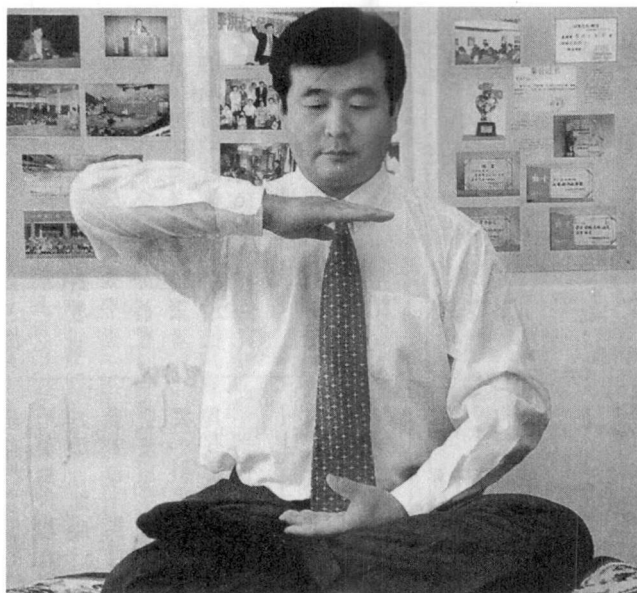
총리가 시위대표를 만남으로 사태는 조용히 끝이 났다. 이 사건을 통해 세계 언론은 중국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7월 22일 중국 정부는 파룬궁 조직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고 파룬궁 수련을 금했다. 그리고 4·25 시위의 주동자와 핵심인물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 시위의 주동자는 파룬궁의 창시자 리홍즈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리홍즈가 상인 신분으로 4월 22일 베이징으로 들어와 23일 텐진사범대학에서의 시위를 주동하고, 24일 홍콩으로 떠나기 전까지 베이징에 있으면서 각 지방의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25일 베이징 중난하이로 모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공안부는 리홍즈가 4·25 사건을 지휘했다고 보고, ‘파룬궁 문제는 엄숙한 정치투쟁’이라고 못박고 리홍즈에 대해 지명 수배령을 내렸다. 그러나 리홍즈는 4·25 시위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당시 자신은 미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파룬궁은 무엇인가?

리홍즈에 의해 창시된 파룬궁은 1992년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기공수련 단체로서, 기공에 뿌리를 두고 불교, 도교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파룬파파(法輪大法)’는 리홍즈에 의해 이론화된 파룬궁의 수행체계인데, 여기서 ‘파룬’이란 불교의 8만 4천 법문 중 하나로서 가장 높은 단계의 기공법이다. 이것은 일반 기공처럼 수준 낮은 병 따위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높은 단계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목적인다고 주장한다.

리홍즈는 파룬궁을 통해 누구나 파룬파파를 읽고 수련하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기공을 통해 깨끗하고 훌륭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수련을 통해 초월적인 정신세계를 소유할 수 있으며, 보통 사람들이 걸리는 질



파룬궁 창시자 리홍즈. 그의 저서와 비디오 테이프 등이 한국도 나와있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교는 진(眞)을 수양하고, 불교는 선(善)을 수양하지만 파룬궁은 진, 선, 인(眞, 善, 忍)을 동시에 수련해서 최종적으로는 우주와 동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법륜(轉法輪)』이라는 책에 의하면, 기공을 배울 때 만약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것도 배울 수 없고,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을 때 수련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병치료에 대해서는, 병이 있으면 수련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몸을 정화해 주어야 하며, 정화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파룬궁을 배울 수 있는데, 이것은 우주 안에 생노병사(生老病死)가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파룬궁이 신체단련을 목표로 하는 단순한 기공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2년 전파된 이래로 현재까지 중국 대륙에 약 1억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있다고 추산된다. 또한 전세계로 퍼져나가 현재 30여 개국에 최소 7천만 명에서 1억 이상의 수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이들은 천 명 정도에 이른다. 한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은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직장인, 주부, 사업가, 대학생 등 다양하며, 새벽녘이나 초저녁에 서울 올림픽공원, 보라매공원, 일산 호수공원 등 비교적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에 모여 수련을 하고 있다. 이들은 파룬궁 창시자 리홍즈가 출연한 비디오 테이프와 책자를 통해 수련동작과 방법을 익혔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수련을 권하고 있어 한국에도 파룬궁 수련자는 계속해서 증가해 가는 추세이다. 또한 파룬궁 수행법을 설명한 『전법륜(轉法輪)』과 『중국법륜공(中國法輪

功)』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 보급되고 있으며, 한글판 비디오 테이프도 나와 있다.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

처음 4·25 파룬궁 시위에 그다지 긴장하지 않던 중국 당국의 표정이 싸늘해진 것은 지도부의 몇 가지 상황 판단 때문이었다.

첫째, 시위 장소가 문제였다. 4월 25일 새벽부터 몰려든 시위대는 중국 지도부들의 거주 지역인 중난하이로 포위했다.

둘째, 파룬궁의 힘 과시도 역효과를 불렀다. 당국은 시위대가 1만 5천 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한다. 게다가 파룬궁 수련자는 1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원 6천1백만 명 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수련자들의 막대한 수가 중국 지도부를 긴장시켰던 것이다.

셋째, 만만치 않은 조직력도 입증되었다. 중국 국가안전부와 공안부를 비롯듯 파룬궁 수

련자 수만 명이 아무도 모르게 중난하이를 포위했다. 더구나 이들은 인터넷과 핸드폰 등의 첨단장비로 연락망을 구축, 당국의 허를 찔렀던 것이다.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탄압하는 주원인은 파룬궁이 그 세력을 이용해 공산당 독재에 대항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조직이, 개혁 개방 이후 급격한 체제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불안 세력과 결합될 경우 사회안정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파룬궁은 중국 전역에 걸쳐 연구부 밑에 총 지부 39개를 설립하고 1천9백여 지부와 2만 8천여 소단위 조직을 세워 완전한 조직 계통을 구축했고, 2만 3천 개의 집회장소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리홍즈는 전화와 팩스는 물론이고, 컴퓨터 통신망 등 '국가 정보기관과 맞먹는 보안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국의 파룬궁 조직을 지휘했다고 한다.

파룬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중국 공안부에서 발표한 통고문에 의하면, 공산당원은 혼자서라도 절대 파룬궁을 수련할 수 없다. 일반시민들도 파룬궁을 수련하거나 파룬궁과 관련된 어떠한 집단 행동도 할 수 없다. 또한 파룬궁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기호도 내걸어서는 안 되며 출판물 제작·배포도 금하고 있다. 그리고 말도 조심해야 한다. 파룬궁을 선전하거나 옹호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이 파룬궁을 타도하기 시작하면서 파룬궁 관련 서적도 대거 압수, 소각되었다.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우한(武漢) 등지에서 파룬궁 관련 출판물 수만 권을 소각했고, 상하이(上海)에서도 4만 5천 권의 관련 서적과 사진을 압수, 분쇄시켰다. 경찰은 지린성 창춘에 있는 리홍즈의 주택을 급습, 리의 모습을 한 금부처상을 비롯해 많은 사치품들을 압수했다.

또한 중국 당국의 보도에 의하면, 리홍즈가 불법조직인 '파룬파파연구회'를 조직, 미신과 사설을 퍼뜨려 사람들을 현혹시켜 많은 수련자들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7월 28일까지 파룬궁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전국 30개 성(省)에서 743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직은 합법적 신청 및 허가를 거치지 않고 계획을 꾸미고, 집회를 가지고, 시위를 벌이고, 사람들을 모아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활동을 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대대적 반격 나선 파룬궁

정부에 의해 불법조직으로 규정되어 해체 위기에 몰린 파룬궁은 이에 지지 않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신도용 전언 통신문을 통해 "홍파(弘法, 교리 전파)에 진력하고 불의를 누를 공력(功力)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지도부는 인터넷을 통해 향후 투쟁전략도 공개했다. 세계 주요언론을 통해 파룬궁 탄압의 부당성 역설, 인권단체와 연대 모색, 길거리에서의 파룬궁 수련, 서명운동 등을 펼쳐 정부에 청원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연행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경(上京)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수도 베이징과 각 성 정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의 단속이 시작된 이후에도 중국 전역에서 계속되는 시위로 이미 수천 명이 검거됐으나 파룬궁의 반발은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안 당국은 파룬궁 책임자에 대해서 국가 안전위해죄를 적용키로 하는 등 엄벌로 맞서기도 했다. 이것은 최소 징역 3년에서 사형까지 가능한 항목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금지시켰으며, 파룬궁을 비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 인터넷 전쟁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말부터 「인민일보(人民日報)」등을 통해 미신의 허상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했다. 홍콩 최대 일간지 「동방일보(東方日報)」는 미국 소식통을 인용, “파룬궁이 미 중앙정보국(CIA) 및 반체제 조직과도 폭넓게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리홍즈는 성명을 발표, “중국 정부의 이번 파룬궁 금지 조치로 중국 내 추종자들이 더 심한 박해를 받아 천안문 사태와 같은 또 한 차례의 유혈사태가 발생할 것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파룬궁이 합법화될 때까지 무기한 청원투쟁에 나설 것”을 공언하고 있어, 제2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유혈사태 발생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커다란 고민이다.

파룬궁을 보는 여러 시각들

홍콩에 거주하는 칼럼니스트 신밍쇼우(55세)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칼럼 ‘사선’에서, 파룬궁 조직의 성공은 공산당의 실패에 바탕을 둔 것으로 케케묵은 공산당 이론에 싫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한편, 도덕과 규범이 붕괴된 중국 사회에 탈출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중국 당국의 파룬궁 탄압은 중국 지도부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공산주의 붕괴는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 역사를 전공한 미국 하버드대 필린 쿤 교수는, “역사적으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전통적인 가치가 붕괴되는 시점에는 각종 종교집단이 융성했다.”면서, 특히 정치적인 색채가 별로 없었던 중



상하이(上海)의 파룬궁 수련자들. 공산주의 신념에 회의를 느낀 중국인들은 기공 등을 통해 정신적 공허감을 채우길 원한다.

교 집단도 지도자 검거 등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면 폭력적인 집단으로 변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서방 외교관은 “파룬궁은 천안문 사태와는 별개의 문제로, 중국 정부가 그것을 천안문 사태와 연결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선전술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파룬궁을 천안문 사태와 연결시키는 것은 당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경우 군사력을 동원, 지난 89년과 같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관련자들에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주간(亞洲週刊)』에서 장쑤(江迅)은 “중국 정부의 부패는 인민들로 하여금 당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게 하여 파룬궁의 진, 선,인에 마음을 쏟게 했으며, 당국의 엄격한 사상통제 하에서 기공과 종교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 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중국 사회에 결사의 자유가 없고 사회단체의 자유결사도 허락되지 않지만, 사람들은 기공과 종교를 통해 결사의 자유를 간간히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파룬궁, 기공인가 사교(邪教)인가?

석은혜

중국을 틀꺾게 한 파룬궁

을 여름 중국의 최대 이슈는 '파룬궁(法輪功)'이었다. 지난 4월 25일 베이징(北京)의 중난하이(中南海)에서 1만 5천여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을 때, 중국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켰었다. 그러나 7월 22일, 중국 당국이 파룬궁을 사교(邪教) 집단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이래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은 모두 파룬궁에 관한 보도로 넘쳐났다.

관영 CCTV도 7월 24일과 25일에 뉴스시간 대부분을 파룬궁 비판에 할애하고, 토크쇼의 주제도 파룬궁으로 잡았으며, 주요 일간지들의 1면 톱 기사도 파룬궁 성토 일색이었다. "과학을 숭상하고 미신을 타파하자.", "병을 고친다는 파룬궁 창시자 리홍즈(李洪志)가 자신이 병에 걸리자 병원에서 약을 사 먹었다.", "리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생일을 부처의 탄신일로 고쳤다."는 등의 보도를 관



중국 당국이 게시한 '파룬궁 폭로' 자료들을 시민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련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했다.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는 평소 사리분별이 뚜렷하고 말도 잘 듣던 17세의 한 소년이 파룬궁 수련 후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을 심층 보도했다. 이 신문은 등에 칼자국이 선명한 이 소년의 아버지 시신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한편, "과학으로 파룬궁을 폭로한다."는 시리즈를 실었다. 결국 중국 당국은 7월 29일 파룬궁의 창시자 리홍즈에 대해 지명수배령을 내리고 인터폴 회원국에도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은 파룬궁이 공산당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중국 영도자들의 거주지인 중난하이를 포위하고 시위한 데 격분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전화, 팩스,

인터넷, 전자우편,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수련자 연락망을 형성하는 등 조직적인 냄새를 풍긴 것과, 수련자가 1억에 이른다는 등의 허풍사가 중국 당국을 긴장시켰기 때문이라고 외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밝힌 파룬궁 단속 이유는, 파룬궁이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이며, 비과학적인 논리로 사람을 현혹해서 사망자와 정신병자가 속출하고 있고, 수련자들이 언론기관과 정부기관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파룬궁은 무엇인가. 단순한 기공단체인가, 아니면 사교(邪教) 집단인가? 파룬궁의 창시자 리홍즈는 누구인가? 파룬궁의 발전 원인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파룬궁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리홍즈, 그는 누구인가?

파룬궁의 창시자 리홍즈(48세)는 어떤 사람인가? 지린(吉林)성 궁주링(公主岭)시에서 태어난 그는 원래 1952년 7월 7일에 출생하였는데, 1994년에 자신의 출생 연월일을 1951년 5월 13일로 바꾸었다고 한다. 51년 5월 13일은 음력 4월 초파일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다. 중국 당국은 리홍즈가 자신이 석가모니의 화신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생 날짜를 바꾸었다고 분석했다.

파룬궁 측에서 편찬한 「리홍즈 약력소개」에 의하면, 그는 네 살 때부터 전각법사(全覺法師)라는 스님으로부터 진, 선, 인(眞, 善, 忍)의 최고 법문(法門)을 전수 받았다고 한다. 여덟 살 때 대법(大法)을 얻어 물건을 자유자재로 옮기고, 물건을 정지시키고, 생각을 멈추게 하고, 몸을 숨기는神通력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인생에 대한 통찰은 물론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써어 있다. 또한 12세가

되는 해에 도가(道家)의 사부인 팔극진인(八極真人)을 만나 도가의 여러 가지 공법을 배웠고, 1972년에는 장백산(長白山:백두산)에서 내려온 대도(大道)의 스승 진도자(眞道子)로부터 내수공(內修功)을 배웠는데, 이때 심성(心性) 수련을 받았고 이른바 ‘주의식(主意識)’을 끌어내는 완성의 경지를 이뤘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리홍즈는 보통사람에 불과하다. 1960년부터 1969년까지 지린성 창춘(長春)시의 주장루(珠江路) 소학교를 마치고 제4중학교를 졸업했다.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지린성 한 부대의 군인으로 있었고, 1978년부터 1982년까지는 군 부대 초대소(招待所)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창춘시의 량여우공사(糧油公司:식량과 기름을 저장해 놓는 회사)의 보위과(保衛科)에서 근무했다. 그는 1988년부터 기공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991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기공 활동만 했으며, 199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파룬궁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리홍즈의 제자들이 그에게神通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리홍즈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시범을 보이라니. 내가 원숭이냐?”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또한 리홍즈는 미 타임지(8월 2일)와의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며, 파룬궁은 기공의 일종일 뿐 사교집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룬궁 시위 사건 이후 전 세계에 리홍즈의 이름이 알려졌고 그는 더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의 지명 수배자가 되어 다시는 보통사람으로 돌아올 수도 없게 되었다.

파룬궁, 기공인가? 사교인가?

파룬궁은 중국 기공의 일파이며, 기공에 불교의 참선, 윤회사상과 도교의 사상 몇 가지를

결합시켜 만든 것이다. 일반 기공과 다른 점은 경전(經典)이 있고, 종교적 색채를 띤다는 점이다. 리홍즈는 “진실하고 선량한 인품을 닦으면서 참고 사는 것이 인간의 덕성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며 진(眞)·선(善)·인(忍)의 세 덕목을 강조한다. 이같은 종교적 요소를 바탕으로, 특히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활동한 결과 7년 동안 추종자가 1억 명에 이르는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해갔던 것이다.

파룬궁의 ‘진’은 도가의 ‘진(眞)’과 같은 차원이고, ‘선’은 불가의 ‘자비(慈悲)’와 같은 것이며, ‘인’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차원 높은 ‘마음공부’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대도(大道)’의 가르침이라고 리홍즈는 강조한다. 진, 선, 인을 동시에 수련하면 결국 우주와 동화된다는 것이다. 진, 선, 인은 다른 종교에서도 중시하는 도덕적 가치이다. 그러나 파룬궁이 내세우는 그것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기만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고 중국 당국은 주장하고 있다.

리홍즈의 말을 빌리면, 파룬궁은 1984년부터 사부(師父)들의 지도와 자신이 오랫동안 갖고 닦아 온 대법을 결합해 대중이 수련하기 쉽게 만든 독창적 공법(功法)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 의하면 리홍즈가 기공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1988년으로, 당시 중국 사회에 불어닥친 기공 열풍 속에 ‘선밀공(禪密功)’과 ‘구궁팔괘공(九宮八卦功)’을 익혔고, 그가 태국에 갔을 때 보았던 다른 무도(舞蹈) 동작을 결합해 파룬궁을 만들었다고 한다.

리홍즈는 “기(氣)란 우주의 이치에 따라 흐르는 것이므로 자연스런 호흡으로 우주의 리듬에 맞추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수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이치를 다섯 가



홍콩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신화통신사 앞에서 중국의 파룬따파 회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 동작으로 엮여났다. 그러나 리의 이런 주장과 행동은 대부분의 기공단체와 지도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그는 마침내 기공단체에서 탈퇴하여 ‘파룬따파연구회(法輪大法研究會)’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파룬궁의 이론체계를 ‘파룬따파(法輪大法)’라는 이름으로 정립했다. 이것은 불교의 8만4천 법문(法文) 중 하나이지만 기존의 불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불가기공(佛家氣功)’이라고 강조해 중국 불교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파룬궁의 경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적은 『中國法輪功』, 『轉法輪』, 『轉法輪(二卷)』, 『法輪大法義解』, 『神通大法 - 李洪志和中國法輪功』 등을 비롯하여 많은 책이 있으며, 이 외에도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 VCD가 나와있다. 현재 이 책들과 테이프는 중국에서 출판과 보급이 금지되어 있지만 홍콩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리홍즈가 자신은 세속적인 것을 초월한 ‘최고의 부처’라고 선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전에 유난히 탐욕스러워 파룬궁을 이용해 몇 년 안 되는 기간에 줄부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병을 고쳐준다고 유혹하여 신도들을 끌어들이었는데, 말로는 무료

라고 하면서 그의 집에 '공덕상자(功德箱)'를 만들어 놓고 제자들에게 암시를 주어 환자들이 공덕비(功德費)로 100위안(元) 이상을 바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리홍즈는 파룬궁 훈련반을 운영하면서, 수련을 잘 하려면 반드시 책,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VCD 등을 사야 한다며 한 세트 당 300위안에 팔았다고 한다.

리홍즈는 199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아주주간(亞洲週刊)』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부자가 아니며 돈을 벌기 위해 파룬궁을 전파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만약 자신이 돈을 탐했다면 1억 명의 수련자들에게 1위안씩만 받아도 1억 위안은 벌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의 생활비는 원고료와 홍콩에 등록해 놓은 출판사에서 받고 있으며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파룬궁의 이단사설과 해악

리홍즈는 파룬궁 수련을 하면 '천목(天目)'이 열린다고 주장한다. 천목은 '제3의 눈'으로, 천목이 열리면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천목이 열린 후에는 '요시(遙視)'가 나타나는데, 요시는 천리 밖의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룬궁 수련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고 우주와 동화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파룬궁 수련을 하면 '특이공능(特異功能)'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이공능으로 인체를 투시할 수 있고 환자의 상처 부위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공중부양(공중에 몸이 뜬), 공간이동(순간적으로 다른 장소로 몸이 이동함), 육체이탈(영과 육이 분리됨)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리홍즈는 『전법륜(轉法輪)』에서, '덕(德)'은 일종의 흰색 물질이고, 그것과 대립되는 '업(業)'은 검은색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

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전생에서 지은 '업' 때문이라는 것이다. 리홍즈는 대법을 강론할 때 계속해서 사람들의 복부에 파룬(法輪)을 집어넣는다고 한다. 파룬이 정방향으로 돌면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몸의 각 부분으로 공급되어 몸이 세속을 초월하게 되고, 파룬이 역방향으로 돌면 에너지가 방출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돕는다고 한다. 또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파룬의 힘을 빌어 '덕'을 높이고, '업'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수련을 하면 신체가 정화되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최후에는 깨달음을 얻어 영혼이 죽지 않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고 주장한다.

리홍즈는 『중국법륜공(中國法輪功)』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병을 조성하는 근본 원인은 다른 공간에 하나의 영체(靈體)가 있기 때문인데, 파룬궁으로 그 영체에 손을 써서 병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빼내어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병의 부위에 갖을 썬 병이 다시 침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파룬궁 수련을 하면 검은 기운인 '업'이 빠져나가 병이 낫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룬궁 수련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 파룬궁을 수련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병원에 가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다가 죽거나 정신이상이가 되어 자해, 자살하고, 주위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한다고 한다. 베이징의 두 정신병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파룬궁 수련을 하다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1996년에 9명, 1997년에 10명, 1998년에 22명, 1999년 상반기에 16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 당국의 조사에 의하며, 파룬궁을 수련하다가 죽은 사람이 7월 28일까지 전국 30개 성(省)에서 743명에 이른다.



파룬궁을 타격하지는 정부의 공시를 학습하고 있는 인민해방군.

또한 리홍즈는 자칭 구세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과거 지구에는 몇 차례에 걸쳐 폭발이 있었는데, 다음 지구 폭발은 내가 결정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만이 지구의 폭발을 막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며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주에는 지구 외에도 생명체가 있는 곳이 많이 있다며, 외계인이 인간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리홍즈가 수업할 때 녹음한 것을 책으로 만든 『전법륜』을 수련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며, 읽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수련해도 쓸모가 없다고 믿고 있다. 리의 제자 중 하나인 중국중앙기을 법규실 공무원인 왕여우쥔(王友群)은 “위대한 우주의 대법(大法) 『전법륜』에서 논하는 말씀은 고금(古今) 이래 어느 나라의 어떠한 경전보다 귀중한 가치가 있다.”며, 이 책을 공개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장쩌민 주석과 주룽지 총리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어떤 수련자는 “리홍즈가 자신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다.”고 간증했고, 또 다른 수련자는 “리홍즈의 글을 읽지 않으면 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리홍즈가 세계의 성자들인 예수, 석가모니, 공자, 노자를 초월한다

고 믿고 있다. 즉 파룬궁은 단순한 기공단체가 아닌 하나의 종교체계이며, 리홍즈는 수련자들에게 단순히 사부(師父) 차원을 넘어 ‘사람이 아닌 큰 부처’요, ‘구세주’로 신격화되고 있다. 리홍즈 자신은 파룬궁이 종교조직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신으로 믿고 있으며 파룬궁의 사상에 미혹되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룬궁 발전의 주요 원인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는 약 1억 명으로, 일반 시민이나 소외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이 중노년층이지만 공산당원, 퇴직한 정부 고위관리, 고위층 부인, 고급 엔지니어, 군대 간부, 교수 등 지식인도 많이 있다. 어떤 성에서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공산당원 수가 1만 명을 훨씬 넘었다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파룬궁을 따르고,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파룬궁이 발전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사회로 인한 중국인의 정신적 공허감 때문이다.

개혁 개방 이후 당의 전체주의 통치의 약화와 관리들의 심각한 부정부패 현상은 중국인

들로 하여금 공산당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했다. 공산당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이데올로기의 부재를 가져왔고, 중국인들은 정신적인 공허와 좌절을 느끼게 되었다. 파룬궁은, 한탕주의와 거짓, 부조리가 만연한 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은 파룬궁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교리 탐구와 기공 수련을 통해 진, 선, 인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서 쉽게 이 조직에 빠져든 것이다.

둘째, 중국이 병원 치료비의 공비(公費) 제도를 없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 당국은 그동안 공비로 국민들의 병을 치료해주던 제도를 없애고, 국민들 스스로 돈을 내고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건강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룬궁 수련을 통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자 너도나도 파룬궁 수련에 나서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즉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염원이 파룬궁 발전을 부추겼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개혁 개방이 되기 전 중국인들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았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 생활은 많이 윤택해졌지만, 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들은 파룬궁으로 심성(心性)을 수련하면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파룬궁 수련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이다.

넷째, 중국에 종교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중국인들이 종교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중국인들은 종교의 자유 없이 유물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다. 개혁개방 이후 일부 종교가 정부의 통제 아래 승인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수련자들이 컴퓨터 통신망 등 최신 장비를 이용해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5일 1만5천여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하루 만에 베이징의 중난하이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팩스, 핸드폰 등을 이용해 쉽게 연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체계적인 연락망의 구축으로 수련자들을 쉽게 끌어들이 수 있었고, 그것이 파룬궁 발전의 뒷받침이 되었다고 본다.

중국인들의 영적 갈급

리홍즈는 파룬궁이 종교조직, 정치조직이 아닌 단순한 기공단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전파하고 있는 파룬궁은 엄연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예를 들면 천목, 요시, 병 고침, 특이공능, 지구폭발 등 초자연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파룬궁 수련을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연락한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이기인 전화, 팩스, 인터넷, 전자우편, 핸드폰 등의 최신장비로 연락을 하고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번 4·25 중난하이에서의 파룬궁 시위사건과, 7월 22일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금지 조치로 우리는 중국 파룬궁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중국 내에 파룬궁 추종자들이 7년 만에 1억 명에 이를 정도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놀

라게 했고, 종교계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대 중국인들의 종교적 태도가 어떠한지를 더욱 잘 알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무신론 환경에 살아오면서 종교에 대한 경험이나 종교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현대 중국인들은, 종교에 대해 무지하여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의 한 기자는, 파룬궁 현상은 중국이 종교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말한다. 파룬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에게 완전한 종교자유를 허락하고, 종교를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파룬궁 사건을 통해 많은 중국인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로 공산당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고 정신적, 영적 공허감

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중국인들이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절대적인 정신적 가치를 간절히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정신적, 영적으로 갈급해 하는 현대 중국인들에게 파룬궁 같은 신흥종교와 수많은 이단들이 접근하여 이단사설에 빠뜨리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다. 중국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참고자료

- 『人民日報』, 1999, 7, 23
- 『中國法輪功』, 李洪志 著, 도서출판 자유로
- 『轉法輪』, 李洪志 著, 도서출판 자유로
- 『중국을 주제로 -58호』, “파룬궁이 일어나고 있다.”
- 『중국과 북음 -106호』, “중국 정국을 뒤흔든 대규모 연좌침묵시위”
- 『亞洲週刊』, “法輪功越洋再(發功)”, 1999, 6, 14-6, 20
- 『亞洲週刊』, “解決法輪功越洋問題需歷史智慧”, 1999, 8, 2-8, 8
-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

석은혜/ 본지 편집장

사이버 공간 속의 파룬궁 전쟁

◎ 파룬궁 선전 사이트

法輪修煉大法 <http://www.falundafa.org/>
法輪佛法 202.103.134.5/missing.html
法輪修佛大法 www.asiafind.com/sites/570709/

◎ 파룬궁 반대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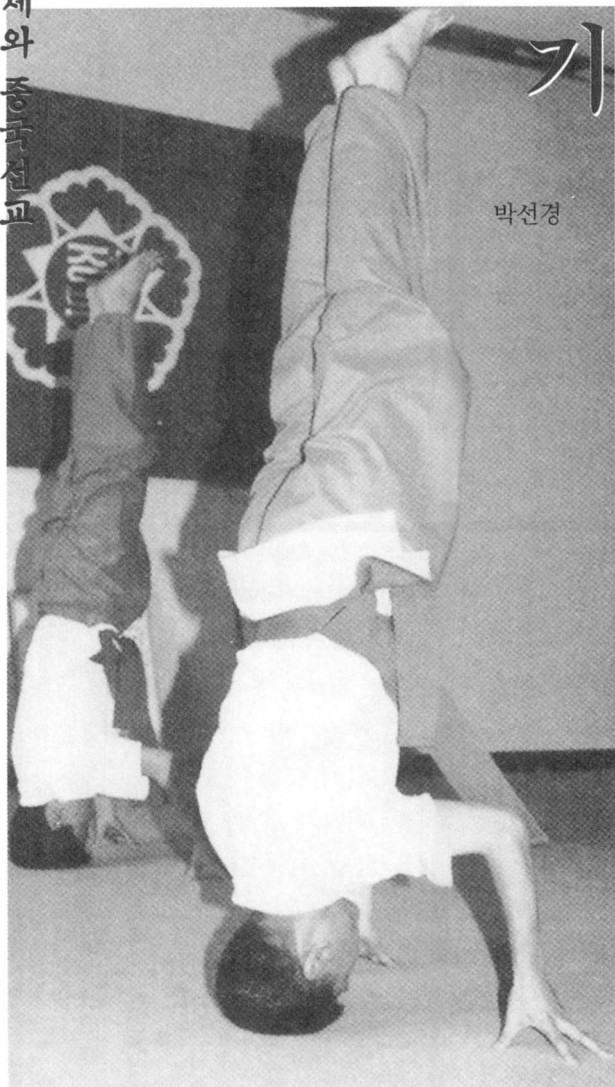
世界反法輪功大聯盟 363.jy.js.cn/fflg/
開原淨土反法輪功專頁 mud.sz.jsinfo.net/per/kyjt/disflg
批判駁法輪功民間站點169站 review.zj.cninfo.net/review/ppfl/index.html

◎ 파룬궁 찬반 토론 사이트

北美自由 nacb.com/bbs/freetalk/
東西南北 www.china101.com/cgi-bin/polipage.pl
新華通 207.151.76.245/cgi-bin/mainpage.pl

중 국 선 고

성경적 관점에서 본 기공의 문제점



박선경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 기(氣)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기 사상에 근거한 전통적인 '양생술(養生術)¹⁾ 인 '기공'(氣功)과 '단전호흡'(丹田呼吸)에 대한 관심이 여러 해 전부터 고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각 유파의 기 수련 도장이나 교실을 합하면 약 1천여 곳에 이르며, 기 수련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도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1996년 3월 기준). 국회를 비롯하여 정부의 여러 부처, 기업, 대학 등에 기 수련을 위한 기공 동아리들이 결성되어 있다. 기 수련 단체의 이름도 다양해서 국선도(國仙道), 기천도(氣天道), 태극기공(太極氣功), 익지공(益智功), 생기기공도(生氣氣空道), 단학선원(丹學仙院), 양생 자율진동기공회(養生自律震動氣空會), 중국

우리 사회에 기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무기관에서도 수련 바람이 불고 있다.

1) 양생술: 중국에서 불로불사(不老不死)를 동경하여 신선(神仙)이 되기 위해 만든 방법을 말한다. 양생술은 일반적으로 벽곡(辟穀), 복이(服餌), 조식(調息), 도인(導引), 방중(房中) 등 다섯 분야로 나누어진다. 벽곡이란 생식을 의미하고, 복이는 초근목피나 금속이나 암석류를 약재로 해서 만든 약을 마시는 것이다. 조식은 오늘날의 단전호흡을 말하고, 도인은 오늘날의 기공체조에 해당한다. 방중은 성교의 기술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기를 보존하여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불로장생술이다.

기공협회(中國氣空協會), 운기협회(雲氣協會), 생활천도선법회(生活天道仙法會),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파룬궁(法輪功) 등 굉장히 많은 유파가 각기 나름대로의 공법(功法)으로 지도하고 있다.

기 바람이 교회 밖에서만 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건강의 증진과 심신의 수련을 위해서 기공체조나 단전호흡 등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이러한 수련법이 수용되고 있다.

이처럼 기가 건강, 심신의 수련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붐을 타고 있지만, 기 수련 단체들 중에는 겉으로는 건강을 도모하는 단체로 보이나 종교화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단체의 설립자를 우상화하는 곳도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일어났던 파룬궁 사태는 바로 이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를 다룸에 있어서 성경적 관점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의 사상에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와 영향력, 인간의 반영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 다음에 건전한 대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기 개념의 발생과 변천

기 개념의 원형은 은대(殷代) 갑골복사(甲骨卜辭)에서 보이는 '풍' (風)과 '토' (土)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중국, 즉 은대(B.C. 1700-1100) 사람들은 바람과 구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비가 농경사회의 생산력에 결정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구름을 몰고 와서 비를 내리게 하는 바람은 생명력의 근원으로 생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풍신' (風神)에게 동물의 희생제물을 바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의식을 치르었다.

한편 대지는 곡물이 생육되는 곳이며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은대 사람들은 토지에는 토지의 신령한 영이 존재한다고 생각

했다. 따라서 '토'에 대한 제사에도 역시 회생을 태워 연기를 올리는 요제(燎祭)가 드러졌다.

이처럼 '풍'과 '토'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오는 생명력의 근원으로 기 개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풍'과 '토'는 각각 양기(陽氣)와 음기(陰氣)를 대변하고,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대변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기의 감응(感應)이라는 개념이나 음기와 양기의 합일(合一) 등의 개념은 천신(天神)과 지신(地神)의 성적합일을 상징하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알 신앙의 전형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기의 개념은 발생론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에 대한 정령숭배 사상에서 유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의 정령에 대한 신앙이 인간을 중심으로 만물을 성립시키는 '생명력'의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 바로 기이다.

단전호흡과 기공

풍신(風神)이 천기(天氣)의 개념으로, 토(土)의 정령이 지기(地氣)의 개념으로 발전해 갔다면 이제 인기(人氣)의 문제가 남아 있다. 사람은 천지(天地) 간의 기를 호흡하여 신체 내에 기를 충만케 한다는 관념이 생겨났다. 호흡의 정지는 곧 생명의 끝이기 때문에 생명력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호흡은 천지간의 기, 특히 풍의 출입과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여겨졌다. 인기와 천기, 지기는 동일하다는 사고가 정착되어서 인간을 만물의 하나로 간주하고, 사람도 만물과 마찬가지로 기를 구성요소로 한다는 사고가 정착된다.

신체 내에 기를 충만케 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단전호흡과 기공이다. 더욱이 이것은 기 개념과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추구하는 도교적 개념이 결합한 양생술의 분야로서 건강, 심신의 수련이라는 측면에서 대중의 폭발

적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의 중국인들은 기가 만물의 근원이며 생기의 원천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몸 안에 기를 쌓으면 생체 에너지를 강화해서 불로장생하고 나아가서 불사의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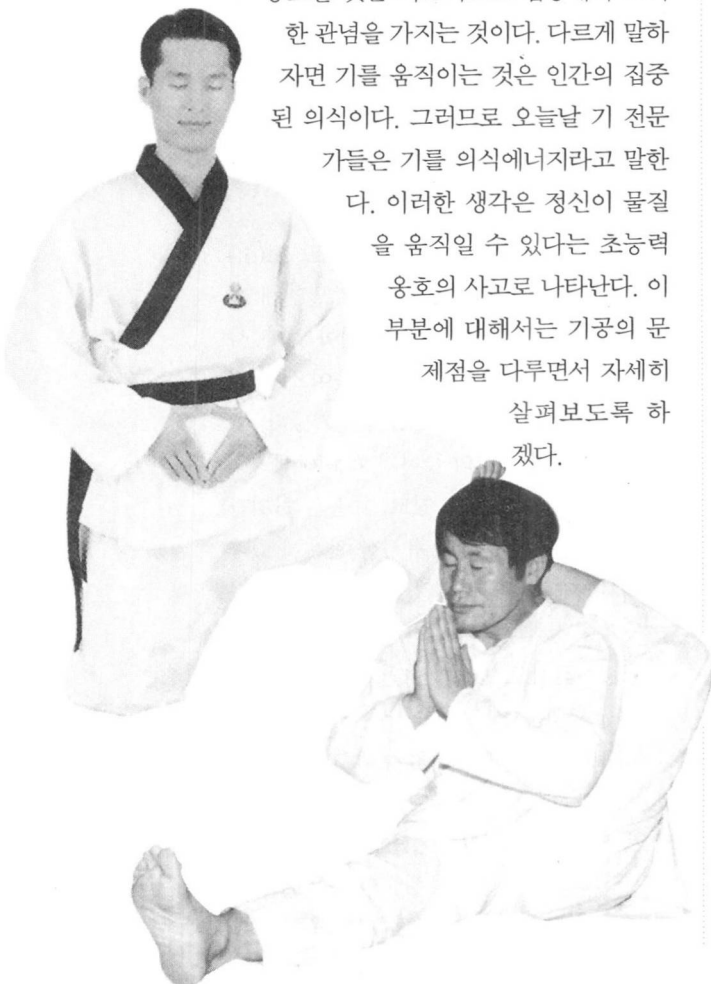
단전호흡이란 인체 내부의 단전에 기를 쌓는 호흡법이다. 단전호흡은 심호흡이나 복식호흡과는 다르다. 심호흡이나 복식호흡은 일반 은총적인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마음을 안정시켜 주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면이 있다. 그러나 단전호흡은 심호흡이나 복식호흡의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 의지(意志)가 들어간 것이다. 즉 기를 전제로 하여 흡입하고, 단전까지 기를 끌어내리고, 몸 속에서 기를 돌리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그러한 관념을 가지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기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집중된 의식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 전문가들은 기를 의식에너지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정신이 물질을 움직일 수 있다는 초능력 옹호의 사고로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공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전호흡으로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도 꽤 있다. 그것은 우선 단전호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심호흡과 복식호흡의 효과 때문이고, 또 세상사의 근심을 잊어버리고 호흡 등에 집중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뿐이다. 단전호흡에는 심호흡, 복식호흡적 요소에서 오는 부분적인 효과와 함께 신인합일(神人合一)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단전호흡은 대우주의 기와 소우주의 기가 서로 소통하고 순환한다는 '우주와의 합일'이라는 범신론적 신비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신인합일 사상은 다름 아닌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단의 가르침(창 3:4~5)이다. 따라서 단전호흡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수행법 이상의 범신론적 세계관을 그 밑바닥에 깔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든, 의도하였든 간에 사단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것을 실천하였을 때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본위적인 안일한 생각이다. 사단은 알곡과 가라지를 섞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한 묶음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전략을 선호한다.

동양의 수행법의 특징은 항상 혼이나 육의 차원에서 출발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도 일반 은총적 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동양적 수행법은 단지 이 방법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에서 출발할 수 없다. 동양적 수행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단지 혼과 육의 차원에서만 할 수 있다.

기독교의 묵상법은 인간의 영이 거듭남으로써 시작된다. 인간의 영은 죄로 인하여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의 혼, 즉 지·정·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안정을 누리게 되며, 나아가서 육체도 평안하게 된다. 반면 혼이나 육의 차원을 조작해서 오는 평안이나 안정된 뇌파의 상태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금방 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오는 뇌파의 안정된 상태는 환경에 의해서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기공이란 특정한 몸의 동작이나 자세 그리고 의식을 통해 몸에 기의 치료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초자연적인 '특이공능'(特異功能)²⁾을 획득하는 것이다. 기공은 '기'와 '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련자들의 몸 안에 운행하는 것이 '기'이고, 수련으로 얻어지는 특이공능이 '공'이다. '기'를 연마해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공'인 것이다.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들에게 대해 '공력'(功力)이 높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 기공이 성경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특이공능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공중부양

기공의 문제점

기공체조가 단순히 육체를 움직이는 체조와 다른 점은 집중된 의식으로 기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이다. 기공체조는 단순히 육체의 움직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주와의 합일을 통한 생체 에너지의 증대를 전제로 하는 조신법(調身法)의 일종이다. 어떤 사물이나 호흡 등에 집중된 의식은 '변성의식'(trance)을 가져온다. 즉 변성의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의식의 집중으로 시작하여 점차 인식대상과의 합일, 즉 주객합일을 통해 결국 인식주관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야 하는 것이다.

변성의식 상태는 최면술이나 샤머니즘의 황홀경, 그리고 범신론적 신비주의에서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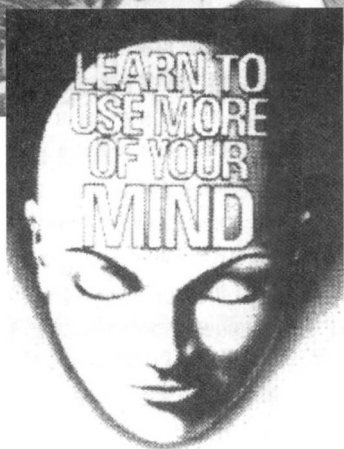
적으로 나타나는 삼매경, 무아경, 몰아경 등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다. 이러한 변성의식 상태는 다른 말로는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변성의식 상태에서 신접함으로써 정령의 도움을 받아 주술과 미술적 행위를 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공수련자들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특이공능 역시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변성의식 상태는 일종의 무의식 상태이며, 기공이나 초능력 전문가들이 말하는 알파(α), 혹은 제타(θ) 파의 뇌파상태이다. 범신론적 신비주의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인합일(神人合一), 주객합일(主客合一), 천인합일(天人合一) 등의 말로 표현하며 최고의 경지로 간주한다. 이러한 무의식 상태는 자기

2) 특이공능: 오랫동안 기를 연마해서 얻어지는 초능력으로서, 여기에는 육체와 혼이 분리되는 육체이탈,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공간이동, 신체를 공중 뜨게 할 수 있는 공중부양, 사람과 사물의 내부를 볼 수 있는 투시력 등이 있다.

파룬궁의 실체

특집 / 파룬궁의 실체와 중국선교



정체성의 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귀신들림의 상태, 신접(神接)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초능력 추구자들은 요가나 기공과 같은 수행을 통해서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신적인 능력이 개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사악한 영의 능력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다. 초능력은 불교, 요가, 기공 등 범신론적 신비주의에서 언제나 따라 다니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범신론적 신비주의에서 인간은 우주의 궁극자이며 초능력은 '인간이 곧 신'임을 입증해 주는 표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범신론적 신비주의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

도 아니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힘도 아니며,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무의식은 영적 전쟁의 각축장이다. 무의식은 중립적이어서 하나님이 활용하실 수도 있고, 사단이 활용할 수

도 있다. 무의식 상태는 무인격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를 맺기에 가장 좋은 상태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므로 무의식적 황홀경의 상태로 빠뜨리시는 것을 즐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오르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기공 사상에서 기를 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은 무신론적 사고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기 사상에서는 무(無)에서 유(有)가 창조된다고 하는 식의 유신론적 사고는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은 우주의 신비를 숭배하고 사실(事實)과 자신의 체험을 믿는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악령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셈이다.

기공 사상은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신의 창조와 주권적 섭리행위를 배제하며 자연은 단지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서 순환론적으로 움직일 뿐, 어떤 초월적인 신에 의해서 목적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인간 역시 우주

의 일부분으로서 유기적 전체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은 우주의 궁극적인 기의 질서, 즉 우주 에너지의 질서에 자기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공 수련자들의 인생관은 다분히 숙명론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믿으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길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기공 사상은 인간에 내재한 궁극자인 기가 우주의 궁극자인 기와 동일화될 때 인간은 완성되며 궁극적인 존재로서의 자각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기 사상이 '인간이 곧 하나님'임을 주장하는 사단의 가르침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공 사상은 생명의 근원이나 마지막 종착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단지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장생불사(長生不死)이다. 성경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목적인다고 가르친다. 기공이 지향하는 목표는 현세기복적이며, 영적 도덕적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

맺는 말

기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라는 개념은 워낙 오랜 세월동안 범신론의 영광을 위해서 종사해 온 오염된 개념이다.

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이나 행위의 수용여부를 위해서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는 임상적 경험성과 자연과학적 재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면 누가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재현성이 없다면 그것은 의학이나 과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이며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기를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집중



기의 세계관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속임수이다.

된 의식의 조작 행위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의식으로 물질을 조정하는 것이고, 곧바로 변성 의식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성 의식은 정체성의 상실을 동반한 신인합일론적 범신론을 전제한다. 셋째는 외기(外氣)를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주입해서 생명력을 보강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생체에너지의 보강법이 아니며, 역시 변성 의식 상태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귀신의 침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공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 『기, 무엇이 문제인가?』, 안점식, 조이선교회출판부, 1999.
- 『氣功의危害』, 小光, “中國興福音雜誌第13期”, 中國福音會, 1999.

파룬궁과 나의 가정

양요셉

파룬궁에 심취한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파룬궁(法輪功)'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때는 1993년이였다. 대학 시절 방학을 맞아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파룬궁을 소개받고서는, 이는 건강에 유익할 뿐 아니라 여러 특별한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어머니는 인내심이 부족한 분이라 기공(氣功)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자신의 주장이 약한 탓에 남의 말을 들으면 쉽게 영향을 받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만성병 때문에 여러 기공들을 시도해보셨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나도 어머니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유행처럼 금방 지나가겠거니 생각했다.

학교로 돌아간 후 계속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어머니가 동료들과 함께 소그룹을 만들어서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문적인 지도자 밑에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었고 어머니 자신에게도 약간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예를 들어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도 좋아졌다는 것이다. 나는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나의 기독교 신앙은 매우 어리고 연약했으며, 기공에

대해 연구할 여유도 없었다. 파룬궁을 하나의 신앙이나 종교라기보다 그저 단순한 운동이라고 여겼을 뿐, 마귀의 역사(役事)와 연관지어 생각하지는 않았다. 부모님은 여전히 나의 신앙을 반대했으며, 나는 가족들과 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통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같이 대학을 다니던 여동생도 이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이에 대해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좀 미신적일 뿐이며 정말 효과가 있다면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한 그 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파룬궁을 수련하라고 권하기 시작하셨다. 어머니에 의하면 파룬궁 교주가 모든 신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파룬(法輪)을 상징하는 배지를 달면 위험한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를 믿지는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배지를 옷에 달고 다니셨다. 그 후 언젠가 한 번, 아버지가 호텔의 욕실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어머니가 이 일은 분명 파룬궁의 효과라고 주장하시자 아버지도 반신반의(半信

半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참석하는 소그룹은 대부분 같은 직장의 여성 신도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아버지는 그들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셨다.

여름방학 때 집에 내려갔는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나에게 리홍즈의 '경서(經書)'를 읽으라고 권하였다. 어머니와 변론할 때면 그녀는 내게 교주를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보통 사람의 지혜로는 파룬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단지 높은 차원에 들어간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속해 있던 소그룹은 매 주 몇 번 정기모임을 가졌고,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 매일 아침 단체 수련도 하였다. 어머니는 항상 일찍 일어나서 수련한 후 우리를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저녁에도 한 두 시간씩 책상다리를 한 채 열심히 수련하였다. 어두움 속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봤을 때, 나를 낳으신 어머니였지만 너무나 멀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 해 가을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감사하게도 여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성경공부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듬해 여름 동생은 세례를 받았다. 나도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 우리 집 네 식구 중에 크리스천이 두 명이나 되니 가정 복음화도 멀지 않다고 생각했다. 내가 중국을 떠날 때 동생에게 많은 신앙서적과 테이프를 남겨 주었고, 나는 동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리라 믿었다.

여동생의 변화, 그리고 절망

○국에 온지 4개월 쯤 되던 어느 날, 중국에서 어머니가 보낸 첫 편지가 도착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뜯어 본 편지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동생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크리스천에서 파룬궁 신자가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어머니는 나에게도 잘 생각해보라고 권하시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여동생도 편지를 보내어 자기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녀는 겨울방학 때 집에 내려가기 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신앙서적을 가지고 내려갔다. 그러나 어머니의 제의로 파룬궁의 경서를 읽은 후 강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동생의 말에 의하면, 이제 우주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한 기쁨과 더 이상 외로워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다는 안정감으로 인해 울고 또 울었다는 것이다. 여동생은 이제 파룬궁 신도가 되어 열심히 전도하기로 결심했다고 썼다. 이 편지를 보는 순간 눈이 흐릿해지면서 커다란 허탈감을 느꼈다. 이 일은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한 동안 쓰리고 아픈 가슴을 안고 생활해야 했다. 나의 절망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지 못한 채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계속하여 묻기만 하였다.

어머니나 여동생은 나의 신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요 백인의 종교라서 파룬궁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들이 파룬궁 신도가 된 것은 특별한 '인연(因緣)'이라는 믿음이 가득했으며, 나에게도 이 인연을 얻게 하려고 쉬지 않고 노력하였다. 어머니는 비싼 비용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집할 수 있는 모든 파룬궁 경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셨다. 나의 책꽂이의 한 층을 채운 많은 책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서적을 집으로 보낼 수 없다는 현실이 나를 더욱 절망케 했다. 아버지는 파룬궁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며 나에게 신자가 되라고 권하는 의도도 없으시다. 그러나 그도 분명히 파룬궁 신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화 중 아버지의 심장 상태를 물었는데, 이제 파룬궁을 수련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당황해서 할 말을 잊었다.

그 후 어머니와 여동생은 편지를 통해 계속

나에게 파룬궁을 전하고자 했다. 자신의 변화와 만족을 나누고 교주의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여동생은 자주 인터넷을 이용해서 최신의 경서를 보내주었다. 이를 통해 나도 중국에서 파룬궁 세력의 급성장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친구, 동료에게 했던 전도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여동생의 남편도 그녀의 영향을 받아 착실한 파룬궁 신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고 늘 걱정했다. 나는 편지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했으나, 단혀 있는 그들의 마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올해 4월 하순, TV와 신문을 통해 중국의 약 1만 명의 파룬궁 신도들이 베이징(北京)에 모여 연좌시위한 사건의 보도를 봤다. 그리고 7월, 예상대로 중국 정부는 철저히 파룬궁을 단속하고 교주를 지명수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어서 전국적으로 파룬궁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많은 파룬궁 지도자들이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 특히 임신 중인 여동생이 많이 걱정되었다. 드디어 여동생으로부터 전자우편이 왔다. 그녀는 지금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에 의해 조사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동생은 과거의 행동을 시인했지만,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시인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파룬궁의 진(眞), 선(善), 인(忍)은 진리라고 생각하며 이 '거룩한 진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뜻을 표실했다. 겁이 많고 남과 싸울 줄도 모르던 여동생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을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죽을 걱정하기보다는 왜 그들이 파룬궁에 빠져들었는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식인을 끌어당기는 파룬궁의 마력

어머니나 아버지는 처음에 단순히 건강 문제

때문에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신 것 같다. 일반 기공보다 빠른 효과와 함께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머니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물론 교주의 약속과 주변 수련자들의 간증도 강한 심리적 암시를 주었다. 그리고 수련 소그룹 속에서 나이와 배경이 비슷한 신도들이 모이는 것도 그들에게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직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던 동료들이 이제 직분이나 권위를 떠나 인연(因緣) 있는 신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새로 맺어진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교주를 향한 충성과 대법(大法)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이다. 진, 선, 인을 외치는 그들은 자신들을 현대 사회의 성자(聖者)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파룬궁의 제자라는 신분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열심히 수련하는 모습으로 인해 다른 신도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파룬궁 신도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난 교주의 교훈을 믿는 것도, 자신들이 범인(凡人)이 아닌 우주적 대법(大法)의 제자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주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들은 장차 극락세계에 가서 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학이론이나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교주의 말씀으로 세계를 해석한다. 이것이 그들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방어 무기인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석사과정 학생을 가르치시는 과학자이며 두 분의 직장도 매우 수준 높은 연구기관이다. 그런데 부모님과 그들의 직장 동료 같은 많은 지식인들이 파룬궁에 심취한다는 점은, 파룬궁이 단순한 신체수련이나 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나는 파룬궁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 그 속에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발견했다. 간단한 도덕 교훈 외에 우주와 생명에 대한 해석도 있는데 현대 물리학을 배운 사람에게 그 내용은 황당무계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분들의 많은 동료들은 이미 정신적 이데올로기의 상실을 경험했으며, 이제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와 권위를 추구하고 있다. 파룬궁 교주의 선전과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신이라고 암시하는 이론이 바로 이런 욕구를 충족시킨 것이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는, 서양의 종교라는 인식과 정신적 만족 대신 현신을 요구하는 기독교의 특징 때문이다. 그들은 이 세상이 죄가 가득 찬 세계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한다. 십자가에 죽으신 '연약한' 예수도 그들에게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여동생의 경우는 비록 크리스천이었지만 신앙이 약했고 자신의 삶에서 진리를 실천하지 못했다. 단지 머리로만 기독교 신앙을 이해했을 뿐, 자신의 삶과 마음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또한 여동생은 늘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을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러한 욕구를 채워주는 약속과 실제 효과가 있는 파룬궁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실 여동생은 대학원생이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 파룬궁의 교리는 천박하고 유치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인의 정서에 맞는 쉬운 표현과 우주와 생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삶의 해답을 찾고 있던 여동생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어머니의 열성적인 권유도 큰 역할을 했다. 그때 주위에서 도와주는 크리스천도 없었기에 여동생의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큰 압력이었다. 당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여동생이 오히려 지금은 파룬궁을 진리라 굳게 믿고 기회만 있으면 동창들이나 동료들에게 열심히 전도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영향을 받아 파룬궁 신도가 되었다.



진리를 위해 싸우는 기도

파룬궁으로 인해 평화와 기쁨을 잃은 나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울분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말씀을 들어도 잘 깨어지지 않는 세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쉽게 넘어지는 신자들, 이제 우리 사는 세상은 분명 위기 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때 가장 우선적인 대안은 능력의 주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기도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진리를 위하여 싸우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중국 대륙에 파룬궁 신도들의 숫자가 8천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중국 교회 전체를 동원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한국 교회의 중보기도가 매우 절실하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아래에 적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자 한다.

1. 파룬궁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와 어두운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거짓 능력과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2. 정신적 공황기에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중국인, 특히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파룬궁이나 다른 거짓 신앙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중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진리로 무장되어 이 시대의 우상과 악한 조류에 대항하고 반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양요셉/중국인 사역자

중국 선교

파룬궁의 실체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 원인과 중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

싱푸펑(邢福增)



중난하이로 들어가려는 수련자들을 검문, 저지하는 중국 공안.

중국 정부와 파룬궁

1999년 7월 22일 중국 민정부(民政部)는 정식으로 파룬따파연구회(法輪大法研究會)를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파룬궁(法輪功) 조직을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같은 날 중국 공안부는 파룬따파의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전국적으로 파룬따파의 활동에 대한 진압이 전개되고 있다.

1999년 4월 말 1만여 명에 이르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베이징(北京)의 중난하이(中南海)에 집결하여 시위를 가진 후, 중국 당국과 파룬궁 간의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에 달했다.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1억 명에 이르는 회원을 가진 파룬궁을 과연 소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4·25 이후 리홍즈(李洪志)와 파룬따파 회원들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외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관방 언론매체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보도를 자제하다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즉 무신론 선전을 제창하면서, 파룬궁이 봉건 미신이며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사건이 발전됨에 따라 당국 역시 파룬궁을 용인할 수 없으며, 그 태도와 입장은 도저히 합법화될 수 없음을 재차 설명했다.

사실 중국 당국과 파룬궁과의 긴장관계는 이미 199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측의 충돌이 가시화되면서, 점차 당국은 파룬궁의

막대한 발전을 점차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파룬궁은 건강증진을 위한 일반 기공의 범위를 초월한 듯이 보였다. 이는 결국 중국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파룬궁의 활동을 가까이서 주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4·25 사건을 전후하여 보여진 파룬궁 회원들의 엄청난 동원력 과시는 가짜이나 민감해진 당국의 신경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국가안전을 수호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중국 당국은 마침내 엄중한 방법으로 파룬궁과의 대립을 처리하였다.

당국의 파룬궁 탄압 원인

중국 공산당 중앙통전부(中央通戰部) 부장 왕짜오궈(王兆國)는 7월 23일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無黨派) 인사들에게 중앙 정책을 전달하면서, 파룬궁의 정치 투쟁을 “1989년 6·4 천안문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사건”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비판과 진압은 6·4 천안문 사태 이후 가장 기세가 높았던 사건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로 파룬궁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정부에 의하면 파룬따파 연구회의 최상은 등록하지 않고 불법활동을 한 점, 미신사설을 전파한 점, 군중을 기만하고 이단적인 선동으로 각종 사고를 일으킨 점, 사회안정을 파괴한 점 등이다. 우리는 파룬궁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로부터 정부가 파룬궁을 금지하는 이유를 정치, 사회, 도덕, 그리고 종교의 네 가지 방면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원인의 배후에는 정치 내지 사회안정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 금지가 선포된 후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국내의 모든 매체들이 총동원되어 파룬궁의 실체를 알리는 데 열을 올렸다. 각계 인사들과 기관단체

들이 줄지어 나와 말과 글을 통해 파룬궁을 성토했면서 그것의 비과학성을 지적하였다. 그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리홍즈에 대한 수련자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었고, 수많은 실례를 들어 파룬궁을 신봉하다가 파멸로 빠져든 경우를 다루었다. 결국은 이를 통해 파룬궁이 군중을 기만하고 심지어는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 원인의 사회 도덕적 측면이다.

그밖에도 파룬궁의 전면적 소탕을 위해 당국은 정치 성향 내지 조직적 측면에서 파룬궁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였다. 정부의 조사와 이미 파룬궁과 결별한 과거 파룬궁 열성분자의 보고를 통해, 파룬따파 연구회 배후의 정치적 야심을 폭로하고 있다. 특별히 리홍즈 등이 여러 차례 파룬궁이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파룬궁의 법적 근거를 완전히 소멸시켰다. 이것은 정치적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차원에서, 관방 언론은 전면적으로 파룬따파 배후에 있는 허위사설을 폭로했다. 여기에는 신비주의 우주론, 생명기원 신창조설, 생로병사 숙명론, 세계 종말론, 정부 무용론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맹렬한 기세로 각종 매체를 통해 파룬궁을 비판한 것은 그 규모로 볼 때 확실히 6·4 이후 보기 드문 일이다. 사실 어떤 방면에서 파룬궁은 근래 발생하여 주목을 끌었던 빼이리왕(被立王)이나 주신교(主神敎) 등과 같은 사교조직과 유사한 최상으로 폭로되어 소탕되었다. 중국 정부가 빼이리왕과 주신교를 소탕할 때 역시 적지 않은 여론의 힘을 발동시켰다. 그러나 비판적 성토 언급의 범위와 심도를 고려할 때 파룬궁은 일반적인 사교(邪敎)의 영향력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많은 평론들은 중국 당국이 이와 같이 대규모로 파룬궁을 진압하는 원인을 리홍즈가 전 세계의 수련자가 1억이 넘는다고 거듭 밝혔던 사실처럼, 중국 대륙만 따져도 파룬궁 수련자들의 숫자가 6천만 중국 공산당원보다 훨씬 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파룬궁이 중국 당국에 위협적인 이유는 단순히 증가되는 인원 수뿐만 아니라, 이들 수련자의 배경과 성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농촌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교와 파룬궁과의

다른 점은, 사고의 구성원이 주로 농촌의 문화 수준이 낮은 농민인데 반해, 파룬궁 수련자들은 대다수가 도시민이며, 이 가운데에는 고급 지식인, 군인,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국을 가장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바로 당 지부 서기, 청(廳), 국(局) 심지어는 부(部)급의 관리이며, 또 해방 이전 대장정(大長征)에 참여했던 노(老)홍군(紅軍)인 전 해방군총구병원장 리지화(李其華)까지 파룬궁의 수련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파룬궁 수련자인 이들 당원의 파룬궁에 대한 충성심은 당에 대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렬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은 분명 그들의 뇌리 뒤편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수련자들이 당과 파룬궁 중 하나를 택일하는 문제는 확실히 중국 정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4·25 중난하이 시위' 발생 이후, 파룬궁 수련자 중 한 명인 왕여우첸(王友群)은 5월 7일 장쩌민(江澤民)에게 공개서신을 보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조금도 두려워함 없이 명백히 자신의 소속 단위(중국 공산당 중앙법률심사위원회 법규실)를 밝혔다. 왕은 파룬궁의 장점들을 거듭 밝히며, 정부는 파룬궁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련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각 방면에서 오는 비판들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청산도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으니 결국에는 동쪽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자들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배 이상 늘어나며 매일 끊임없이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양박과 장애물이 가로막는 다 하여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의 대열에 들어설 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역사적 대세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중난하이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4·25 사건'을 언급하며 왕여우첸은 또 이렇게 말했다.

중난하이를 찾아갔던 목적은 이러한 우주의 대법칙을 중국의 최고 정책 결정층에 알려, 그들이 중국 인민에게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게 함이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며, 오해와 비판, 대역무도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난하이에 가기 전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는가 봅니다! 우주의 대진리를 널리 알리고자 함에, 개인의 생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파룬궁 수련자인 또 다른 공산당원 역시 인터넷에 자신의 심정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 수련인들은 일찍이 명예와 이익,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았다. 만일 중앙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당원들을 모두 탈당시키고자 한다면, 나를 내쫓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더러 스스로 탈당하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공산당원의 기준 조건에 따르면 나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훌륭한 당원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밝힌 당원은 당 중앙에 진정서를 보내서, 파룬궁과 공산주의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파룬궁이 공산주의보다 좋은 점들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점에서 살펴볼 때, 그들의 파룬궁에 대한 충성심은 당에 대한 그것을 이미 넘어섰음이 확실하다. 즉 이 수련자들은 파룬따파가 '진리'임을 확고하게 믿고 있으므로, 대법을 위해서는 순교라도 기꺼이 각오하고 있는 것이다. 파룬따파의 종교성은 여기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이밖에 각 지방 관련기관들이 파룬궁 문제 처리에 대한 토론을 벌일 때마다 대부분의 내

부서류가 빠르게 수련자들에게 누설되곤 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파룬따파를 추종하고 있는 간부들의 소행이다. 예를 들면 1998년 8월, 광둥(廣東)성 성위원회 사무청에서 내부 간행물을 발행하여, 성 종교국이 제공한 「우리 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룬궁'을 주의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파룬궁이 기공이라는 명목으로 미신과 재난 의식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후 며칠도 안 되어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이 내부 간행물이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성 직속 모 기관과 광저우(廣州)시 둥산(東山)구 모 기관 간부를 필두로 네 명의 수련자가 서명한 항의서한이 성위원회 사무청 종합감사처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편지에서 파룬궁에 대해 왜곡보도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실을 해명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만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심지어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을 막론하고 <전법륜(轉法輪)>에서 제창한 '삼가는 마음(傷心性)', 그리고 진(眞), 선(善), 인(仁)으로 동화되는 우주 특성의 진리를 방해하고 해친다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성 종교국에 정정하는 글을 실을 것과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후 성위원회 사무청이 조사한 결과, 모 성의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가 내부 간행물을 외부로 누설한 사실이 밝혀졌다. 누설자가 조사를 받게 되자, 광저우 지역의 파룬 수련자들은 또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서명운동을 벌여 항의하였다. 당국에서 볼 때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파룬궁이 당 정부기관 내에 침투하려는 음모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민일보(人民日報)> 사설에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파룬궁이 당과 '군중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는 우리 일부 당 정부기관과 주요기관에 침입하여, 당과 정부에 맞서는 정치세력을 조성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파룬따파를

반대하는 자, 그들의 위협을 폭로하는 자가 있으면 무턱대고 비난하고 공격하며, 언론기관을 공격한다. 당 정부기관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나아가 불법적인 대규모 단체 활동을 벌이며, 당과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시위를 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 중 1/3 이상이 공산당원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 통계에 의해 현재 전국에 2백만 명 가량의 수련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 당원 수는 육십여 만 명이 되는 것이다(쓰촨(四川)성에만 파룬궁 수련하는 당원이 1만 3천 명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7월 22일 민정부가 파룬따파연구회를 단속하기에 앞서 7월 19일 중앙정부가 「공산당원은 파룬궁을 수련해서는 안 된다」는 통지를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통지문은 "일부 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여 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사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얼마 안되어 인사부 및 공청단(共靑團) 중앙에서도, 「국가 공무원 및 공청단원은 파룬따파를 수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공고하였다.

장웨이칭(張微淸)과 차오궁(喬公)의 논평은 매우 정확하였다. 그들은 중국 당국이 가장 난처해 하고 있는 점이 바로 '파룬궁 수련자 중 공산당원이 있고, 공산당원 중 파룬궁 수련자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 공산당원과 관리들 중 파룬궁 수련자(심지어는 핵심인물)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은, 이들 당원과 간부들로 하여금 이중 충성과 양자 모두를 인정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겪게 하였다. 중국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7월 23일 <해방군보(解放軍報)>사설에서는, 파룬궁이 "수련자들을 사상적으로 기만하며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종교도 당도 아닌 형식을 띠고 조직의 구조를 막강하게 발전시키며 엄격한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수련자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엄중히 비판하였다. 특히 당 조직에 대한 '대법'의 '침투' 문제를 강조하며, "만일 파룬따파 조직 제거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 조직과 간부 대오를 침식하며, 당과 정부에 공개적으로 맞서는 정치세력으로 팽창하고 확장되어질 것이며, 이는 인민과 당 나아가 국가의 안녕을 해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당 중앙에서 드디어 파룬궁을 폭로하고 비판하

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공산당원의 근본 신념, 공산당 지도자, 사회주의 제도의 중대한 정치영역을 수호하기 위함' 이라고 이 투쟁의 성격을 정의했다.

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심각한 도전은 파룬궁 현상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신앙적 위기이다.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따르는 자들이 왜 파룬궁에 끌리는 것일까? 공산주의야말로 모든 세계관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신념이 아니었던가. 만약 60여만 명의 공산당원이 생각할 때, 파룬따파가 공산주의보다 더욱 그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긴다면, 이는 공산주의 및 공산당에 대한 일대 조소가 아닌가. <구시(求是)>의 사설에서도 그렇게 밝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수 공산당원들이 리홍즈의 말도 안되고 모순으로 가득찬 '이론' 과 졸렬하기 짝이 없는 그의 연기를 정말이라고 믿고, 심지어는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전파하며, 당의 입장을 저버리고 마땅히 지녀야 할 이상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심사숙고 해 보아야 한다. 눈앞에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은 공산당의 사상영역이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점령되지 않는다면, 훼손되어 분명 비(非)마르크스 혹은 반(反)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점령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식으로 파룬따파를 금지시키기 전, 당국은 여론기구를 움직여 공산당원은 반드시 유물주의와 무신론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글로 써내게 했던 것이다. 중국 무신론헌회 회장 런지위(任繼愈)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거짓된 과학의 기호와 과학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그 세력을 넓히고 있는 신유신론(新有神論)을 없애야 한다." 고 제시하였다. 장쩌민 역시 1999년 6월 말 중국 공산당 성립 78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만일 공산당원이 사상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근본 정치 신앙 및 마르크스주의 유물주의 세계관이 흔들린다면, 이는 바로 '공산당원

의 근본적인 정치 입장' 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당연히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불건 미신과 기타 소극적 행위로 정신적인 의탁을 찾으려는' 일부 당원들의 경향을 포함하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를 위한 사상교육에 있어서,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 당원들에 대해 어떻게 사상전환 교육을 시켜야만 이들이 철저히 후회하고 파룬궁과 확실하게 선을 긋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그 교육의 중점이 되고 있다.

최근 거행된 베이따이허(北戴河) 중앙공작 회의에 따르면, 여전히 대다수의 간부와 당원들이 중앙에서 파룬궁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중을 미혹케 하는 민간조직에 불과한 파룬궁이 어떻게 정세를 크게 혼란케 하고 정권을 뒤엎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장쩌민도 이에 대해 "심지어 이들은 당과 정부가 조그만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떠벌리면서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장쩌민은 파룬궁의 실체와 해로운 점, 과학을 위장한 점을 정치적인 면과 조직 계층적인 면에서 심도있게 폭로하고 비판할 것을 호소하였고 이를 '현재 전체 당의 주요 업무' 로 삼았다.

중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하여 파룬궁을 전면적으로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상황이 일반 사교에 대한 공격과 다른 점은, 파룬궁 현상이 최근 당 조직과 규율을 흔들리게 했으며, 당내 이론 학습의 깊이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드러나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장쩌민은 파룬궁에 대한 강력한 공격과 진압을, 당 조직의 응집력을 증가시키고 당원들에게 '삼강(三講: 정치를 논하고, 학습을 논하며, 정기(正氣)를 논함)' 을 더욱 열심히 학습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의 기회로 삼았다.

파룬궁 사건이 중국 교회에 주는 영향

리홍즈와 중국 정부 모두 파룬따파가 종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룬궁이 강렬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이는 중국적 특성을 지닌 '신홍종교'임을 설명할 것이다. 위에서 적지 않은 수련자들 스스로가 파룬궁에 대해 강력한 종교성과 배타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무신론'을 거듭 제창하고 봉건미신과 사교의 활동을 비판하는 바람에 많은 평론들이 파룬궁 제거와 종교에 대한 폄박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것으로 인하여 중국내 종교 신앙의 자유 정책이 영향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파룬궁 제거 초기 중국 당국은 정상적 종교 신앙, 합법적 종교 활동과 파룬궁 조직의 활동을 구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지금까지 일관된 종교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다. 당국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종교 신앙 자유를 허용하는 한편, 어떤 경계선을 설정하여 모든 종교 단체가 이를 준수할 것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 경계선이란 바로 종교단체는 반드시 사회주의에 '부응할 것'과 중국 공산당의 지도적 위치를 흔들리게 하거나 사회안정을 해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종교 관계 맥락에서, 어떠한 종교 활동도 만일 정치질서에 도전과 위협을 준다면 본질상 반동적 봉건미신과 사교조직이다.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절대로 우매한 미신 활동을 퍼뜨리고 사람을 기만하고 해치는 자유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99년 7월 13일자 인민일보 평론)

중국 정부는 과거 후한파(呼喊派), 영령교(靈靈教), 전범위교회(全範圍教會), 동방의 번개(東方閃電), 빼이리왕(被立王), 주신교의 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사교'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역시 위와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파룬궁에 대한 성토와 비판은 상술한 정치·종교 관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파룬궁에 대한 진압이 현존하는 중국의 종교정책이나 정교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 정치운동 아래에서 중국 교회의 발전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첫째, 당 중앙이 거듭 '정상적인 종교신앙, 합법적 종교활동과 파룬궁 조직 활동의 구별'을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파룬궁 금지를 전후하여 대규모의 유물론, 무신론 선전을 전개함으로써 봉건 미신과 현대 미신적 활동을 공격할 것이 분명한데, 이를 실행할 때 종교신앙과 봉건미신을 어떻게 정확히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과거 경험으로 보아 어떤 중대한 정치 운동을 펼칠 때, 각 하급 간부들은 모종의 민감한 과제에 부딪혔을 경우 일반적으로 '좌(左)일지언정 우(右)는 금물'의 태도를 취한다. 즉 당 중앙에서 공격을 확대시킬 의도는 없었지만, 하급 간부들이 정확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착오를 범하게 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상대가 억울하게 되는 한이 있어도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는' 처리 수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중국 농촌에서 기독교의 발전은 거의 지방 간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전국적으로 봉건 미신을 반대하고 과학 무신론을 제창하는 운동에 직면하여, 기독교와 기독교도들에 대해 극좌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하위 간부들이 생겨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 소장 쑤오신핑(卓新平)이 파룬궁 풍조를 성토하는 글에서, "파룬궁과 종교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무신론을 선전하고 봉건 미신을 반대하는 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 무신론과 각종 정상적인 종교활동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며, 극좌로써 대중의 신앙문제와 종교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부탁하였다.

둘째, 객관적으로 볼 때 파룬따파 금지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신학사상의 설립을 어떻게 사회주의에 부합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11월, 중국 기독교 전국양회는 지난(濟南)에서 개

최된 전체위원회에서 신학사상을 더욱 강력히 설립하자는 결의를 통과시켜, 신학사상의 활성화를 요구하였다. 신학사상의 설립 방향은 기본적으로 덩광선(丁光訓) 주교의 구상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중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윤리 도덕적 기독교'를 제창하는 것이다. 그리고 〈덩광선 문집〉의 출판은 마침 시기적절하게 전국 교회 학습의 원본이 되었다.

덩광선은 신학 사상적인 면에서 보편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중국 교회의 상황을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장된 말세론 및 믿음과 불신 간의 모순이 돌출하는 등의 과제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 신학 사상 변혁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글에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인류를 적대시하는 잔인하고 난폭한 분으로 묘사하며, 세계와 지구가 곧 멸망한다는 '복음'을 떠들어대는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 교회 내에 말세에 관한 예언이 만연하여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어두운 부분 및 전쟁, 지진, 질병 등은 모두 말세가 다가오고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는 '징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대중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지난에서의 전체회의 후, 중국 교회 내의 '기요파(基要派: 자유주의 신학파)'를 정돈할 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적지 않은 보수파 교회 인사들을 우려케 하였다. 이후 난징(南京) 진링(金陵)협화신학원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면직, 퇴학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역시 어떤 면에서 신학사상의 충돌과 모순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파룬따파가 일부 주장하는 사실과 덩광선이 비판하는 기독교의 낙후된 신학파는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의 파룬궁 금지 사태는 기독교 신학 사상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주장하기 위해 양회 지도자가 사용할 '부정적 자료로 부정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리홍즈가 '말세'에 대해 과장되게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 덩광선은, 이것은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건설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 중국 기독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원자오(韓文藻) 역시 거리낌없이 "파룬궁의 범법 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반격과 폭로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독교의 명분을 내세우는 사교 조직과 파룬궁이 얼마나 유사한지 점점 더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파룬궁과 기독교 사교조직의 유사점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둘 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내세워, 이를 따르는 자들을 기만하고 협박한다. 기독교의 명분을 내세우는 사교조직들 역시 추종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생산 활동을 멈춘 채 경건하게 기도만 해야 하며,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을 기다리면서 말세의 재난을 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도들에게 애국애교(愛國愛教)를 고무시키고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이롭게 하도록 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둘째, 둘 다 엄격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의 명분을 내세우는 사교 조직은 추종자들을 선동하여 각 지방 법 집행부처에서 '사건'을 일으키곤 하는데 이것도 파룬궁과 매우 흡사하다.

셋째, 둘 다 질병이 발생해도 병원을 찾으면 안 된다고 선동한다.

넷째, 둘 다 진정한 유신론자가 아니다. 유신론자는 정치적인 반동과는 다르다.

기독교의 '미신화' 경향을 수정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사회에 합당치 않은 신학사상을 개혁하기 위해 중국 교회는 반드시 파룬궁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파룬궁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파룬궁 금지 조치는 기독교 양회 지도자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원래는 신학의 전통과 입장 상에서의 차이와 쟁론에 속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정치 입장이 정확한지를 묻는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확실히 중국 교회의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맺는 말

위에서 중국이 파룬궁을 금지하는 원인 및 이것이 중국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 논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파룬궁 현상을 확대하여 보는 맥락에서 현재 직면한 중국 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신흥종교 현상으로 볼 수 있는 파룬궁이 수년 사이 놀랄만한 발전을 했다는 것은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여전히 종교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수많은 사람들(마르크스를 포함하여)이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따라, 종교의 영향 혹은 종교에 대한 인간의 필요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각종 형태의 종교가 발전하고 있음은, 바로 인간이 종교적 동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파룬궁 현상 역시 유물론자인 당 간부들조차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설명해 주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파룬따파가 발전했다는 것은, 제도 종교(5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도교, 회교, 이슬람교) 혹은 전통 민간신앙의 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는 신흥종교가 결코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될 현상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신흥종교가 장차 상당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종교 관리 체제는 5대 종교에 제한되어 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중국에는 근본적으로 신흥종교

와 민간신앙의 존재와 발전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오래 전부터 있었던 종교 관리의 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확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파룬궁 수련자들이 줄곧 전력을 다해 쟁취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파룬궁의 합법적인 지위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차례 비교적 강력한 방법으로 불만과 요구를 표시했는데, 이는 바로 중국 사회에 이성적인 토론의 장이 결핍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번에 중국 당국이 엄격히 파룬궁을 금지시켰지만, 훗날 또 이와 같이 합법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또 다른 신흥종교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중국이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보다,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국 사회 및 종교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급격히 변천하는 과정에서 있는 기독교가 자체 내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가 주시해 볼 가치가 있는 과제이다. 중국에서 기독교가 '민간신앙화' 하는 경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중국 교회의 책임은 바로 사역자 훈련을 포함한 신학교육의 완전한 건설이며, 지도력을 배양함에 있어서 극단적 실천신학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길고 긴 영적인 영역의 개혁이며, 많은 요소들을 잘 배합시켜야만 비로소 점차적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정치화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도리어 더욱 커다란 모순을 야기할 뿐이다.

“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너자”

- 중국 가정교회의 새 모델과 문제

왕쓰웨

농촌과 도시의 가정교회

공산화 이후 중국의 가정교회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였고, 교회의 모델, 신앙, 신학, 조직과 형태도 독특하게 발전하였다. 따라서 농촌의 가정교회가 공공연하게 중국 가정교회의 대표요, 주류가 되었다. 한편 공인된 삼자교회는 주로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 당국의 제재와 감시 역시 도시에 집중되어 도시의 가정교회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이며, 소그룹의 점조직 형식을 취하고 있고, 활동 또한 비교적 위축되어 있다. 또 농촌과 다른 직업구조, 생활 패턴, 주거구조 등을 갖고 있는 도시의 가정교회는 발전과정 중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가정교회는 교회 개척자와 지도자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가고 있다.

범상치 않은 쑹 자매의 가정교회

내가 쑹춘메이(宋春美) 자매의 가정교회를 알게 된 것은, 쑹 자매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개최된 지도자 훈련 때 그녀가 훈련생으로, 내가 선생으로 참가하여 만나게 됨으로 비롯되었다. 쑹 자매가 살고 있는 T시는 보수적이면서도 사회범죄율이 꽤 높아 공안

당국의 제약이 심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따라서 지도자 훈련도 시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에서 개최되었으며, 한번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문밖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나는 그 때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매일 8시간씩 5일 동안 총 40시간을 강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모두 T시의 가정교회 대표급 지도자들이었다. 쑹 자매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였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매번 강의를 마치고 기도할 때 그녀의 기도고백이 매우 간절하였다는 것이다. 항상 자신의 가식과 불찰에 대해 죄 고백을 하였으며, 교회와 목양하는 신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였다. 식사시간에도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웃음까지도 매우 절제하는 듯하였다. 강의를 지 이틀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에 대한 훈련생들의 경계심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여, 식사 때의 대화도 매우 자연스러워졌고 웃음소리도 커졌다. 그렇지만 쑹 자매는 여전히 절제하는 언행으로 일관하였다.

매번 휴식시간마다 참석자들은 로마서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고, 나는 대답하느라 꽤나 힘이 들었다. 식사시간 우리들의 대화 주제는 항상 교회의 목회문제였다. 나는 간혹 쑹 자매가 문제제기를 하면

서 던진 질문을 통해, 그녀가 답입하는 교회가 일반적인 중국의 도시 가정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회가 현지인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닌 것 같았고, 교회의 형식도 개방적이며 예배의 내용도 설교 위주가 아닌 것같이 생각되었다. 특히 여러 가지 조직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여튼 쑹 자매의 교회는 무엇인가 달랐다.

내가 쑹 자매의 가정교회가 일반적인 도시 가정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안 것은 나흘째 되는 날 점심 때, 지도자 훈련의 총책임을 맡은 루(盧) 형제와 대화를 하면서부터이다. 루 형제는 갑자기 갖게 된 저녁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쑹 자매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다고 전해줬다. 저녁식사 후 쑹 자매는 훈련에 참석하였던 리언광(李恩光)이라는 자매와 함께 내가 머무는 방으로 찾아왔다. 그 때 나는 리언광 자매와 쑹 자매가 같은 교회 소속이며, 이번 지도자 훈련 때 두 명이 그 교회의 대표로 참가한 것을 알게 되었다. 쑹 자매는 나에게 강의에 수고가 많으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녀가 갖고 있는 교회에 관한 문제들을 서서히 꺼내기 시작했다.

간호사 출신의 쑹 자매

쑹 자매는 30대 후반의 간호사 출신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고 남편은 국영기업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였다. 간호사로 병원에서는 바쁜 생활을 보냈지만, 퇴근 후 그녀는 늘 친구들과 마작과 가라오케로 소일하면서 지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예전과 달리 친구의 표정이 매우 밝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비판일변도였던 말투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쑹 자매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친구에게 물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쑹 자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였다. 그 친구는 몇 달 전에 타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전도한 사람이 그를 한 달 동안 양육하였는데, 그 사이에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안 쑹 자매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자 친구는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결국 그날 밤 쑹 자매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그 후 친구와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녀의 삶도 친구와 함께 놀랍게 변하였다. 특히 쑹 자매는 인생을 사는 의미를 발견하였으며, 삶의 큰 빛을 발견하였다고 흥분하면서 말하였다.



장승원 그림

외국인이 개척한 가정교회

쑹 자매는 그 후 친구와 함께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였다. 그 교회는 중국 도시의 일반적인 비공인 가정교회로, 신도들은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 후 짧은 교제와 대화를 나눈 후 재빨리 헤어지는 전형적인 가정교회였다. 쑹 자매는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감동을 종종 받았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젊은 층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적인 문제를 토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면서 외국인이 설립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매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예배에 한번 참석해보라고 권유했다. 마침 그 예배는 토요일에 있었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예배시간과도 겹치지 않아 쑹 자매는 호기심을 갖고 참석하였다.

1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모임이지만 우선 외국인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쑹 자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외국인 인도자는 중국어가 유창하지 못해 때로는 영어를 섞어가면서 띄엄띄엄 말을 했지만 그의 얼굴은 항상 웃고 있었고, 태도 역시 친화(親和)적이었다. 모임 때 불렀던 찬양은 그의 교회에서 부르는 단조(短調) 위주의 침울하거나 성경의 시편 내용에 중국 전통가락을 붙인 그런 곡이 아니었다. 모두 다 생소한 번역 찬양곡이었으며, 곡과 가사의 내용이 밝고 간단하여 따라 부르기도 쉬웠다. 쑹 자매는 또 사람들이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고 눈도 지긋이 감는 것에 놀랐다. 예배의 형식도 매우 자유로웠다. 인도자가 자주 앉았다 쉴 듯 하였고, 사람들이 문을 통해 들어올 때면 웃으면서 손짓을 하거나 악수를 하였다. 쑹 자매는 40분 정도의 찬양시간이 끝나자 그 다음은 설교시간일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제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과를 들고 들어와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쑹 자매에게 그 시간도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교제는 1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그 후가 설교시간이었는데 외국인 인도자가 다시 나와 인도하였다. 그는 말씀을 찾아 읽고는 본문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하고 난 후 기도로 설교시간을 끝냈다. 10분도 채 못 되었다. 쑹 자매는 당황하였다. 그 뒤 또 찬양의 시간이었고 40분 정도 경쾌한 곡조로 찬양하였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사람들은 계속 남아 대화나 찬양을 하곤 하였다.

친구 따라 참석한 이 생소한 예배에서 쑹 자매는 설교에 대한 아쉬움 말고는 모두 충격적인 인상과 신선함을 느끼고 돌아왔다. 다음 날 쑹 자매는 그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주일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분위기는 예전처럼 엄숙하고 찬양도 단조로웠으며, 설교는 여전히 길었다. 그리고 예배 후 사람들은 항상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쑹 자매는 그의 교회에 대해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외국인이 인도하는 모임에 출석하기로 마음 먹게 되었다.

쑹 자매는 외국인 모임에 쉽게 적응을 하였고, 또 적극적으로 교회의 여러 활동에 참석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 외국인이 인도하는 모임은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모임이었으며, 쑹 자매가 처음 참석했을 때도 모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막 지난 때였다. 쑹 자매는 자유로운 예배와 찬양이 좋았고, 토론시간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궁금증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어 기뻐했다. 예배 후의 친교시간도 항상 기쁨으로 가득했다. 매번 예배를 마치면 쑹 자매는 이전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던 기쁨과 만족을 얻었고, 세상 어느 곳보다 이곳 모임이 천국 같았다.

외국인 가정교회의 시작과 발전

그 모임은 지도자인 외국인에 의해 창설된 모임으로서, 그는 모임을 창설하기 앞서 T시에서 무역회사를 하나 시작하였고, 그 곳을 거점으로 삼아 모임

을 확대해 나간 것이다. 그 외국인은 먼저 무역회사의 중국인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직원들은 그와 그의 부인의 친절하고 인격에 감동을 받아 쉽게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 후 성경공부와 양육을 시작하였으며, 모임도 시작하였다. 이 모두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한 지 1년도 못 되어 이루어졌다. 외국인은 자유로운 모임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인격적으로 중국인들을 대하였고, 그의 사랑과 친절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초창기의 모임 참석자들은 대부분 회사의 직원과 직원 가족, 그리고 그 외국인의 인도로 모임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었다.

외국인에 의해 시작된 모임은 3년 만에 20개의 모임으로 증가 발전하였으며, 각 모임마다 15명에서 20명의 신도가 있어 총 350명 정도의 신도를 갖게 되었다. 외국인 모임은 T시의 가정교회 사이에서도 빠른 성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국인 모임에는 설립자 외에 그의 부인과 유럽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 한 명 더 있어 총 3명의 외국인이 있다. 이들은 여전히 그들 교회 내에서 최고 지도자이며, 중요한 인사와 정책 결정을 한다. 그 아래 중국인으로 구성된 「지도자 조(領導組)」가 있는데, 쑹 자매와 리언광 자매, 그리고 또 다른 두 자매, 총 4명이 구성원이다. 지도자 조는 20개의 모임을 실무적으로 이끄



장승원 그림

쑹 자매가 그 모임으로 옮긴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외국인 지도자로부터 혹시 전임사역자가 되길 원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마침 쑹 자매는 간호사 직업에 열정을 강하게 느끼던 시기였고, 외국인 모임과 집회활동에서 인생의 기쁨을 만끽하던 때였다. 쑹 자매는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6개월 후 병원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외국인 모임의 전임 사역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는 지도자로서, 교회 내부의 공동적인 일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연합적인 모임을 계획하며, 각 모임의 책임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한다. 쑹 자매는 전임사역자이며, 리 자매는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쑹 자매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 나머지 두 명의 자매는 각자 직업을 갖고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지도자 조 아래 「조장 조(組長組)」가 있는

데, 조장 조는 각 모임의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각 자 자신의 모임을 책임져 모임의 안배와 진행, 신도에 대한 관심과 교육까지 담당한다.

한편 그들은 그들의 모임을 교회 또는 가정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소조(小組)」라고 한다. 설립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모임은 전통적인 가정교회의 형식, 내용, 구조 및 체계가 다르며, 전통적인 가정교회에 대한 적지 않은 거부감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공인된 삼자교회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삼자교회가 너무 형식적이고 성도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인 목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 항상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정교회의 문제와 해결의 길

쑹 자매와 리 자매는 나에게 상담한다면 자신의 교회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함께 자신들의 「소조」가 이상적인 교회모델이라는 것을 여러 번 피력하였다. 그렇지만 쑹 자매는 자신의 교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먼저 신도의 대부분이 자매라는 점과 형제들이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총 350여 명의 신도 가운데 80퍼센트가 자매이다. 최고 지도자인 외국인들과 쑹 자매 등은 형제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였지만, 형제들은 항상 직장생활에 바쁘고,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별 책임감을 갖고 있지 못하며, 또 여러 훈련 과정 프로그램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지도자로 세울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였다.

또 교회는 모임과 신도 사이의 교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설교시간을 통한 말씀의 깨달음과 변화가 가장 큰 과제라고 고백하였다. 우선 외국인들은 긴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도 못 느끼고 있으며, 교회 내에는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적용점을 잘 찾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하였다. 비록 성경공부 모임은 있지만 성경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아니라, 외국에서 만들어진 교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고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은 어느 정도는 성장하지만 더 이상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쑹 자매와 리 자매는 내가 강의하는 이 지도자 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도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이해하여 신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쑹 자매는 또 창립자요, 최고지도자들인 외국인들과의 사고방식과 문화적인 차이로 빚게 된 갈등과 교회 사역의 우선 순위 문제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지가 고민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이들 외국인들은 사랑이 많고 매우 인격적이지만 때로는 너무 직설적이고 이론적이며, 참을성이 부족하고 사무적으로 일들을 처리할 경우가 있어 중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한다.

나는 쑹 자매와 리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의 자신감, 걱정 근심, 난감함, 당혹감 같은 것들이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러면서 나는 이들을 통해 중국의 교회, 특히 가정교회들도 이제 개혁 개방과 더불어 변화된 사회와 사람들 속에서 새 모델을 찾아 변신하고 싶어하는 것을 새삼 이해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가정교회 모델을 고수하는 자들과 이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는 자들간의 갈등이 가정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너자(摸着石頭過河).” 순간 나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의 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 이 말이 생각났다. 혹시 이 또한 사회주의식의 중국 가정교회의 길이 아닐지, 그럼 우리에게 「돌」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떠나라”는 부르심에 따라

장루자(張路加)



장승원 그림

모두들 새로이 맞는 92년을 즐거워하는 시간에, 독일의 베를린 공학대학의 기숙사에서 한 중국 젊은이가 침대에 앉아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2년 전, <제1차 헌신 대회>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생애를 드려 자기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헌신했다. 그때 부르심에 순종하는 표현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간 것이 결코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목사님이 다섯 차례 헌신의 결단을 촉구했을 때, 그는 스스로 “이제 더이상 성령의 촉구 하심과 감동을 무시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새해 첫날인 지금도 그 때와 같은 부르심의 감동과 촉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연구소에서의 좋은 직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유창한 독일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약간의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가 이날 밤 무릎을 꿇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 12:1)

결국 신기한 방법으로 길이 열렸고, 그는 부상당하여 기브스를 한 다리를 이끌고 독일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가 가야 할 곳에는 아는 사람도, 친척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묵어야 할 곳도 없었다. 다만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좇아, 있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 사실만을 알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신학원이었다.

첫 번째 “떠나라” : 하나님을 알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때부터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 헌신한 때까지를 되돌아 보니, 그야말로 “떠나라”로 충만한 길을 걸어온 것 같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전도자이셨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의 ‘예의’에 대해서는 익숙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은 아니었다. 열네 살이 되면서부터 반항기에 접어든 나는 스스로 부모님보다 총명하다고 여겼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신다면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저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또 왜 나까지 그 영향을 받아야 할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부모님은 문화대혁명 당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고, 나도 비판 대상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떠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혼자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동북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었다. 날씨도 추운데다 아무 의지할 곳이 없었던 나는 밤마다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리곤 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었다. 1979년 성탄절 전 날, 나는 고향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 하나님은 마가복음 10:13~16절 말씀을 통해 나의 영안(靈眼)을 열어주셨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 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의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기도를 통해 얻게 된 자유함과, 하나님이 진실로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 당시의 경험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다가 친히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 본 것이었다. 이 “떠나라”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생애 가장 큰 복이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고난과 좌절 중에서 혼자 꺾이지 않게 하였고, 죽음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였다. 그 이후 “떠나라”는 음성은 나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를 때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는 때이다.

두 번째 “떠나라” : 교회를 알다

10년이 지난 후, 나는 또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서 두 번째의 “떠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 1989년 상치입은 가슴과 깊은 절망감을 안고서 자비유학을 위해 혼자 독일로 가는 국제열차에 올랐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슬픔에 눈물이 앞을 가렸고, 멀어져가는 만리장성은 나를 더욱 더 슬프게 했다. 열차는 나를 싣고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연 3년이 지나 내가 다시금 독일을 떠나야 했을 때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깊은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1989년 성탄절, 하나님은 베를린에 유일하게 있는 중국인 성경공부반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들어가자마자 사랑의 분위기가 나를 둘러쌌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심령에 상처가 많은 나그네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인은 홀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으며, 모이기를 폐하지 말아야 하며,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며 주님을 찬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천국의 생활을 미리 맛보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기 위해 공부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위대하신 예술가에 의해 거룩하게 다듬어져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빛어지는 것이다.

3년 동안 나는 성령님과 함께 그 성경공부반에서 함께 성장하였다. 교회 안에서도 각종 사역을 훈련 받을 기회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며, 중국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였다.

세 번째 “떠나라” :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미국에 온 지 3년이 넘었다. 그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 번째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차례 한 차례의 놀라운 기쁨이 수반되었으니 돌이켜 보면 실로 고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2개월 동안 토폴(TOEFL) 성적이 크게 향상되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조롭게 신학원에 들어가게 하셨다. 나는 이 때 절실한 기도의 효과를 체험하였다. 비록 첫 수업에서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졸업할 때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미국 명인록(全美名人錄)”에 실리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셨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갖고 있었던 것은, 단지 두 개의 옷 가방뿐이었고 주머니는 텅 빈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신학원을 다 마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채워 주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였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측량 못할 사랑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나는 고속도로에서 세 번이나 차가 부서질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밀한 것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작고 무능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함도 알게 하였다.

“떠나라”는 기독교인을 향한 일생의 호소이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떠나라”는 명령은 일생동안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으로 가야 할 뿐 아니라, 광야를 떠나 허락하신 땅을 향해 떠나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본토, 친척, 아버 집(전통과의 분리, 과거의 나와와의 분리)을 떠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고 하신 것이다(창 12:1).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조카 롯과 그가 머물고 있던 평원을 떠나(죄악의 성인 소돔과의 분리)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하셨다(창 13:11-12).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심으로 가장 귀한 것에서 떠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형상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신다. 소유, 자랑할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 이기적인 생각, 계획,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찾는 마음들에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망설이지 않고 용기있게 떠날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케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여호수아 3:3)

출처: 「神州之光」

번역/박춘화 · 자원봉사자

준 만큼 받은 것도 넘친 여행

- ○○ 지역 의료선교를 다녀와서

이커민 외

중국 대륙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C시에 거주하는 우리 몇몇 동역자들은 협력하기를 즐거한다. 가까이 교제하면서 어떻게 힘을 합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전부터 사역하고 있던 동역자가 그 곳에 함께 가서 의료선교를 해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 5명의 동역자 중에는 한국에서 한의학을 마치고 이 곳 중의(中醫)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형제가 있었다. 감사하게도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가 모아지자, 현지 의료사역에 필요한 약품과 기기들도 큰 어려움 없이 조달되었다.

산 속 깊은 곳의 소수민족을 찾아

우리가 가서 섬길 사람들 생각에 가져가야 할 짐이 적지 않았다. 짐이 많다보니 행여 분실될까 염려되어, 기차에 오르자마자 짐을 선반에 올려놓고 우리 짐끼리 끈으로 묶었다. 사실 우리가 타고 가는 노선은 전국적으로 열차 도난사건이 많기로 악명이 높

은 노선이었기에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차 안에서는 갖가지 풍경들이 연출되었다. 창문 옆에 걸린 남의 옷 호주머니를 자기 호주머니 뒤통이 뒤통이 되다가 기차 안에 근무하는 공안(중국 경찰)에게 잡혀가는 사람, 동행끼리 패를 지어 카드놀이하며 떠드는 사람, 좌석이 없어 남의 자리 틈새에 끼어들어 움츠리고 새우잠 자는 사람, 안면몰수하고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 바닥에 신문지만 깔고 자는 사람, 공장 굴뚝처럼 쉬지 않고 담배만 피워대는 사람 등, 우리 눈에 낯설고 새로운 인생마당이 펼쳐졌다.

딱딱한 의자 때문에 엉덩이가 좀 아팠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7시간을 견뎠다. 목적지가 가까워 올 때쯤, 한 때의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 낯설어 보이는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한 건 해보려는 듯 수작을 걸더니 따라붙으려고 하는 눈치였다. 다행히 같은 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렸고, 또 마중 나온 사람들을 먼저 만날 수 있어서 그들과의 불편한

대면을 피하게 되었다. 비록 각오는 하고 왔지만 말로만 들던 일들을 실제로 겪을 뻔하다 보니 다소 동굴이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다시 유리창이 모두 깨져서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은 버스로 20분 정도 타고 가서 한적한 곳에 내렸다. 골목골목을 돌아 1차 목적지인 가정교회 지도자 자매 집에 도착했는데, 새벽 3시가 넘는 시간이었다. 이곳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을 때 이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이제 2차 목적지를 향해 떠나야 한다. 감사하게도 비록 덜덜거리는 했지만 한 대의 지프차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 천지가 온통 계단식 밭으로 둘러싸인 산길을 2시간 30분 정도 가자 한 부락에 이르렀다. 소수민족 지역으로 알려진 이 지역은, 현(縣)에는 대부분 한족들이 살고 있고 멀리 떨어진 깊은 산촌에만 소수민족들이 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정승원 그림

낮엔 진료, 밤엔 복음 집회

오후 1시쯤 되어 현지 가정교회 지도자 집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국의 감주같은 것을 한 그릇씩 대접받았다. 배가 고픈 김에 열른 받아 들고 마시려니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의 발

효가 되어 술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떻게든 먹어보려 애를 썼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그 곳 지도자 말이, 안 마셔도 크게 예의에 벗어나는 일은 아니라 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의 다 남겼다. 나중에 보니 먹을 것이 부족한 이 곳 사람들은 이것을 애어른 할 것 없이 항상 즐겨 마셔서 대낮에도 얼굴이 불그스름해 가지고 다니며 위장병 환자도 많았다.

2시부터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우리에게 점심식사를 줄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아까 한 대접씩 준 것이 바로 점심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점심 먹을 기대는 아예 포기하고 일을 시작해야 했다. 기초진찰, 진료, 약국, 복음사역, 간호보조 등으로 분담했는데 처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내 손발이 척척 댔었다.

이들에겐 기초적인 의학상식이나 약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염증 따위가 큰 문제로 발전된 경

우가 허다했다. 벌레 물린 곳을 더러운 손으로 긁어대니 염증

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염증이 커지면 도저

서 살이 패어나가

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간단한

소독약만 있어

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경우

인데 말이다. 우리

는 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 지도자의 집에 소독

약 한 병을 놓고 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이런 약들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매우 마르고 얼굴은 흙빛을 한 50대의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업혀왔다. 도시에 있는 병원에도 갔었는데 그냥 집에 가라고 했단다. 물 한 모금만 먹어

도 토해 버려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태였다. 의사인 형제가 하는 말이 암인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다소 당황했다. 이 부락 사람들, 아니 적어도 그 환자의 친지들은 도시 병원에서도 포기한 그녀를 우리에게 데려올 만큼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물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이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온 약과 의료기구들은 간단한 것뿐인데 그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 그렇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믿음 외에

그에게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달리 의지할 것이 없었다. 믿음으로 의사 형제는 침을 놔주고 뜸도 떼주고, 환으로 미리 지어간 한약들을 수시로 물에 풀어 먹이도록 남편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이 아주머니를 위해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저녁 집회에 나오라고 권하고 보냈다.

여섯 살 정도의 한 아이가 왔는데 얼굴이 많이 붓고 입이 돌아갔다. 귀에서는 고름이 줄줄 흘렀다. 중이염에 걸린 모양인데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아서 결국 얼굴까지 빼뚫어져 버린 것이다. 고름을 찼후 환부마다 마이신 가루를 뿌려주고 소독약과 마이신을 아이의 아빠에게 주면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소독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간 사람이 모두 합하면 족히 250명 정도 되었다.

누군가 간단한 의학상식이라도 가진 사람이 이들 가운데 있어야겠다. 가능한 대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할 때, 이런 간단한 보건위생과 의료지식을 함께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육체의 질



장승원 그림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로 자신들이 속한 부락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부락을 복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료를 마치고 저녁식사 시간이 되어 한 집으로 초대되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빨리 가자고 한다. 점심도 못 먹은 터라 부지런히 가보았더니, 우리가 도착하자 그제야 새끼돼지의 목을 찌르는 것이 아닌가! 이 마을에서는 손님이 보는 데서 돼지를 잡는 것이 예의라고 한다. 한참을 기다려서 밥 한 술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끼돼지 한 마리가 상 위에 올랐다. 이 돼지 요리는 아무 양념도 하지 않고 그냥 삶아온 것이었다. 산골에 사는 가난한 이들로서는 소금이나 양념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맛이야 어쨌든 배가 고프기도 했고, 저들에게는 큰 재산인 돼지를 잡아 대접하는 것이 고맙기도 해서 열심히 먹었다. 우리가 먹고 일어서자 그 집 식구들이 비로소 식탁으로 모여들어 우리가 남긴 것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먹

을 수 있는 이상의 밥을 자꾸 퍼주었는데, 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밥을 남기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남긴 밥을 그들이 이어서 먹으로써 친분과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들에게는 누군가 남긴 밥을 먹지 않는 것은 경계와 적대감의 표시라고 한다.

저녁에 집회를 열었다. 진료를 했던 가정교회 지도자 집에서 진행했는데 그 조그마한 공간에 100여명은 모인 것 같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꽉 차서 한번 들어가면 뽀짝달짝 할 수도 없었다. 작은 전구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며 희미한 빛을 내준 덕분에 겨우 앞뒤를 분간할 수 있었다. 그래도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열기는 대단했다. 찬양은 악보가 필요 없었다. 인도자가 처음 부분만 먼저 불러주면 모두가 따라 부른다. 이미 숙달되어 그야말로 한 소절만 부르면 착착 이어졌다. 가사는 모두 성경구절이었다.

우리가 중국어로 말씀을 전하면 현지 지도자가 현지어로 통역했다. 너무 어두워서 원고를 보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다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3시간 가량 집회가 계속되었는데도, 그 좁은 공간에서 눈동자 하나 움직이는 사람 없이 모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 도리어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

낮에 진료를 받으러 왔던 암 환자 아주머니가 정말 집회에 왔다. 아주머니는 우리가 준 약을 토하지도 않고 잘 먹었다고 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간절 한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위해 안수하며 기도했다.

하루 진료를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인지 이튿날 낮에는 온통 아이들 뿐이었다. 아이들에게 사탕도 나누어 주고 한 쪽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주는 것이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 되었다.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폐교된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 들으니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학교 문을 닫았다고 했다. 이 소수민족 아이들에겐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보통어(표준 중국어)를 배워보았자 아무 희망이 없고 쓸모도 없으니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

이었다. 당연히 어린이들은 방치되고, 좀 자라면 부모를 도와 밭일을 한다. 이들에게 교육은 귀찮은 것이기도 하고 사치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현실은 너무도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서부터 교육열이 번져야겠다. 세계 부흥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흥의 불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교육열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저녁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가정교회 지도자가 중풍환자가 있으니 다소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했다.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여, 의사 형제가 그를 따라 왕진을 갔는데 아주 어두워져서야 돌아왔다. 계곡에 물이 불어 징검다리엔 물에 잠기고, 그래서 가슴까지 차는 시냇물을 옷을 훌쩍 벗고 건너서 다녀왔다고 했다. 게다가 그 길은 계곡 물이 불지 않았더라도 도저히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행여 멀다고 하면 안 간다고 할까 봐 가깝다고 말했을까? 아니 그만큼 그 중풍환자에게는 먼길을 단숨에 달려와 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 산촌은 상상할 수 없을만큼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간단한 보건위생과 의료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지만, 또 그만큼 사랑과 희생의 손길이 필요한 곳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마침 우리에게 이 같은 고생을 기쁘게 감당해 주는 의사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식사를 하고 질퍽거리는 길을 나섰다. 처음보다 짐이 많이 줄어서 참 다행이었다. 길을 안내하는 형제에게 몇 시간 가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2시간이면 된다고 했다. '두 시간 정도야'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 시간 걷고 10분씩 쉬었다. 그러다가 조그만 동네를 지나 가게 되었는데, 안내하는 형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 물을 얻어 마실 수 있었다. 그 때 낮선 우리를 보고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뉘주었다. 그러자 멀리서 이 광경을 본 아이들도 어른들 손을 붙잡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찬송을 부르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뜻밖에도 계획되지 않은 전도집회를 하게 된 것이다. 비록 여정이 바빠 간단하게 하고 끝낼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를 성령님께 맡겼다.

그 마을을 지나고도 두 시간을 넘게 걸었는데 또 다시 두 시간을 더 가자고 한다. 그렇게 두 시간을 걷고 또 두 시간을 더 걸어야 했으니 아마 합쳐서 여섯 시간은 걸어야 목적지에 이를 것 같았다. 어느 동역자의 발에는 물집이 잡히기도 했다. 강을 건너자 산비탈로 철길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이 철길을 따라 가면 되었다. 철길과 가까운 동네 사람들은 대다수 열차를 도둑질하여 먹고 산다고 한다. 화물열차가 지나면 한 때는 기차 위로 뛰어 올라서 물건을 아래로 집어던지고, 또 다른 한 때는 밑에서 그 물건을 넘겨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도둑질한 물건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갖는다. 정부에서 무장 경찰을 보내기도 하지만 소용이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이 방법 외에 다른 생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기차역을 지나다가 매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지... 오랜만에 컵라면과 과자를 싹둑 먹었다. 기운을 차리고 남은 힘을 내어 30분 정도 등산을 하니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그 동안 우리를 줄곧 안내해 준 자매의 집이었다. 일행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착하자마자 그 집 마당에서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기대했던 이 자매의 여동생은 마침 산 넘어 깊은 산골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자매가 가리키는 곳은 아득히 멀리 보이는 산이었다. 우리는 겨우 여섯 시간 걸여와서는 이렇게 업살을 떨고 있는데, 이 자매의 여동생은 더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이다. 참 부끄러웠다. 날이 저물 때 그 자매가 돌아와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제 갓 스무 살을 넘긴 앳된 자매였다. 그 어린 자매가 그렇게 먼 길을 마

다하지 않고 오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아득한 산길에는 컵라면을 파는 매점도 없을 텐데...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

이 곳은 먼저 갔던 지역보다 도시에 다소 근접해서 위생상태가 훨씬 나은 편에 속했다. 그리고 젊은 이들이 많아서 낮에 진료하는 동안 한쪽에선 한 사역자가 10여 명의 청년에게 90분씩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진료도 이미 숙달된지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 동네도 변압기 고장으로 저녁집회는 촛불만 몇 개 켜놓고 진행해야 했다. 지난번 지역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젊은 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다. 마지막 집회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안수기도를 했는데, 뜨겁게 사모하는 저들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로 마음을 모았다.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제5일 아침, 전에 컵라면을 사먹었던 역으로 비탈길을 내려가서 기차를 탔다. 이런 기차도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낙후되고 지저분했다. 표 파는 승무원이 우리들의 부드러운 태도를 보고 어리둥절해 하는 것을 보면 이 기차 안의 분위기가 대충 짐작이 간다. 그렇게 얼마를 가서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처음 1차로 갔던 가정교회 지도자 집으로 돌아왔다. 첫날에는 캄캄해서 잘 몰랐는데, 이곳은 현이라고는 해도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산촌이었다. 다소 여유를 갖게 되어서인지 주변의 경관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원래 이 곳에서는, 이 지역 한쪽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모아 지도자 훈련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현지 사정상 지도자들이 모이질 못했다. 오히려 가까운 산촌에서 같은 소수민족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이 진료를 받겠다고 내려와서, 한쪽에서는 진료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을 위해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이들은 멀리서 오느라 아침부터 걸어

와야 했고 진료받고 말씀 듣느라 점심도 못 먹었는데, 다 늦은 저녁때가 되어서 다시 산촌으로 출발해야 했다. 그들이 언제쯤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이들의 고된 삶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이상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장승원 그림

잠깐이나마 우리가 모든 것이 편리한 도시를 떠나 이 곳에서 이들과 귀한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뜻깊다.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아무 문제없이 마칠 수 있었다. 처음이라 부족한 점,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또 앞으로로도 계속 이러한 일, 아니 더 보완해서 이 이상의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작은 정성이 하나님께 사용되어 산촌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가 그 동안 고생했다고 하지만 고생이라고 하기에는 그들에게 너무나 사치스럽고 미안한 생각마저 든다. 그리고 보면 이 의료선교 여행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더 중요한 공부를 한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오는 길까지도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연단받는 경험을 했다.

힘든 여행, 받은 은혜 세어 보니

밤 12시 30분 차를 타려고 기차역으로 왔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역 대합실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를 안내하던 자매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대합실 안에는 남의 물건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윽고 기차가 와서 그 동안

우리를 안내했던 형제, 자매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기차에 올랐다. 올 때는 딱딱한 의자였지만 그래도 앉아서 올 수 있었는데, 되돌아 갈 때는 그런 좌석마저 구할 수가 없었다. 큰 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역에 좌석표 매대 배당이 주어지지 않게 마련이다. 빈자리가 없어서 꼬박 7시간을 서서 가야 할 상황이었다. 빈자리를 찾아 이곳 저곳 헤매기도 하고 남의 자리 틈새를 비집고 다니기도 하면서 다소 비참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지역을 방문하지 않을 때는, 이 곳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와서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번 여행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고생스러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반쯤 왔을까? 그러저럭 우리 팀 중 반 정도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일 수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가득했고, 기차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철쭉 같은 밤을 아주 힘차게 달렸다. 비몽사몽간에 이 기차가 은하철도를 타고 이대로 하늘나라까지 직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빠졌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중국 선교사 행전 (14)

한밤중의 기적

-애니 스코 번스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행하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여자가 중국 북서부 산맥의 좁은 길을 따라 한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앞선 키 큰 여자는 금발의 곱슬머리를 한 서양 여자였고, 뒤따라오고 있는 키 작은 여자는 검은머리를 한 중국 여자였다. 둘 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챙이 넓은 밀짚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두 여자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악자지껄한 사람들의 긴 행렬이 있었다. 그들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지고 가는 중이었는데 북소리가 골짜기를 따라 쿵쿵 울리고 있었다.

이 마을은 몇 달 간의 가뭄으로 인해 모든 산촌이 고갈되어 있었다. 수일 내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일 년 농사를 망치게 될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해결되기를 위해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그 신을 위로하기로 했고, 마침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마을로 들여오고 있었던 것이다.

우상을 지고 가던 사람들은 그 두 여자를 보자 갑자기 행렬을 멈추었고 북소리도 그쳤다. 그리고는 흥분하여 얼굴이 상기된 두 명의 남자가 그들에게 뛰어왔다. 그들은 팔을 흔들며, “모자 벗어!”라고 외쳤다. 금발 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키 큰 여자는 그 남자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빨리 모자를 벗어!”

“어른신들, 왜 그래야 하죠?” 키 작은 중국 여자가 물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신들은 마을에 가뭄이 있을 때 누구든지 머리 위에 마른 짚을 쓴 것을 참지 못한다. 신들이 분노하여 메마른 땅에 더 혹독한 가뭄을 내릴 것이다. 즉시 모자를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찢어 태워 버릴 것이다!”

그러나 키 큰 여자는 모자를 벗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것 보시오. 우상숭배자들이여, 저는 우상에게 인사하기 위해 모자를 벗을 수 없어요.”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들 중 가장 나이 든 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했다. “그렇다면 저 여자를 죽여라!” 십여 명의 남자들이 무거운 몽둥이를 손에 들고 여자들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달려왔다.

“기다려요!” 키 큰 여자가 말했다. “나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비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네 우상은 할 수 없어요!” 그녀는 그 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의 하나님?” 그 노인은 비웃었다. “우리는 우리 신 외에 다른 신은 알지도 못한다!”

“그럼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키 큰 여자가 대답했다. 노인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두 명의 외부인을 둘러싸게 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더 위협적으로 막대기를 들었다.

“자정 전에 비가 올 것을 약속합니다.” 키 큰 여자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다. 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저 큰 여자가 비를 약속하는 걸 들었지? 저 서양 여자의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신보다 더 나은 신이 있는지 보도록 하자. 자정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저 여자들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여자가 계속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한밤 중의 기적

두 여자 중 키 큰 여자는 노르웨이 출신의 중국 간호선교사인 애니 스코 번스턴이었다. 그녀는 중국인 여성 사역자인 유친과 함께 외부에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이인 선교회에 도착하자 선교회의 여러 동역자들에게 오면서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 동역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그런 약속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동역자도 있었다. 또한 “자정까지 마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마을의 신들을 모욕한 것이 됩니다. 그 신들을 모욕한 사람은 오늘 밤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걱정하는 동역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애니 선교사는 “저는 제가 살아서 이 나라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산촌에도 누가 유일한 신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라고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오래 된 선교회 건물의 작은 방에서 키 큰 여자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녀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그녀는 죽음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알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중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의 동행자 유친도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날 저녁, 몇 시간이 무겁게 흘러갔다. 그런데 자정이 되기 30분 전에 한 사역자가 애니 선교사가 기도하고 있는 방문을 급하게 열면서 뛰어 들어왔다. 그는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단 말ियो!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라고 소리쳤다. 30세의 노르웨이 간호사 애니 스코 번스틴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했다.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기뻐했다.

“내일부터 당신들은 계속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소. 물이 없는 자들에게 비를 주시고 홍수로 피해 입은 자들에게 태양을 주시는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도 좋소.”라고 마을의 촌장은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하여 그동안 제재를 당하던 복음 전파는 빗물과 같이 그 마을 전체를 적셨고, 그 복음의 물줄기는 홀

려 흘러 옆 동네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1941년 6월 중국 북서 지방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애니 선교사는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였고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그녀의 믿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르크스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애니 스코 번스틴은 1911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호르텐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애니가 일곱살 때, 애니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때 애니는 할머니가 애니와 애니의 부모님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전까지 애니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을 뿐더러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애니는 자기 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애니에게 애니와 애니의 부모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하였고 애니도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 어린 애니는 기도하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내적인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기도가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애니, 믿음의 씨앗이 네 마음 속에 심겨졌다. 언젠가는 그 씨가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필 것이다.”라고 할머니는 애니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학교에 진학하고 여러 가지 사상을 알아가게 됨에 따라 애니는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게 되었다. 호르텐에서 ‘칼 마르크스 클럽’의 리더가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녀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사 학교에 다니면서 다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중국 선교사로까지 헌신하게 되었다. 실로

할머니를 통해 어렸을 적 심어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애니 안에서 죽지 않고 싹이 나고 꽃이 핀 것이다.

임사귀와 꽃

애니 스코 번스틴은 1937년과 1938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1938년에 중국으로 파송되었다. 그녀는 산시(陝西) 지방에 있는 상셴과 룡추차이 선교국에서 1951년까지 13년 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애니는 영국인 여자선교사 글래디스 아일 워드와 함께 동역하기도 했다. 글래디스 아일 워드는 중국의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으며, 애니가 글래디스를 만난 것도 글래디스가 중일전쟁으로 인해 일본인들을 피해 쫓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였다. 애니는 글래디스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녀가 아무리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친절, 그리고 위엄과 믿음을 잃지 않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고, 많은 믿음의 도전들을 받았다.

홍콩에서의 사역

그러나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하면서 기독교를 중국에서 몰아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이상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1951년에 중국 대륙을 떠나 홍콩으로 나와야 했다. 홍콩에 온 후 애니는 1953년에서 1955년까지 기독교어린이재단에서 원조 프로그램으로 설립한 홍콩의 '레니스 밀 피난민 수용소'에서 일했다. 나중에 스코틀랜드 간호사이자 선교사인 헬렌 윌슨과 노르웨이 출신 해니 그란러드가 함께 진료에 합류하였다.

1955년 애니는 '천국 소망 병원'을 설립했는데, 여기에서 수천 명의 중국 본토 피난민들이 건강 회복을 위해 진료를 받았다. 오늘날도 이 병원은 홍콩의 주요 건강 회복 기관

들 중의 하나이다.

“자랑스러운 영국인 상” 수상

애니 선교사는 그 희생적 사역으로 인하여 노르웨이 왕이 수여하는 성 올라프스 오덴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메달을 받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또한 1979년에 그녀는 홍콩에서의 지칠 줄 모르는 봉사로 인하여 “대영제국의 국민”으로 불리게 되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애니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부여한 사역 기회를 통해 자신이 행한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것은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전력하도록 허락받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행하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사역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역거리가 항상 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일하러 온 우리는 설교하려고 파송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덕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애니 스코 번스틴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1992년 노르웨이 호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떠났다.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주님 성전에서 주님을 밤낮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 이 글은 도서출판 햇살의 허가를 받아
「그리스도의 대서들」에서 발췌했습니다.
정리/곽숙·본지 편집기자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 (1552~1610)



이삼열

산둥(山東)성에서 공자의 무덤을 방문한 후, 유교의 영향권이 가장 강력하였던 명왕조 13능을 답사하고, 베이징(北京)시 서북쪽에 위치한 서대왕능원(옛날 선교사 묘지)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16세기 중엽 중국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유교의 영향권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의 혼란한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공자는 후대에 학술, 정치, 예술 등 사회 곳곳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5경(서경, 시경, 역경, 예기, 춘추)을 편집하였다. 이 5경은 한(漢)대에 이르러 한무제의 유교장려 정책으로 인해 더욱 발전되었다. 당(唐)나라도 5경을 기초한 유학(儒學)을

토대로 당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렸다. 송(宋)은 5경에 4서(대학, 논어, 맹자, 중용)를 첨가하여 주자학을 만들었으며, 유교 문예부흥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민족이 지배하던 원을 추방한 명(明) 왕조는 5경대전을 편찬하고 송나라의 주자학을 통치의 원리로 삼았다. '우주의 중앙'이라는 의미로 '중국'이라 호칭하고, 명 황제에게 천자(天子)라는 최고의 명칭을 부여했다. 타민족을 오랑캐라 멸시하며 쇄국정책을 시행하여 외국인 출입을 금지하고 강력한 유교문화를 형성하였다.

마테오 리치의 선교준비

중국이 고립을 고집하고 있는 동안 세계는 격동기였다. 암흑시대를 지나 문예부흥을 거쳐서 과학, 예술, 문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였다. 곧이어 신행로가 발견되었고 영국의 산업혁명은 유럽 지역에 경제의 변화와 이념의 큰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신민지 정책을 펴면서 세계의 열강들은 앞을 다투어 동진(東進)하였다.

문예부흥의 뒤를 이어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천주교 자체 내에 혁신운동이 일어나 경

건과 예수회가 탄생되었다. 예수회는 새롭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계로 떠났다.

예수회 사제였던 프란체스코 사비에르(Francesco xavier) 신부는 일본을 거쳐, 1552년 8월 광둥성 광저우(廣州) 앞바다 상완다오(上川島)에 도착하여 중국 상륙을 시도했다. 그러나 복음전파의 열정을 미처 발산하지도 못한 채, 그는 1552년 12월 42세라는 젊은 나이로 외로운 섬에서 중국선교를 위해 기도하다가 순교하였다. 그 후에도 멜치오 바레토(Melchior barreto)와 진 리베이라(Jean ribeyra), 피터 리베이라(Peter ribeyra) 등 여러 선교사가 중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그러다가 1580년 예수회 선교회에서는 이태리 출신의 젊은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를 파송하였다. 그는 마카오에 도착하여 철저하게 중국선교를 준비하였다. 중국어를 중국인과 같이 구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습득하였으며, 중국의 고전과 경서를 연구하였다. 중국의 전통과 풍습을 잘 익혔으며 중국 옷을 입는 법도 자연스럽게 되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 선교사로서의 모든 준비를 갖추고, 광저우(廣州) 공리역관에 임시역관으로 잠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옷을 입고 중국어도 유창하게 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대부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중국식으로 자고 먹으며 중국어를 사용하며, 중국인처럼 중국인들과 어울려 생활하였다.

선교활동 시작

당시 중국은 쇄국정책에 의해 외국인 체류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대부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마테오 리치는 20년 간 광둥(廣東)에 체류하면서 유학을 연구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에 서양문물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서양의 천문학, 지리학, 기하학, 역산학을 중

국어로 번역하여 중국인에게 가르쳐 많은 제자들을 두게 되었는데, 그 중의 구테소, 장양숙, 이신제 등 3명은 이후 마테오 리치의 선교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는 광둥 선교사역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좀더 적극적인 선교를 위하여 난징(南京), 난창(南昌) 등지를 순회하면서 1601년 1월 24일 베이징에 잠입하였다.

복음의 부리가 내리다

당시 명나라는 일본이 조선을 정벌한 임진왜란에 7년이란 오랜 기간 막대한 지원군을 파병하는 군비조달로 인하여 조정이 피폐해지고 여론이 분분하였다. 또한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컸던 터라, 갑자기 나타난 서양인 마테오 리치는 그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였다. 게다가 그는 중국어도 유창하게 할 뿐 아니라, 중국의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이었으므로 중국인들이 접근하기 쉬웠을 것이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사대부들에게 그들이 궁금해 하는 서양 세



서광계는 이지조와 함께 서양서적을 중국에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다 (서광계의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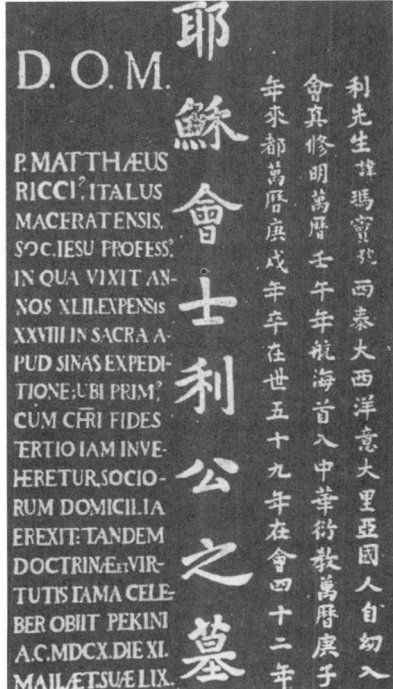
계를 조금씩 소개해주었을 뿐 아니라, 당시 중국에는 거의 전무했던 천문학, 역산학, 기하학, 지리학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제자로는 서광계, 이지조, 양정균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이후 중국 천주교의 주춧돌이 되었다. 이들에 의하여 1605년 베이징 시내에만 기독교인이 200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마테오 리치는 제자인 학자들을 통하여 명 14대 황제인 신종(神宗)을 배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는 신종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신종황제는 예물을 받고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내렸다.

“대서양 넘어서 먼 나라에서 온 마테오 리치는 짐에게 예물을 주었다. 그의 고국은 멀고 문물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 그러나 그는 명제국의 문물 교화를 듣고 찾아 온 것이다. 그는 본국을 떠나 먼 거리를 항해하여 3년의 세월을 거쳐 9만 리 중국에 도착하였다. 처음에는 언어가 불통하여 광둥에서 15년 간 머물면서 화문(華文)을 습득하고, 중국 성현들의 학설을 배웠다. 그는 장시(江西)와 난징에서 5년 간 중국의 풍습을 배운 후, 천조(天朝)에 들어와서 다음과 같은 예물을 짐에게 주었다. 천주상 1개, 벽시계 1개, 피아노 1대, 진주 십자가 1개. 이상의 예물들은 극서(極西)의 먼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이 예물들은 예부(禮部)에서 받아 보관하고 황제의 은덕을 널리 전하라. - 이하생략 -”

신종의 친서를 받은 마테오 리치는 드디어 선교의 자유를 얻어 본격적인 선교사역을 하게 되었다. 명제국에서 처음으로 얻은 선교의 자유였다. 그는 저술에도 힘을 다하여 약 20권의 서적을 저술하였다. 그 중 「천주실의(天主實義)」와 「천주교중국진입사(天主教中國進入史)」는 가장 유명한 저술로서, 후에 원문 이태리어를 라틴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베이징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지 10년 후



마테오 리치 신부 묘비문

인 1610년 5월 11일, 마테오 리치는 58세를 일기로 베이징 객리에서 서거하였다. 명의 신종은 그의 선교사업을 치하하는 유서를 내리고 장지를 하사 하였으며 장례식에 황제의 신하들을 참석하게 하였다. 베이징을 비롯하여 광둥, 난징, 난창, 상하이, 쑤저우 등지에서 많은 교인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프란체스코 사비에르는 1552년 중국선교를 계획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환다오에서 42세 젊은 나이로 순교하였다. 그러나 프란체스코 사비에르가 순교한 해에 태어난 마테오 리치는 58년 만에 그 뜻을 성취시켜 처음으로 중국 땅에 복음을 알리는 일을 하였다. 그 후 기독교는 중국에서 명제국과 청왕조에 이르기까지 뿌리를 내려 120년 간 부흥 발전하였다.

1999년 8월 15일,

베이징 마테오 리치 묘 앞에서 이삼열

* <이삼열의 중국 이야기>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이삼열/중국 선교사

허난성 탕허 가정교회 신도들의 고난

사랑하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허난(河南)성 탕허(唐河)에서 일어난 일을 전합니다.

지난 8월 23일 오후, 허난성 탕허현 서쪽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31명의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타이완에서 온 쉬야보(徐亞伯) 목사님과 한 명의 형제가 인도하는 지도자훈련과 기도 모임으로 이틀 째의 수련회를 갖던 중이었습니다.

그 중 두 명의 운전기사는 심문을 받은 후 석방되긴 했으나 각각 인민폐 4천 위안(元)을 벌금으로 물었습니다. 난양(南陽) 공안국에 끌려간 29명은, 8월 25일에 허난성과 난양현 공안의 연합 심문을 받았고 각각 핸드폰을 압수당했습니다. 광청(方城)에서 온 2명의 형제 자매는 석방되긴 했으나 공안에 의해 가택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이닥친 공안원들은 부모님과 어른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키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마음대로 방을 뒤지고 수색하여 모든 돈과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가져 버렸습니다.

등록을 원치 않는 가정교회의 집회활동은 당국에 의해 불법 종교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안의 수사를 받게 되면 벌금 이외에 최소 구류 2개월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지도층의 경우는 그 영향력의 대소에 따라 최소 2년에서 10여 년의 구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의 교회와 가족들은 해외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줄 것과, 다음과 같이 이번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의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전세계와 중국 당국이 그들의 호소를 듣게 되고, 갇힌 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 허난 광청(方城): 장룽량, 양옌쯔, 정슈리엔, 구이진, 강진량, 양위환, 룡위언, 장슈홍, 왕추안린, 미지평, 장화, 우리, 가오귀푸, 덩슈잉
- ◇ 중화복음회(中華福音團契): 펑지엔귀, 리위, 셴이핑, 장귀위, 티엔이페이, 왕자성, 리우샤오핑, 리우샤오용, 리우란팡, 니우지엔화, 징용치, 리우위, 리우화, 왕구이진, 리우밍원, 덩리, 지취엔
- ◇ 안후이(安徽) 리신(利辛): 장원상, 순쯔귀, 리우완민, 위에충쑤
- ◇ 안후이 잉상(穎上): 천쟡샤, 천샤오푸, 쉬지아화
- ◇ 허난 루산(魯山): 장시엔, 왕신차이 부부 (왕신차이 형제는 1997년 3월에 체포되어 2년 6개월 동안 노동개조를 하고 풀려난 지 4일만에 다시 체포되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석방 후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새롭게 교제하기 위하여 이 모임에 참석하였었다.)

중국 가정교회 형제 자매 올림

※ 탕허 사건 발생 후, 공안국은 체포되었던 지도자들 중 24명을 석방하였다. 그러나 아직 7명이 석방되지 않고 있다. (편집자 주)

신공항, 새호텔, 나날이 변모하는 상하이

장자웨이(張家偉)



세계의 대가들, 상하이에 운집하다

세계 5백 여 다국적기업 수뇌들과 정계 지도자들이 금년 9월 26일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지구를 방문하여 미국 「포춘(Fortune)」지가 주관하는 〈Fortune 500 국제 심포지움〉에 참석하였다. 그 중 과거 상하이를 방문한 적이 있는 일부 인사들에게도 이번 일정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건설된 푸둥·신국제공항의 첫 번째 손님으로 상하이에 발을 디딘 이들은, 프랑스의 명 설계사가 설계한 커윈(客運) 빌딩으로 들어가, 푸둥 동남단에 위치한 신국제공항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4백여 명의 각국 기업 지도자들은 '세계 최고급 호텔'인 푸둥 진마오하얏트호텔(金茂凱悅大酒店)에 투숙할 예정이다. 이 호텔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진마오 빌딩(金茂大廈) 꼭대기에 위치한 오성(五星)급 호텔로써, 8월 28일 성대한 개업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상하이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리게 되는데, 주요 회의는 4천 명 수용 가능한 다기능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 국제회의센터 역시 상하이 텔레비전 방송국 탑과 인접하고, 와이탄(外灘)과 황푸(黃浦)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최신식 건축물이다.

만약 이 세계적인 재계 거물들이 바쁜 회의 기간 중 틈을 내어 남서구 옛성 황묘(隍廟) 부근을 돌아다녀 본다면, 옛 상하이의 정취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관광객 전용 구역인 이곳에는 1개월 전부터 영업을 시작한 백여 개의 점포들이 들어서 있는데, 서화, 고서, 에나멜 인형, 다기 등을 판매한다.



금년 8월 초 「포춘」지는 98년도 세계 5백대 기업을 발표하였는데, 1위는 미국의 제너럴모터스사가 차지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6개 중국(대륙) 기업이 포함되었는데, 중국 기업 중 가장 우수한 기업은 73위를 차지한 중국 석유화공그룹이다. 97년도에는 4개의 중국 기업이 뽑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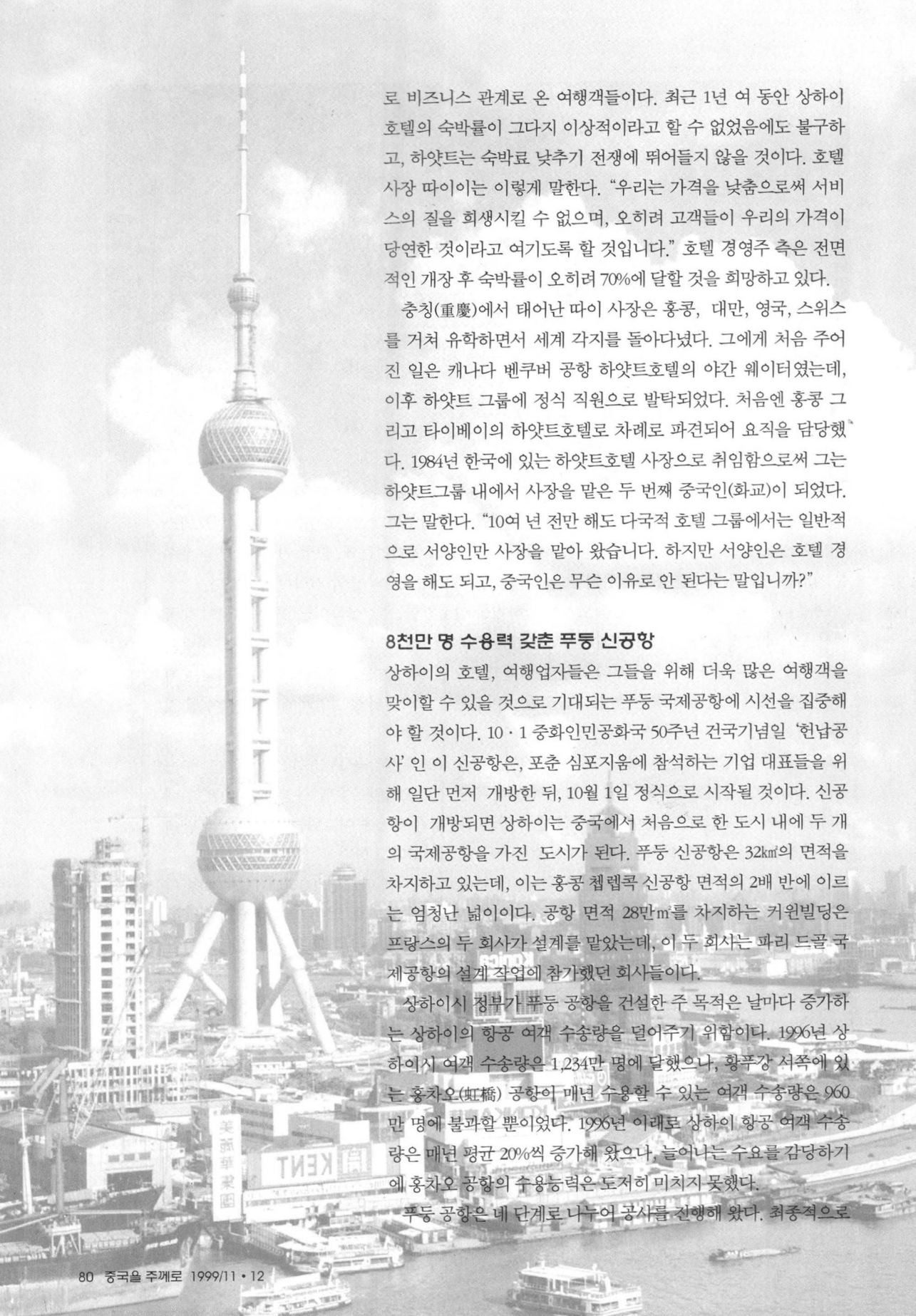
「포춘」지가 올해의 연례회의 주최도시로 상하이를 선정하였는데, 상하이는 「포춘논단」이 중국에서 주최하는 첫 번째 도시이다. 과거 4차례 열렸던 회의는 싱가포르, 바르셀로나, 방콕,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었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근래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행사 가운데 보기 드물게 성대한 행사로써, 그동안 미진했던 상하이의 호텔업계에 큰 자극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최근 몇 년 간 상하이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년 평균 10%의 성장을 보였으나, 호텔 객실 수는 무려 30% 이상 증가하여 공급과잉을 발생하였다. 푸둥 진마오하얏트호텔 사장 다이이(戴毅)에 의하면, 과거 몇 년 동안 상하이 오성급 호텔의 평균 입주율은 80%에 이르렀는데, 올 8월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루 객실료를 100달러 이상 받는 곳은 없어졌다고 한다.

상하이 중국국제여행사그룹 비서실장 주어옌(朱鄂言)의 지적에 따르면, 80년대에는 상하이의 호텔 객실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어서, 현지 여행업자들이 하는 수 없이 일부 여행객들을 항저우(杭州) 등 가까운 도시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몇 년 사이 파다한 투자로 호텔의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져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다는 것이다.

상하이의 한 호텔업자는 포춘의 연례회의로 말미암아 대다수 오성급 호텔의 객실예약이 이미 끝났다고 전해주었다.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재계의 대가들이 상하이에 운집하자, 현지 호텔의 VIP급 객실은 그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파다하다. 총 555개의 객실을 갖춘 진마오하얏트호텔의 경우 이미 400여 객실이 회의에 참석하는 기업가들에게 예약되었고, 나머지는 각국에서 취재 차 오는 사람들에 의해 모두 예약이 끝났다. 진마오하얏트는 푸둥 루자꾸이(陸家嘴) 상업금융구에 위치한 초호화 대형호텔로써 금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호텔이 위치한 88층짜리 진마오 빌딩은 높이 420미터에 달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마천루이다. 이 호텔의 숙박료는 평균 US\$150~160로 상하이 호텔 중 으뜸이라 할 수 있고, 고객은 주



로 비즈니스 관계로 온 여행객들이다. 최근 1년 여 동안 상하이 호텔의 숙박률이 그다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얏트는 숙박료 낮추기 전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호텔 사장 타이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희생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고객들이 우리의 가격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도록 할 것입니다.” 호텔 경영주 측은 전면적인 개장 후 숙박률이 오히려 70%에 달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충칭(重慶)에서 태어난 타이 사장은 홍콩, 대만, 영국, 스위스를 거쳐 유학하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다. 그에게 처음 주어진 일은 캐나다 벤쿠버 공항 하얏트호텔의 야간 웨이터였는데, 이후 하얏트 그룹에 정식 직원으로 발탁되었다. 처음엔 홍콩 그리고 타이베이 하얏트호텔로 차례로 파견되어 요직을 담당했다. 1984년 한국에 있는 하얏트호텔 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그는 하얏트그룹 내에서 사장을 맡은 두 번째 중국인(화교)이 되었다. 그는 말한다. “10여 년 전만 해도 다국적 호텔 그룹에서는 일반적으로 서양인만 사장을 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서양인은 호텔 경영을 해도 되고, 중국인은 무슨 이유로 안 된다는 말입니까?”

8천만 명 수용력 갖춘 푸둥 신공항

상하이의 호텔, 여행업자들은 그들을 위해 더욱 많은 여행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푸둥 국제공항에 시선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10·1 중화인민공화국 50주년 건국기념일 ‘헌납공사’인 이 신공항은, 포춘 심포지움에 참석하는 기업 대표들을 위해 일단 먼저 개방한 뒤, 10월 1일 정식으로 시작될 것이다. 신공항이 개방되면 상하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 도시 내에 두 개의 국제공항을 가진 도시가 된다. 푸둥 신공항은 32k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 첵랍콕 신공항 면적의 2배 반에 이르는 엄청난 넓이이다. 공항 면적 28만m²를 차지하는 커윈빌딩은 프랑스의 두 회사가 설계를 맡았는데, 이 두 회사는 파리 드골 국제공항의 설계 작업에 참가했던 회사들이다.

상하이시 정부가 푸둥 공항을 건설한 주 목적은 날마다 증가하는 상하이의 항공 여객 수송량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1996년 상하이시 여객 수송량은 1,234만 명에 달했으나, 황푸강 서쪽에 있는 홍차오(虹橋) 공항이 매년 수용할 수 있는 여객 수송량은 960만 명에 불과할 뿐이었다. 1996년 이래로 상하이 항공 여객 수송량은 매년 평균 20%씩 증가해 왔으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홍차오 공항의 수용능력은 도저히 미치지 못했다.

푸둥 공항은 네 단계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해 왔다. 최종적으로

이제 곧 네 개의 활주로를 포함하여 8천만 명의 여객 수송량을 처리할 수 있는 국제급 공항이 완공될 것이다. 올해 10월 사용 개방되는 첫 단계 공정으로 매년 2천만 명의 여객 수송량 처리가 가능해진다. 첫 단계 공사에 든 투자 총액은 120억 위안(약 US\$14억4천만)이었다. 한 가지 옥의 티가 있다면, 푸둥 공항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이 2005년에



야 개통되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공항 셔틀버스를 타고 상하이 도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이나 소요해야 한다는 점이다.

푸둥 신국제공항이 개방되면 상하이와 외국 항공 간의 연계를 확장시키는 데 더욱 광활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상하이 간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 강룽(港龍) 항공회사의 상하이 주재 수석대표인 귀홍닝(郭鴻寧)은, 홍콩-상하이 간 노선의 승객 수가 최근 몇 년 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강룽의 중국대륙 노선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노선이라고 말했다.

점차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상하이

과거 상하이는 사람들에게 ‘공업도시’라는 인상을 주어, 여행업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 상하이로 오는 여행객들은 주로 업무차 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관광객들은 상하이를 화동지방의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중간 지점 정도로만 생각했다. 상하이 중국국제여행사그룹 비서실장 주어옌은 “80년대 여행객들은 상하이에 평균 2, 3일 정도 머물렀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여행객들의 체류시간이 하루에서 하루 반으로 단축되기 시작하더니 다행히도 최근에는 안정되기 시작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귀홍닝은 “과거 강룽의 모든 홍콩-상하이 간 노선의 승객은 비즈니스맨들이었는데, 1997년 하반기부터 관광객이 점차로 증가하더니 현재는 약 10% 가량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상하이 박물관, 가극원 등 문화 시설의 계속적인 완공에 따라, 상하이시 관광 관리부서에서는 상하이 관광의 특색을 ‘도시관광’이라고 정해 국내의 관광객들의 마음 속에 고품격의 도시 이미지가 설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주(朱) 실장은, 근래 아시아 금융계에 불어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상하이 국제여행사가 받아들인 일본 여행객은 최근 1년 사이 1/3 감소되었고, 동남아 각국의 화폐가 평가절하 되어 중국대륙의 여행업계에도 막대한 경쟁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그는 “올해 상반기 이래로 우리 업무에도 반작용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객 수는 20%나 상승했지만, 이익은 이에 상응하는 것만큼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허드슨 테일러의 꿈, 창사(長沙)로 가다

상하이(上海)로 향하는 중국 동방항공. 음료수와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입국서류를 작성하는 등 정해진 순서대로 따르다 보니 벌써 창 밖으로 도시가 보인다. 장강(長江)이라 여겨지는 강 가운데에 커다란 배들이 떠 있고, 멀리 드문드문 높은 건물들이 보여서 바로 이곳이 상하이구나 생각하였다. 이렇게 가까웠던가? 145년 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6개월이란 오랜 여행 끝에 도착했던 상하이에, 겨우 두 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도착하다니!

공항에서 다시 목적지인 창사(長沙)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비행기 연결편을 안내하는 곳이 있었다. 안내원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준수한 청년이 우리 모두를 일렬로 세운 후 국내선까지 안내해 주었다. 비행기 표는 주지 않은 채... 하여간 따라오라니까 우리 모두 그를 따라갔다. 문을 여럿 지나니 정말 국내선 대합실이 나온다. 깨끗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마치 한국의 고속버스 터미널 같았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착륙하

고 있었는데, 가끔씩 영어 안내 방송이 나오지만 비행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옆에 앉은 노부부가 창사로 가는 표를 들고 있길래 이들을 따라 연착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비행기는 중국인들로 만원이었다. 음료수 한 잔을 마시고 나니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창사에 도착했다. 45년 이상을 중국에서 일하고 다시 열한 번째 중국 방문에 나선 허드슨 테일러가 상하이에서 출발, 이틀 동안 기선을 타고 도착한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난 이곳 창사에 우리는 싱겁게도 두 시간도 못 되어 도착하였다. 정말 빨리 올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가깝다니.

교육도시 창사

창사 시는 공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약 한 시간 떨어진 곳이다. 서울의 강남구 넓이에 상강(湘江)이 남북으로 흐르고, 이 강의 좌우에 도심이 발달한 교육도시이다. 상강은 동정호(洞庭湖)로 흘러들고, 바다와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호수는 여러 개의 지류들과 합쳐

장강으로 흘러든다. 작년 홍수 때 하루 저녁 만 비가 더 왔어도 강이 범람할 뻔했단다. 여름에는 매우 습하고 덥지만, 겨울에는 장강 이남에 난방을 금지한 정부 시책 때문에 추위를 이겨내기가 수월치 않다고 한다. 창사시 인구는 200만 명이고, 이 도시가 속해있는 후난(湖南)성의 인구는 무려 6천만 명이다. 우리 나라 남북한을 합친 인구에 버금간다. 새로이 지어지고 있는 고층건물들과 오래된 가옥들이 섞여 묘한 느낌이 드는 도시이다.

창사는 예로부터 교육도시이다. 중국의 4대 학당 중의 하나인 악록서원(岳麓書院)이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송(宋)대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계속되어 온 중국 사상의 근원지이다. 현재에도 이 도시에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점대학에 포함되는 후난대학교와 후난공과대학이 있다. 또한 후난사범대학과 경성대학이 있어, 외국인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도서관, 학생회관, 기숙사 등 한국의 대학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창 밖에 아무렇게나 걸려 있는 속옷들을 제외하고는... 3,500명의 의과대학생이 있다는 후난의대는 미국의 예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한다. 건물이 크고 수많은 환자들이 북적대는 이곳은 장강 이남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이다.

대학 주변의 시장에는 특이하게 개구리와 뱀이 많이 눈에 띄었다. 한참을 구경하는데 한국말이 들린다. 이곳에 LG 텔레비전 공장이 생기면서 파견된 직원들의 부인들이었다. 인터넷 상에는 후난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없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곳 창사에는 LG뿐 아니라, 금호 타이어의 간판도 눈에 띄었다. 나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무엇인가 질문하는 중국 아저씨의 모습에서, 우리와 너무도 가깝고 흡사한 문화에 살고 있는 그들을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 저는 광둥(廣東)에서 온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에서 왔어요. 비

행기 타고 4시간 걸려서...” 그 아저씨는 여전히 나를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온 중국인으로 알고 있었다.

미국 열풍은 불고

전국적으로 영어 열풍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이곳 역시 그 열풍이 대단하여 영어로 이야기하는 카페가 있다 하여 찾아가 보았다. 우리는 외국인이라 돈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한 테이블에서 7, 8명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책들을 읽으며 상상해 본 중국 청년들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왜 창사에 왔느냐고 처음 묻는다. 장자제(張家界: 무릉도원)와 여러 곳을 관광하기 위해 왔다고 대답하자 자기들의 관심 거리를 이야기한다. 중국 여자 축구가 미국에 패한 이야기, 한국의 남북한 대치 문제, 미국 대통령 클린턴에 대한 의견, 한국과 중국의 경제 문제 등등 무엇 하나 모르는 것이 없다. 이곳이 죽의 장막이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사건들에 대해 그들은 관심이 있었고, 또한 알고 있었다. 이런 지적 호기심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특히 한 청년은 정부에서 일하면서 미국의 세계은행(World Bank)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에도 여러 번 다녀왔단다. 똑똑한 청년이었다. 중국의 위안화(元貨) 평가절하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확실한 의견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대국민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진 청년들이었다. 약간 비판적인 청년도 있었지만...

최근 이 도시에도 미국 상점들이 상륙하기 시작했다. KFC와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들이 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다.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는 평화당 백화점 안에 있는데, 이 백화점이 개점하는 날 3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단다. 이른 아침 강변에서 춤과 체조, 가벼운 운동 등으로 자유롭



게 움직이던 수많은 노인들의 모습과 어우러져 이곳 사람들의 숫자에 중압감을 느낀다. 인해전술, 그것은 무서운 전술임에 틀림이 없다. 한 성(省) 안에 우리 나라의 남북한 인구가 합쳐진 수의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이 기도한다면 과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

창사로 가면 마오쩌둥이 보인다?

그러나, 이곳은 엄연한 공산주의 국가였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커다란 동상이 학교 중심에 자리잡고 있고, 곳곳에 제복을 입은 공안원들이 뭇 찾는지 열심히 둘러보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학교 안에 경찰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곳에는 왜 이리 공안원의 숫자가 많은지. 몇 년 전 중국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었던 옌타(嚴打)와,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의 모습이 상상되어 이 민족의 아픈 역사를 실감하게 된다. 실제로 창사 시에서 남쪽에 위치한 상탄(湘潭) 시는 마오 주석이 태어난 곳이다. 혁명의 주체세력이 후난 출신들이라, 부주석을 지낸 류샤오치(劉少奇)의 생가와 더불어 곳곳이 관광지로 변모한 흔적이 보인다.

이곳에서는 마오 주석이 신(神)으로 숭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마오 주석의 동상 제막식이 겨울에 열렸는데 봄에 피는 두견화가 만발

하였고, 제막식 때 해와 달이 동시에 보였기 때문이란단다. 마오의 사진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귀중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작은 동상을 사는 경우에만 같이 판매된다고 한다. 이것이 가장 기념이 될 것 같아서 구입하였는데, 붉은 천으로 정성스럽게 싸 주는 점원의 모습이 마치 아주 귀한 것을 하사하는 임금님처럼 위엄 있어 보였다.

점심식사를 하였는데도 마오의 생가에는 데려다 주지 않았다. 그 대신 1960년 경 마오가 그 측근들도 모르게 일 주일을 쉬어 갔다는 별장으로 안내했다. 당시 소련의 건축법을 받아들여 지진에도 견고하게 지어졌다는 나직한 건물 내에는 마오 주석의 사진과 집무실, 회의실 등이 보존되어 있다. 서구식 화장실과 욕실뿐 아니라, 두꺼운 철판으로 칸막이가 된 방공호도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곳에서 군을 지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오의 부인이었던 장칭(江青)을 위한 방도 만들어졌지만 그녀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단다. 여러 관문을 통과한 우리는 드디어 마오쩌둥의 생가에 도착하였다. 하늘에서 보면 산의 모양이 용과 같은데, 그 머리 부분에 마오의 생가가, 그 꼬리 부분에 류샤오치의 생가가 있단다.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마오는 키가 크고 준수하여, 어릴 적부터 유명하였

다. 그의 생각은 마치 우리네 시골의 고가(古家)와 같은데 그 안에도 역시 공안원이 감시하고 있었다. 우리를 수상히 여겼는지 안내원에게 누구냐고 묻고, 그 곳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우린 관광 왔어요. 그렇게 무섭게 쳐다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마오의 생각에는 신전을 모시는 정문 벽 제단에 아무 것도 없다. 공산주의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가정에서 모시던 우상들을 없애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의 생각에는 마음에 평안을 가져온다는 신이 모셔져 있었다.

창사에서 기차로 약 2시간을 타고 가면 북쪽 위예양(岳陽)이라는 도시에 연하여 동정호가 있다. 수많은 시인들이 동정호반에 있는 악양루에 올라 시를 쓰고 읊었다는데, 동정호는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컸다. 작은 배로 약 30분 정도를 달리니 동정호에 떠 있는 작은섬 천산(君山)이 나온다. 예로부터 차로 유명한 이곳에서, 우리 모두는 물 속에 넣으면 찾일이 찾잔 바닥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차를 샀다. 차의 맛도 좋은 것 같다. 아무리 호수가 크다고 해도 바람이 없고 더웠다. 이모작 농사가 되는 아열대 지방이 틀림없는 것 같다.

허드슨테일리의

마지막 기도가 살아 있는 곳

창사 시에는 남쪽에 북쪽에 두 개의 삼자교회가 있다. 남쪽 교회는 허드슨 테일리의 영결식이 열렸던 교회인데, 주일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신도 수가 많다고 한다. 운 좋게도 자리를 잡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먼저 한 남자 성도가 시편으로 생각되는 성경 구절을 읊조리고 성가대가 '빈들에 마른 풀같이'를 찬양했다. 조금 있다가 어린이들이 나와서 시를 암송하고 찬양을 하였는데, 어린이를 가르치

는 두 명의 선생님은 매우 능숙했다. '찬미가'라고 써여 있는 찬송가는 숫자 악보로 표시되어 있는데 모두들 잘 부른다. 계속해서 설교를 필기하시는 할머니, 젊은이들. 교회당은 더웠지만 깊은 신앙의 역사를 가진 듯한 분들이 많이 보였다.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고 계셨다. 그 깊은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흥분이었다.

북쪽 교회에서는 청년 집회에 참석하였다. '예수 사랑해요'를 부르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그들은 그들의 말로 부르는 가운데 흥분과 감동이 밀려들었다. '주님이십니다. 이같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마음속과 이들의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양로원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탄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 예배를 드린단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악록산에는 스키장의 리프트 같은 시설이 있어서 쉽게 오를 수 있었다. 뿌연 매연 사이로 도시 전체가 보였다.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기도제목들이 머리를 스쳐갔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가사들을 음미하면서 소리내어 불러보았다. '그렇군요. 이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군요.'

도심에 있는 천심공원 안에 높은 정자가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죽기 직전에 기도했던 곳이다. 50년 중국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던 그의 열정이 느껴졌다. 이곳에서 우리도 동일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찬양하였다. 오늘 그를 대신하여 이 곳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 너무도 감사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뒤에 서서 그분의 일에 감동하고 찬미하는 일은 더위와 설사와 고열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주님이 주신 은혜였다.

출처/ 99년 여름 중국 단기선교팀 제공

10 ·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을 맞아



중국 대륙 전체가 몇 달 동안 건국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해 왔다. 또 대회 이틀 전인 9월 28일부터 1주일 동안 중국 전체에 공휴일을 선포하고, 각종 대형 행사를 치루었다. 이 글에서는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행사의 의미보다는, 50년이 지난 중국의 여러 모습에 대해 살펴보면서, 미래의 중국을 함께 내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건국 50주년 기념행사의 이모저모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 기념행사가 10월 1일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펼쳐졌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등

당 · 정 · 군 최고 지도자들과 50만 명의 군인과 학생, 시민들은 오성홍기(五星紅旗)가 게양된 톈안먼 광장에서 정복 차림의 군대와 번쩍이는 첨단무기를 선뎨 군사 퍼레이드를 지켜봤다.

15년 만에 재현된 군사 퍼레이드에는 수백대의 탱크와 장갑차, 함대, 지대공 미사일 외에 핵미사일까지 등장했다.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는 해군육전대(해병대), 무장경찰 특경부대, 예비역부대 등이 처음 참가했고, 자체 제작된 초음속 '페이바오(飛豹) 폭격기, '젠홍(殲轟)-7' 폭격기 등 많은 첨단 무기와 장비가 최초로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공개된 4백

여대의 각종 지상장비와 132대의 각종 비행기 중 최초로 선보이는 신형 무기와 장비가 95%에 달했으며, 그 대부분은 중국이 자체 제작한 것이었다.

장 주석은 축사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은 50년 전 이 자리에서 신 중국의 성립을 세계에 알렸으며, 15년 전 덩샤오핑(鄧小平) 동지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목표를 향하여 개혁 개방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에도 당의 기본 이론과 노선을 견지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에 이어 대만과 완전한 조국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평화독립 외교원칙을 견지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며,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 정치질서를 위해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세계 다극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주석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의 가치를 높이 걸고, 위대한 목표를 향해 행진, 번영되고 강하며 민주적이고 문명화한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등 만세삼창을 외쳤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공산당이 통치한 지난 50년은 중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장이었으며, 중국 인민들이 지금 처럼 세계 만방의 주목을 받은 시절은 없었다’고 자화자찬했다. 또 ‘장 주석을 핵심으로 한 집단 지도체제는 높은 이상과 확고한 결단력, 걸출한 리더십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홍콩 언론들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성장에 걸맞는 민주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 외에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50주년 기념식에는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주룽지(朱鎔基) 총리 등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각국 외교, 군사 사절단과 해외화교 등도 참석, 행사를 참관했다. 또 이날 오후 톈안먼 광장에서 「조국이며, 그대를 축복한다」란 주제로 약 10만 명의 인사가 참가하는 성대한 경축 음악회를 개최했다.

오늘날의 중국-경제·정치적 방면에서

1978년 당시 최고 지도자로서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새 혁명의 주창자 덩샤오핑은 계급투쟁이 아닌 경제 현대화에 역점을 두었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하여 중국의 8억여 농민들에게 사농(私農)을 허용했으며, 사기업 제도도 실시하였다. 중국은 20년 간의 통제된 실험을 통해 자본주의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 기본원리를 서서히 도입했다. 중국은 덩이 개발한 특이한 혼합형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덕택에 일종의 고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90년대 세계시장을 휩쓸던 핫머니(초단기성 투기자금)의 격랑도 피할 수 있었다.

(1) 경제적 난관

건국 5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동시에 마르크스 경제이론 대신 시장경제 체제를 견지하고 있으며, 비능률적인 국영기업을 과감히 해체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막대한 실업자 문제에 고민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이 국민총생산(GNP)의 40%를 초과하고, 외자도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마오쩌둥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한다.’는 전략으로 장제스(蔣介石)와의 내전에

서 승리했듯이, 덩샤오핑은 농촌에서부터 그의 경제개혁을 시작했다. 이 정책을 이어서 장쩌민 주석 또한 중국 정부가 농민들에게 맡긴 농지를 한동안 회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농촌 개혁을 지지하였다. 인민공사가 해체된 후 2억 5천만 명이었던 농촌의 절대빈곤 인구는 1998년 4천 2백만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아직 4천여 만 농민은 가난하며 또 9억의 농민 중 1억 6천 만 명 가량이 남아도는 인력이다.



(2)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문제

개혁 대상에 오른 75만 개의 국유기업들은 그 안에 학교, 주택, 병원 등 모든 것을 갖춘 하나의 사회이다. 이러한 국유기업들이 고비용·저효율에 시달리며 적자를 내는 상황이 계속되자, 금융기관의 부실을 우려한 당국이

본격적인 개혁에 나섰다. 92년 이전엔 사회주의의 틀 안에서 활로를 모색했지만, 92년 이후부터 주식제 도입 등 소유제의 개혁을 통한 체제개혁의 시도가 과감히 이뤄졌다. 97년부터는 중점·대형 국유기업은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유기업은 과감히 매각, 처리하는 방안이 시도 중이다. 국유기업의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샤강(下崗: 정리휴직)'의 발생이 불가피하여 대부분 서민의 삶도 더욱 어려워졌다. 지금까지 발생한 샤강자는 적게는 8백만, 많게는 1천 5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실업 사태로 빚어질 사회적인 혼란을 막으려면 민주화, 즉 국민들이 직접 개혁의 과정에 참여하여 이후 개혁이 모두 당의 책임이라고 전가하지 않는 주인의식이 중요하다고 한 평론가는 말하였다.

9월 19~22일에 열린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과, 타이완(臺灣) 문제와 파룬궁(法輪功)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또 당초 3년으로 계획한 '국유기업 개혁문제'에 대한 일정조정과 속도조절 문제, 그리고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에 관해 필수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방침'도 세웠다.

(3) 정치, 정책 방면의 문제

중국은 '공산당은 중국 사회주의 사업의 지도적 핵심'이라고 당헌에 못박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국가와 당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의 최종결정권을 쥐고 있으며, 당·정·군의 인사권도 장악하고 있다. 공산당은 또 성(省)→현(縣)→향(鄉)의 행

정조직에 맞춰 각급 당 위원회를 구성, '건의'라는 형식으로 해당 행정기관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당정 분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정 이중구조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이 경제 개혁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비난 때문이었다. 당정 분리를 통해 공산당 일당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열망이 89년 학생들이 주도한 천안문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천안문 사태 이후 전국적 차원의 정치개혁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지난해 공산당 일당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최초의 야당인 '중국 민주당'이 창당되면서 정치개혁 논의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중국은 지금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와 공산당의 독재적 지도 아래 나타나는 인권탄압과 비민주화로 인해 서방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은 필요에 따라 계속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다. 특히 대만문제와 영토수호에 있어서 중국은 군사력 발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최우선 국가적 사업인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정세의 안정, 특히 평화유지는 중대한 명제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

(4) 사회방면의 문제

도시와 농촌간, 또는 농촌 내부 간의 빈부 격차도 매우 심하다. 97년 농촌의 1인당 소득은 2,090위안(元)이었으나 도시는 5,160위안이였다. 따라서 농촌의 유휴인력들이 무작정 대도시로 상경하면서 여성들은 유흥가로, 남성들은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78년 3억 7백 44만톤이던 중국의 식량생산이 97년 4억 9천 4백 17만톤으로 늘었지만, 인구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98년 말 통계로 현재 중국의 인구는 12억 4천 8백만 명인데, 인구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도시에서는 총명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지만

형제자매, 가족에 대한 개념이 극히 희박한 '샤오황띠(小黃帝: 작은 황제)'가 생겨났고, 농촌에는 호적에도 못 올라 의무교육, 예방접종도 못 받는 '헤이하이즈(黑孩子: 무호적자)'가 1천 5백만 명 이상 양산되었다.

맺는말

과거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하에 50년을 보내왔다. 80년대 말부터 공산당은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전체주의의 틀을 깨고 개인소유를 헌법에 명기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많은 문제도 생겨났지만 중국은 소련처럼 붕괴되지도 않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21세기에 거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이 민주국가나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겐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안정을 깨는 여러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적으로 경제적 발전을 위한 '중국식'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행할 것이다. 지금의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보다는 각자 배불리 먹고 편히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고층 빌딩과 주식열풍, 고급 승용차 등 어느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스스로를 자본주의라 얘기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공산당이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50년의 중국이, 현재 그들이 자신있게 내다보는 광명한 중국이 될 지는 두고봐야 알 것이지만, 자신의 틀을 여러 번 바꾸어서라도 중국의 영화(榮華)를 위해 분투할 것은 틀림없다. 이것이 중국의 자존심인 것이다.



중국

보도물에 나타난

종교

지하기독교인 40명 체포

중국 경찰은 8월 24일 허난(河南)성의 한 가정집에서 모임을 갖던 허난성과 안후이(安徽)성의 지하기독교 지도자 40명을 체포했다고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 및 민주화운동정보센터가 밝혔다. 정보센터는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인사들 가운데는 지난 80년대부터 지하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했으며, 3년간 노동수용소에 수용됐다 불과 5일 전에 풀려난 왕신차이를 비롯해 최소한 4개 기독교단체의 지도자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지하교회의

중심지인 허난성에서는 지난 10개월간 지하교회의 집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계속돼 1주일 전에도 8명이 체포됐다.

(베이징 APDPA연합 99.8.27)

중국 공안, 탈북자 도운 한국인 목사 등 구금



지린(吉林)성 창춘(長春)과 연변(延邊) 조선족 자치주 연지(延吉)

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해 온 한국인 목사 2명과 사업가 1명이 중국 경찰 당국에 체포돼 20일 이상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모(40) 박모(39)씨 등 목사 2명은 8월 21일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13명과 함께 창춘에서 연행됐으며, 사업가 강모(40)씨와 조선족 1명은 같은 날 연지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연행된 목사의 가족이 이를 신고해 오면 따라, 중국 외교부측에 내용확인 및 체포된 한국인들의 신변안전 및 조기석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측은 확인한 뒤 통보해주겠다고 답변했다고 대사

관측은 말했다. 외교통상부도 이날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 차원에서 중국 당국에 항의하고 조사 이유를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이들과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인 3명은 목사와 사업가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처음 60여명을 연행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날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99.9.11)

구금 한국인 목사 석방



지린성 창춘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한달 남짓 구금·조사를 받아온 전영수, 박인식 씨 등 목사 2명이 9월 17일 석방됐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전 씨 등은 구금 기간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은 적은 없으며, 따라서 현재 이들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 측은 이들을 풀어주면서 한국인들이 중국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관계 부처에 중국을 여행하는 한국 국

민, 특히 종교인들의 중국내 포교활동 자제를 계도해 나가도록 요청했다.

(한겨레 99.9.18)

중국 등 종교자유 침해국 선정

미국 국무부는 중국, 이란, 이라크, 미얀마, 수단 등 5개국을 지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각별히 우려되는 국가로 분류했다고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다. 루빈 대변인은 종교의 자유 침해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도록 돼 있으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아직 제재에 대한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면서, 다만 미국은 이들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처음으로 국별 종교의 자유 실태 연례보고서를 만들어 지난달 발표하면서 중국은 미등록 종교의 활동을 용인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종교의 자유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른 종교의 자유 침해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미국 행정부가 종교의 자유 침해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외교적 항의와 외교 거래 중단에서 수출인가 제한과 국제기구의 차관 제공에 대한 비토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외교적 제재 7가지, 원조 또는 경제 제재 8가지 등 모두 15가지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동아 99.10.8)

정치·군사·외교

대만 강진,

사망·실종 최소 2,200명 넘어

'9·21 대지진' 이후 대만에서는 리히터 규모 6.0 이상의 여진 8회를 비롯해 7,400여 차례의 지진이 이어졌다. 리덩후이(李登輝) 대만총통은 25일 대만 전역에 6개월 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6일 현재 △사망 2,060명 △부상 8,672명 △실종 매물 189명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아파트는 6,100동이 파괴됐고 5,398동이 손상됐다. 대만으로 파견된 한국 119 구조대가 24일 매몰된 지 87시간 된 6세 소년을 구출한 데 이어, 대만 구조대는 26일 매몰 130시간 만에 20대 형제 2명을 구출했다.

(타이베이 외신종합연합 99.9.27)

후진타오,

중국 군서열 2위로 승격

후진타오(56) 중국 국가 부주석이 군서열 제2인자로 공식 지명됐다.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후계자로 널리 알려진 후 부주석은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CMC) 위원에 2명의 군사위원을 승진 발령하는 행사장에서 3명의 부주석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됐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9월 초 베이징에서 열린 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후를 부주석으로 임명했으나, 이미 부주석직에

있는 장왕넨이나 츠하오텐보다 상위직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장에서 장 주석은 장 부주석을 두 번째로, 그리고 츠를 세 번째로 소개했다. 장 주석이 부주석 3명을 이 순서로 소개한 것은 후 부주석이 장, 츠 부주석보다 상위직 부주석임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장에서 후 부주석이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은 후가 장 주석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분석가들의 추론을 확인하는 것이다. (베이징 AFP연합 99.9.30)

장쩌민, “소수민족 분리주의 행동 단호 대처”

장쩌민 국가 주석은 중국내 소수 민족들의 비애국적 종교 활동과 분리주의 행동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주석은 9월 30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게재된 연설문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국가 통합을 이룩하고 민족 분리주의를 봉쇄하는 것을 정치적 과제로 삼아 왔다.”며 종교를 가장한 분리주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방세계는 중국을 분열시키고 서방화하기 위해 소수민족 및 종교문제를 조장하는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주석은 특히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소수민족 회의에서 낭독된 이 연설문에서, “세계의 많은 종교 갈등과 전쟁은 다른아닌 민족 문제에 대한 외세 개입과 미숙한 대응에서 비롯되고 있

다.”고 지적, 세계 민족 분쟁을 둘러싸고 외국세력의 개입이 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문화 99.10.1)

지진 불구, 대만 경제 전망 밝다



대만 경제는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하부구조(인프라) 및 건설분야에 대한 자금 투입으로 경제가 조만간 활력을 회복, 지진 참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S&P가 밝혔다. S&P는 이날 대만 지진 영향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으로 대만이 입은 건물 피해 및 산업생산 손실액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예상치의 0.2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P 분석가인 존 베일리는 “심각한 지진피해를 입었음에도 대만 경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는 낙관적”이라면서, “이는 대만 정부가 투자와 경비지출을 늘림으로써 내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5.74%에서 5.5%로 하향 조정한 대만 당국은 이번 지진 피해 복구 및 구호비로 최소한 2천

500억 대만 달러(미화 78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99.10.6)

중국 외교부장 방북,

북·중수교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唐家璇(唐家璇) 중국 외교부장 일행이 10월 6일 북·중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唐家璇 일행은 5일 간의 방북기간 중 김정일의 중국방문 등 양국 최고위 지도자의 방문 일정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은 91년 첸치첸(錢其琛) 전 외교부장의 방북 이후 8년 만이다.唐家璇은 평양 방문 중 백남순 외무장 등 북한 고위관리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동아 99.10.6)

경제

디플레이션 대책 실패 가능성 시인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 심화를 막기 위한 재정 대책의 실패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엄청난 예산 적자 부담을 감수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을 상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이 비꼰다고 전했다. 상

부장은 “디플레가 인플레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면서 정부의 디플레 대책을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2개월 간 디플레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정책을 펴 올해 예산 적자가 지난해 보다 2배로 늘어난 1천 800위안(미화 217억 달러)으로 확대됐다. 중국은 올해 당초 계획한 3천 410억 위안보다 크게 늘어난 4천 15억 위안의 재정부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 중 약 2천 500억 위안은 만기가 된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된다.

(문화 99.9.9)

외국인 투자 유치 세계 2위

중국은 93년 미국에 이어 세계 2대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국(금액 기준)이 된 이래 지금까지 2위 자리를 안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80년 최초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진출한 이래 99년 7월말 현재 투자허가를 받은 기업이 33만 4천 개(누계)에 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허가기준) 5,948억 1천만 달러이며 이중 2,889억 4천만 달러가 실제로 투자되었다. 상하이 증권보에 의하면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중 200개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외에 외국자본 이용은 주로 금융차입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정부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

외국은행 상업차관, 국외 채권발행 등이 금융차입의 주요 방법으로 98년 말 현재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자금은 총 1,579건에 계약금액은 1,301억 8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중앙 99.9.9)

연내 WTO 가입 어려울듯



중국의 연내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중협상이 뒤늦게 재개됨으로써 앞으로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시간상으로 연내에 미 의회의 승인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살린 바세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측과 WTO 가입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간이 촉박하다.”며, 중국이 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전시키지 않으면 연내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연내 WTO 가입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측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은 이날 지난 4월 협상 중단 후 5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했다.

(한국경제 99.9.10)

금융기관 불량채권, 총 9천 억 위안 달해

중국의 각종 은행과 신탁공사, 증권공사 등 전국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불량채권 총액이 9천 억 위안에 이른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3조 6천 189억 위안의 25%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 4대 국책은행의 하나인 중국은행의 경우도 작년 말 현재 전체 대출총액의 10.29%가 불량채권이라고 자오안거(趙安歌) 중국은행 부행장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불량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중국은행 내부에 ‘금융자산관리공사 건립 지도 소조(小組)’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지도소조’를 만들었다며 중국은행 금융자산관리공사를 곧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 99.9.13)

“위안화 가치 고수 희생크다.”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 고수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으며 이 때문에 아시아의 경제 회복을 돕는데 기여했다고 상화이청(項懷誠) 중국 재정부장이 밝혔다. 그는 9월 29일 워싱턴에서 이틀째 열린 54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했으나, 중국 정부는 아시아와 세계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견지할 수 있는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중국은 2

년 전 아시아 위기발생 당시 일부 국가들의 통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상품을 중국에 비해 유리한 싼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서울경제 99.10.1)

세계 화상(華商)대회

호주서 개최, 한국 첫 참가

정부와 국내 화교들이 국제 화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첫 무대는 10월 6일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화상대회. 산업자원부와 한국화교경제인협회 소속 화교들은 이 대회에 참가하여 국제화상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91년 리관유(李光耀) 당시 싱가포르총리의 제창으로 창설된 이 대회는 격년제로 열리는 세계 주요 화교자본가들의 모임이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대회에 처음 얼굴을 내밀게 된다. 이 대회에는 유태인 자본과 함께 세계 금융을 양분하고 있는 국제 화상 2천 명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무르는 자본만도 수천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 99.10.5)

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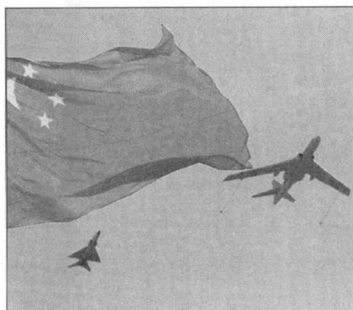
남동부 산사태로 2백여 명 사망
태풍 웬디로 인해 중국 남동부에 서 발생한 산사태로 220여 명이

사망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 지역에서 웬디가 동반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 118명이 사망하고 10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부상자도 6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AFP연합 99.9.7)

저소득층에 현금 지급

건국 50주년 이색행사



중국은 10월 1일 건국 50주년을 앞두고 저소득층과 공무원 등에게 652억 위안(한화 9조 1,200억 원)을 풀기로 하는 등 행사준비에 한창이다. 중국 정부는 8,400만 명의 공무원 연금수령자 해고 노동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CCTV가 보도했다. 큰 행사를 앞두고 혹시 사회적 소요가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공무원 급여 인상분 등을 합쳐 모두 652억 위안이 소요된다. 중국 정부는 또 21일부터 행사 당일인 10월 1일까지 25개 이상 대도시의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에 대해 석유와 석탄을 쓰지 못하게 했다. 베이징 시내에서는 지저분한 벽보를 뜯고 노점 수천

개를 철거 중이며, 불량주택 철거와 개축도 진행 중이다.

(동아 99.9.8)

대수로 착공-양쯔강 물,

베이징 일대 공급

중국이 장강(長江)물을 베이징까지 끌어오는 대수로 공사인 '남수북조(南水北調)'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양쯔강 물을 화북지방의 농공업 용수로 돌리기 위해 후베이(湖北)성 단장커우(丹江口) 호수와 베이징 위위안탄(玉淵潭)을 잇는 총연장 1,246km의 대공사이다. 총 548억 위안(한화 8조 2천억원)을 들여 2005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 수로가 완성되면 베이징을 포함한 화베이(華北)지방에 연간 145억 톤의 물이 공급된다.

(동아 99.10.5)

푸지엔성 건국 이래

최대 밀수사건, 70명 구속

주룽지 총리로부터 '건국 이래 최대의 밀수사건'으로 지목받은 '푸지엔(福建) 위엔화(遠華)그룹 밀수사건'의 파장이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홍콩의 「명보(明報)」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임 푸지엔 부성장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임 성위원회 부서기의 아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 중앙기율위원회에 구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초 주룽지 총리의 지시를 받은 중앙기율위원회는 세관총

서, 국가안전부, 군(軍) 안전보위부와 함께 총 500여 명의 인력을 동원, 이 사건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벌였으며 지금까지 모두 70명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구속자 중에는 현직 성위원회 부서기의 아들도 포함됐다. 공안기관은 인터넷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의 주범 위엔화그룹 총재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중앙 99.10.8)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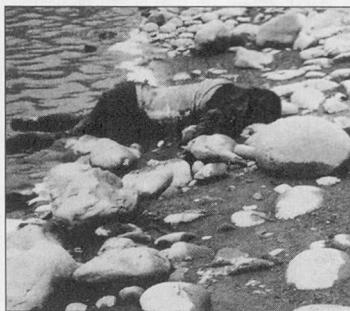
건국 50년 앞두고 대대적 사형 집행

중국은 10월 1일 건국 50주년을 앞두고 범죄자들을 대대적으로 사형에 처하고 있다. 후난(湖南)성 성도(省都) 창사(長沙)시에서 유괴,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8명이 1천여 명이 참석한 공개재판 후 즉시 처형됐다고 「후난일보(湖南日報)」가 보도했다. 지난 주에는 남서부 대도시 충칭(重慶)시에서 26명을 대상으로 사형이 집행됐으며, 남부 광둥(廣東)성에서는 건국 기념일까지 238명의 범죄자를 사형에 처한다. 중국은 건국 50주년을 앞두고, 지난 7월부터 범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다. 국제사면위원회(AI)는 이와 관련, 중국 지도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무원칙적인 구금, 고문, 사형 집

행을 중단하고 법 집행과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경향 99.9.29)

탈북자 인권 유린 실태



한국 측에서는 탈북자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넘은 만큼, 인권보호를 위해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반면, 중국 정부는 이 문제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중국·북한이 다룰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의 비정부기구(NGO)들은 탈북 부녀자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책을 요구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6,871명과 여성 21,100명이 북한을 빠져 나왔다. 식량난으로 탈북한 여성의 절반 이상은 인신매매와 연루돼 있는데, 국경 근처의 인신매매꾼에게 붙잡혀 팔려가거나 중국 열차역 앞이나 시장 근처의 ‘인간 사냥꾼’에게 잡혀 팔려가는 경우가 많다. 20세 미만의 북한 여성들이 5천 위안에 팔려 중국 오지의

조선족이나 한족과 ‘매매혼’을 당하거나 유락업소 등에 팔려 율락을 강요당하기까지 한다. 최근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강화로 이들을 도왔던 조선족조차 외면의 몸짓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한다.

(문화 99.9.27)

한·중관계

제주에 대규모 차이나타운 건설 전망

9월 한·중 우호의 달을 맞아 제주에서 열리는 중국인 대규모 합동결혼식에 참석차 방문한 중국 측 한 관계자는, “중국 베이징영화제작소와 일본 소니사의 합작회사인 에버그린 관계자 2명이 제주에서 차이나타운 건설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버그린이 한 달 전부터 비밀리에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중국 내 30~50개 투자회사를 모집, 제주지역 차이나타운 건설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차이나타운 건설 실현율이 80% 이상된다.”면서 “현재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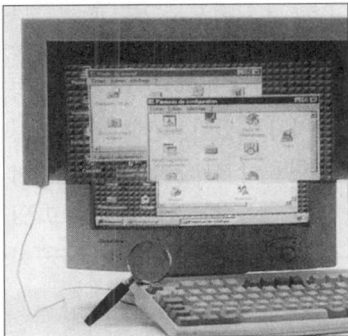
(한겨레 99.9.9)

한·중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및 뉴질랜드

드와 호주 국민방문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은 9월 11일 오후(현지 시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문제 등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냉전구도의 종식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현재 진행중인 북·미 간 미사일협상을 겨냥해 한국과 중국 간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우회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가 한·중 양국의 공동된 목표라는 점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양국이 공동노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99. 9. 11)

한국 인터넷 벤처기업 중국 진출



한국 인터넷 벤처기업들이 잇따라 중국 진출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국내

인터넷 벤처기업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합작 및 제휴방식 진출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인터넷 콘텐츠사업을 하는 복스텍이 중국 R&R사와 공동으로 상하이시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중국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중국마일이 차이나 바이트와 제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또 아이오션은 중국 화성경제무역 유한공사와 한·중 인터넷 합작회사를 설립기로 했다. (한국경제 99.9.13)

한·중 어업협상

실무협의 중국서 개최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어업협정 발효를 위한 실무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월 13일 한·중 양국은 15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어업공동위 준비실무회의(과장급)를 개최해, 지난해 11월에 서명한 양국 어업협정의 발효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4월 서울에서 고위실무협상을 열었으나, 상대방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조건 등 현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었다.

(한국경제 99.9.13)

금호그룹 중국 진출 4년

1995년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한 금호그룹이 진출 4년 여 만에 주요 사업부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항저우(杭州) 등 6개 지

역에서 여객운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금호고속은 지난 95년 10월 첫 진출 이후 4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7년 초 공장 가동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역시 생산 개시 3년여 만에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올라설 태세이다. 금호그룹은 이에 따라 타이어공장 증설과 함께 여객운수 사업을 중국내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선 99.9.14)

중국 주변국 호감도 조사서

한국 1위

중국인은 주변국 중 한국을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일본 요미우리신문 갤럽이 실시한 '중·일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은 주변국 가운데 한국(68%), 러시아(65%), 북한(50%), 미국(48%) 순으로 호감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중국인 50%와 일본인 46%가 상대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4년 전보다 24% 포인트 늘어났고, 미국에 대해서는 4년 전 66%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문화 99.10.5)

중국 교회를 찾아서(19)

윈난(云南)성 산간지역

사역자들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할 사역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징포족 (사진은 징포족의 결혼 모습).

농부 사역자 미병신

“모든 것이 풍족해요.”

미얀마와의 국경지역 마을에서 온, 중년의 얼굴에서 삶의 풍파를 읽을 수 있는 징포(景頗)족 농민 미병신(彌井新)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는 자기 소유인 9무(畝)의 토지에 쌀, 밀,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다. “1무당 1,200근(600kg)의 수확을 올리고 있으니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식구들이 먹고 쓰기에는 충분하며, 또 시장에 내다 팔 것도 조금 있어요.” 아내와 다섯 아이들을 위해 손수 진흙 벽돌과 나무로 지은 그의 집은 온 가족이 꽤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충분했다.

그러나 미병신은 그저 평범한 농부만은 아니다. 농사일 외에 그는 잉장(盈江)현 삼자애국운

동위원회의 총무로, 교회에서는 장로로 봉사하고 있는, 전임사역자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매 주일 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설교

하는 것은 물론, 산간지역에 흩어져 있는 121개 교회를 두루두루 보살피는 사역 또한 그의 몫이다. 게다가 현 기독교협회가 주최하는 평신도 훈련반이 열리는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줄은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매우 적극적으로 저의 사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라며 아내 자랑에 다소 멋적어 한다. 그러기에 그가 수주일 동안 평신도 훈련반이 운영되는 교실에 머물면서, 가끔씩만 자신의 식량을 가지러 집에 들러도 별 탈이 없는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훈련반은 농한기에 열린다. 바쁜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교회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윈난성의 대부분 농촌교회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미뺑신은 그다지 많은 신학교육을 받지는 못했다. “1985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3개월 간의 과정을 이수한 것이 제가 받은 신학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 때 받은 훈련이 설교를 하거나 훈련반에서 신약을 강의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고백한다.



자신의 처소 앞에 선 평신도 사역자.

검은 손톱의

여성사역자 리루더

리루더(李路德)는 신학적으로 잘 훈련된 젊은 여성사역자이다. 리수(栗粟)족인 그녀는 1992년 원난성 신학교를 졸업한 후 원난성 남서부 지역교회 사역자를 양성하는 룡촨(龍川) 평신도 훈련반의 전임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생활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반에 있는 일곱 명의 교사들은 모두 원난성 기독교협회가 그들을 위해 구입한 토지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유채꽃과 겨울 밀과 각종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 텃밭을 보여주며, 여기서 나오는 결실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으며 날마다의 노동은 그녀의 손톱을 검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직 안수를 받지 않았다. 현 기독교협회는 지금 그녀의 안수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

다반리 마을은 아시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상적인 곳이다. 원난성 남서부 란창현의 구룡지대에 자리한 이곳은 대나무와 사탕수수가 우거져 있으며, 대나무로 만들어낸 발코니와 담장이 넉쿨이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다반리 마을은 기독교 마을이며

주민들은 모두 라후(拉祜)족이다. 이 지역은 극도로 외진 곳이어서, 보통 길에서 10km 이상씩 떨어져 있으며 걸어가거나 지프차를 이용해서만 갈 수 있다.

높은 아동 취학률

리자신(李札信)은 마을 초등학교의 교장이다. 원난성 기독교협회와 애덕기금회에 의해 세워진 이 학교는 주위 다섯 마을에서 온 274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리자신은 다반리 마을의 취학연령 어린이의 95%가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대부분이 6년 과정을 모두 마친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6년 과정을 마친 어린이들 가운데 반 이상은 2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반리같은 오지 마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기독교인들의 교육열과 교장선생님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한 좋은 간증으로 남을 만한 것이다.

지방정부의 농업기술자 차야우

40대 초반에 검게 탄 얼굴을 지닌 차야우는 지방정부의 농업기술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반리 교회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다반리는

이 지역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주일만 되면 근처의 마을로부터 많은 신도들이 이곳 교회로 몰려든다. 붉은 열대꽃에 둘러싸인 간단한 석조 건물인 교회는 마을을 내려다보는 작은 산 위에 우뚝 솟아 있다. 차야우는 주일 아침, 정오, 저녁 예배는 물론, 평일에 열리는 성경공부 및 기도회 등 모든 교회 활동을 조직하고 준비한다. 현에 있는 유일한 목사님이 다반리에 있지만, 주위 산간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천여 라후족 신도들에게 설교하러 늘 여행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다반리에 머물 시간이 거의 없다.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상활동을 원만하게 되게 하는 데는 차야우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교회 진료소 책임자 두안산

다반리 마을의 또 한 명의 젊은 신학교 출신인 두안산(段珊)은 조용한 성격의 자매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지만 교회가 운영하는 조그만 진료소를 책임지고 있다. 한 달 간의 기본적인 의료훈련을 마친 그녀는 이제 감기나 설사 같은 간단한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진료소는 단순한 목조와 짚으로 만든 지붕으로 덮여 있는 간단한 건물이지만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진료소 내부에는 세 개의 병상, 그리고 지극히 기본적인 약 조제실과 집기가 있을 뿐이었다. 진료비는 전혀 없으며 환자들은 약값만 내면 된다. 환산은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으며, 단지 약을 판 수익금이 그녀 수입의 전부이다. 그러나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지경에 처해졌다. 교회에서 그녀의 조수로 훈련시킨 젊은 남성이 최근 자신의 진료소를 개업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소액의 진료비를 받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다. 그가 남성이고 두안산보다는 의료훈련을 더 많이 받

았기 때문일 것이다.

치유로 거듭난 탄멘

탄멘(譚緬), 어딜 보아도 그는 성공한 사업가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풀먹여 뺏뺏한 흰 셔츠에 단정한 옷 매무새를 한 이 젊은이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다. 새 집과 사업을 위해 50만 위안(元)을 투자하는 일을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기도 한다. 탄멘은 시창판나(西雙版納)의 징홍(景洪)에 사는 다이(傣)족이다. 이 지역은 신도수가 아직은 적지만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는 또한 평신도훈련반을 거친 최초의 다이족이기도 하며 최근에 장로가 되었다.

탄멘은 징홍에서 기독교의 활동이 다시 허가된 1988년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전에 그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하였는데 불교의식을 통해 고쳐보려고 시도를 거듭했으나 실패하였다. 그 때 그의 어머니는 몇 명의 할머니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튿날 그는 깨끗이 치유되었다. 그로부터 교회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자연스레 징홍교회에서 지도적인 인물로 부각되었다.

미팽신, 리루더, 리자신, 차야우, 두안산 그리고 탄멘. 그들은 각각 연령도 다르고 교육수준도 다르다. 더군다나 각기 다른 민족들이며 따라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 그리고 그들 자신의 계획보다 교회의 필요를 더 우선시한다는 면에서 그들은 무척이나 닮았다. 이들과 같은 사역자들이 현재 중국의 농촌 교회를 건설해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이들이 없다면 중국에서 기독교는 다시 소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출처/ '중국교회' 제4호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사상(8)

독립가정교회의 신학사상(III)

주피득

B. 독립가정교회에 영향을 미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신학사상

중국 독립가정교회의 신학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본고의 목적은 또 다른 각도에서 가정교회에 미친 주요 지도자들의 사상을 언급하는 데에 있다. 광저우(廣州)의 린셴가오(林獻羔) 목사나 허난(河南)의 쉬용쩌(徐永澤), 베이징(北京)의 위엔상친(袁相忱) 등 현존하는 몇몇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신학사상을 논하는 것이 좋겠으나, 본고에서는 왕밍따오(王明道)와 니튀성(倪柝聲:위치만니), 징몐잉(敬奠羸), 쑹상제(宋尚節) 네 사람의 신학사상을 논하려 한다.



중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왕밍따오의 모습.

1. 왕밍따오

왕밍따오는 니튀성, 쑹상제와 함께 중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 교회의 대중적인 신학사상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5·4운동이 일어난 후 당시 중국 내 서구 선교사들 중 자유주의 신학 전통을 지닌 사람들과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중국 기독교의 '시대적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교회 내에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퍼뜨리기 시작

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의 대변격인 자오즈 천, 사바아이는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였다.

(1) 성경화 사상

왕밍따오는 당시 적지 않게 퍼져 있던 자유주의 신학사상, 사회복음운동, 토착화 신학운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칠 것'을 주장하였다. '토착화'라는 단어를 거부하고 신학과 교회생활을 '성경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토착화 작업을 거부하였다. 당시의 선교사들은 지나치게 중국 교회를 무시하고 중국인 지도자를 양육하지 않았다. 외국 선교단체들이 인도하던 종파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왕밍따오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중국인을 위한, 중국인의 독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경건주의 사상

왕밍따오는 근대 중국 교회 경건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성도들이 영적 생명을 성장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죄를 물리치라고 가르쳤다.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증오하는 정신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경건신학의 핵심으로서, 그의 전도집회의 특징은 모두 죄악과 싸우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고난의 신학은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 곧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난을 받을 때에도 특별한 자기수양을 통해 죄에 대하여 강력히 맞서고 예수를 더욱 닮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와 기도, 회개 등의 자기수양을 강조하는데, 그의 이런 사상을 받아들인 중국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이 대부분 개인 영성추구에

만 관심을 쏟고 있다.

왕밍따오의 초기 사상에는 어느 정도 완전 성결주의적인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상은 교회가 부흥하는 때에 종종 나타나는 그릇된 감정의 산물이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연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깨달은 이후, 왕밍따오의 노선은 오직 은총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하였다고 한다.

(3) 변증적 사상

왕밍따오는 당시의 '불신파' 혹은 '신신학' (新神學: 자유주의 사상을 지닌 사람들과 교회들에 대해 그가 붙인 이름)에 대해서 변증적이였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서구 선교사들이 중국에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유입하였다. 선교사들 가운데 성경의 유오설(有誤說)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므로 교회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점차적으로 다윈의 진화론과 존 듀이의 실용주의 사상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왕밍따오는 서구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여 그들과 연합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변증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사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교회 내의 그 어떤 도덕적 부패보다 교리상의 부패가 교회의 영적 기초를 심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자유주의 신학사상에 대해 그가 가한 비난의 강도는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4) 정교분리

공산당과 정부가 교회를 지배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계속해서 정교분리를 주장하였다.



니튀성은 중국 교회의 토착적인 조직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기존의 신학과는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2. 니튀성(위치만 니)

기독교취회소(基督教聚會所, 지방교회라고도 불리운다)를 세운 니튀성은 왕밍따오, 쑹상제 등과 함께 전통적인 기독교 보수파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몇몇 소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신학은 중국 교회의 토착적인 조직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기존의 신학과는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1) 영적신학 사상

‘영적신학(屬靈神學)’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신학은 대부분 삼분설적 인간론에 근거한 것으로 ‘영적생명→영적기초→영적단체’의 단계로 설명되어진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의 본질은 신조(信條)나 전통, 예전이나 제도가 아닌 일종의 영적인 실체(一種屬靈的實際)로서, 그러한 영적 실체의 유무에 따라 참 기독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영적 실체는 성령의 계시에 의해 사람의 영에 만들어지며 사람은 직접 하나님과 접촉하여 ‘생명상의 교류(生命上的交流)’를 할 수 있다. ‘거듭나고 구원받는 일’은 바로 이런 영적 실체가 시작됨을 말하며, ‘성화를 추구함’은 이 영적 실체를 자라게 하는 것(實際的栽培)이 된다. 성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것 등은 모두 그 영적 실체의 기초가 된다. 성도는 먼저 자신이 이 영적 실체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 영적 실체를 교회에 공급할 수 있다(林榮洪, 1985:278-279).

니튀성의 사역 목표는 더 많은 영적인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켜서 여러 지역에 영적 단체 즉 ‘지방교회’를 세우는데 있었다. 지방교회를 세우는 것이 말세에 영적인 사람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곧 각 지역의 원칙에 따라 ‘순종’과 ‘권세’의 구호를 가지고 일체의

(5) 교회연합운동에 대한 무관심

믿는 사람들과 불신파(신신학과) 사람들과는 연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국 내 일반 교회와의 연합에 아주 소극적이었다.

(6) 4원칙

성경적이고 사도적인 모범교회를 위해 1925년 베이징에 「기독교회당」을 설립하였다. 교회자립과 올바른 신학, 바른 성경해석, 정교분리의 4개 원칙을 순교의 정신으로 지켜나가자고 강조하였다.

(7) 토착적인 중국자립교회 운동

서구 선교기관의 예속을 벗어나 진정한 중국의 토착 자립교회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전통적 교파주의를 버리고 진실한 영적 연합을 이룩하는 것으로, 지방교회의 모델은 안디옥교회와 예루살렘교회이다(林榮洪, 1985:279).

(2) 인간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인간론은 그의 신학 전체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그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살전 5:23, 히 4:12, 고전 2:14, 아 3:15 등)을 엮어서 영과 혼과 육의 본질과 그 기능을 주장하고 있다.

영과 혼과 육은 본질과 기능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영의 활동은 직관, 교통, 양심과 관련이 있고 혼의 활동은 감정(情)과 생각(知)과 의지(義)와 관련이 있으며, 육체는 인간의 외면 즉, 현상의 물질적인 부분을 가리킨다. 그의 삼분설적 인간론은 당시 유행하던 신학적인 관점과 성경의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고전적 세대주의 사상의 영향)을 한 데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인간론은 이론적으로도 성경 내용과는 다르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가르치는 이론이다. 그는 동질상통의 원칙을 고수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할 때 오직 인간의 영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영과 혼과 육은 서로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영, 혼, 육의 순서의 가치), 하나님은 인간의 혼과 육체와 접촉하실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의 주장과는 다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성부분 가운데 영의 영역에서만 역사하신다고 가르치는 곳은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삼분설이나 이분설이 아닌 총체론(일체론)이다.

성경은 심리학 서적이 아니며 인간 자체의 구

성을 분석해 놓지 않았다. 성경에 나타나는 영, 혼, 육의 표현들은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을 그렇게 묘사한 것으로 각각은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은 그것이 종교적인 면(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이나 사회성(사람과 사람의 관계), 심리성(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물리성(사람과 자연의 관계)이든지 모두 전인적인 관계이다. 종교적인 면과 관계된 것을 예를 들면, 성경의 어떤 구절에 “나의 육체가 주께 범죄하여”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그것은 ‘나’라는 인간 전체 즉, 육체만 범죄했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육체의 활동을 통해서 전체 인간이 범죄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3) ‘영’과 ‘혼’의 분리

니뮐성은 영적생명과 관계된 두 가지 과제를 말하였다. 첫째, “영과 혼은 꼭 나뉘어야 한다. 영력과 혼력은 꼭 구별해야 하며 성도들은 영을 좇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혼의 구원은 영의 구원과 다르다.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도에 의지해서 되어지는 일(히 4:12)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혼의 껍질을 부수고 영을 해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주장은 성경해석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할 뿐 아니라, 실제로 다루기 힘든 일이다. 만약 어떤 성도가 실제로 이런 교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원한다면, 자기 분석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이 혼에서 나왔는지 영에서 나왔는지를 항상 질문해야만 할 것이다. 니뮐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주관성이 있는 계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주관적 경험은 객관적 표준이 따로 있을 때 그것을 표준으로 진위여

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성경의 '영적의미(聖經的靈意)'는 일종의 주관적 체험일 뿐이다.

(4) 구원론

니튀성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죄에서 승리하면 곧 천국에 들어가는 '영의 구원'과, '혼'을 제거해 버리고 혼을 이기는 '혼의 구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혼의 구원'은 말일에 있을 상벌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인간론에 근거해 볼 때, '혼' 자체는 하나의 독립개체이므로, '혼을 잃어버린다'든지 '혼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 일종의 자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두 가지 구원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5) 성경해석의 원리

'讀經之法', '讀經之人', '以靈讀經'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가르치는 성경 읽기와 해석의 원리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 이유는 문자보다 영적 의미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문자보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그 무엇을 실제로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으며, 그가 소위 말하는 '양광(亮光)'과 '사의(私意)'의 구분이 어렵다. 니튀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성령, 성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어느 하나도 빠지게 되면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이고, 성령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다."고 말하였다.

삼원론에 근거한 일관된 그의 주장은 사역론이나 기독교론 등 대부분에서 지나치게 영해적인 삼원론적 논리로 인해 비성경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의 지방교회관 역시 성경 해석학이나 실천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오늘날 중국 교회 특히, 가정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물론 니튀성 자체는 이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그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이 성경해석상 문제가 많고 극단적인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에(즉 조금 더 나아가면 이단적 교리를 가르칠 위험을 보이는 여지가 있어서), 그의 후계자들 중에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예견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이미 중국 교회, 특히 대부분의 가정교회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심사숙고하여 다루어야 한다(林榮洪, 1985:278~300).

3. 정톈잉

정톈잉은 1926년 산둥(山東)성에서「예수가정」이라는 독립교회 일파를 설립하였다. 예수가정은 1900년대 초 중국 산둥성을 방문한 두 명의 여성 선교사(로라 딜렌백과 릴리안 브리어)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외부의 원조를 받지 않고 시작된 공동체이다. 현재 이 공동체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아직 그 영향이 조금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의「예수가정」은 정톈잉을 가장으로 하여 교회에 가입한 회원들을 한 가족으로 여겨 공동생활과 공동생산을 하였다. 외국 선교부로부터 일체의 원조를 거절하고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의 원칙을 강조하였는데, 농촌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발전하였다. 사유재산, 육신적 혈연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약혼과 결혼은 반드시 정톈잉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결혼한 후에도 동거는 허용되지 않았



송상제는 복음전도자이며 중국에 대대적인 부흥의 물결을 일으킨 시대적인 일꾼이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세련
되진 않았지만 두려움이
나 편중성이 없이 대중에게
선포되었다.**

다. 자녀양육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부모가 자녀에 대해 특별한 애정표현을 할 수 없었으며, 자녀들 역시 부모에 대한 감정이 깊지 않아 자연히 혈연적 가정관계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회 공동체생활을 통해 천국의 이상 사회를 이 땅에서 실현해 보려는 비현실적 이상을 추구하였다.

4. 송상제

존 스토틀 박사는 레슬리 라이얼이 쓴 송상제의 전기(傳記) 서문에서 '헌신된 사람, 능력의 소재를 알고 있던 사람, 진실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일한 사람'으로 그를 묘사하였다. 그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물론 그는 신학자나 사상가는 아니다. 그는 복음전도자이며 중국에 대대적인 부흥의 물결을 일으킨 시대적인 일꾼으로서 복음주의적 경건주의 신앙사상과 구령의 열정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는 니티성과 같은 사상가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15년 간 중국 국내와 동남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회와 교회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였다. 우리는 그의 위대한 사역에 나타나는 사역자로서의 모습과 사역

의 비결 등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에 대해 존 스토틀 박사가 표현한 것 외에 레슬리 라이얼(1974:215-217)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세련되진 않았지만 두려움이나 편중성이 없이 대중에게 선포되었다. 그의 설교는 근본적으로 본문 해석적이었고 성경적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에서 이탈한 자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그는 오늘날 중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1분도 허비하는 일이 없었고 여행 중이나 전도를 할 때나 잠시 여유라도 생기면 책을 보고 공부하며 연구하며 글을 썼다. 마치 자기 날이 계수된 사람처럼 일했다. 그는 자기 선전에 신경 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상관치 않았으며, 청중을 매혹하는 불과 같은 정열의 사람이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다. 그는 단점이 많았고 개성도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단점이나 개성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주피득/중국 선교사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14)

바오안(保安)족



바오안족의 노인과 어린아이의 모습

인구 : 12,212명(1990년 통계). 간쑤(甘肅)성과 칭하이(青海)성 일부를 합치면 현재의 바오안족 인구는 13,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간쑤성 지스산(積石山) 현 따허자(大河家) 향의 12,441명의 인구 중 바오안족은 1,601가구에 5,942명(1998년 따허자향 정부 통계)에 달한다.

분포 : 주로 간쑤(甘肅)성 서남부인 지스산 자치현(積石山保安族東鄉族撒拉族自治縣)에 거주하는데, 현 내의 간허탄, 따툰, 메이포 등의 마을에는 95% 가량의 주민들이 모두 바오안족이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산악지대(평균 해발 1900m)로 연중 최고, 최저 기온이 각각 30℃, 0℃ 안팎인 온화한 고산기후를 나타낸다. 바오안족이 이 지역에 정착한지 이미 130년이 넘었다.

언어 : 알타이어 계통의 몽구(蒙古)어 한자이다. 몽구어와 바오안족 언어는 서로 단어나 뜻이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 1980년대부터 한어(漢語)가 사용되고 있으나, 지스산에 살고 있는 바오안족만이 한어를 자기 민족 언어와 겸해서 사용하고 다른 촌에 있는 바오안족은 교육을 받은 젊은 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바오안어만 사용한다.

문자 : 바오안족 자체의 문자는 없고 한자를 사용한다.

민족 명칭 : 오래 전 바오안족은 “후이후이(回回)”나 “바오안런(保安人)”이라고 불렸으나, 공산정권 수립 후 1952년 3월 25일 중국 국무원에서 민족의 정식 명칭을 바오안족으로 결정하였

다.

바오안족은 원래 칭하이성 동린(同仁)현 안에 있는 우허(務河) 양쪽의 바오안, 자(加), 시아좡(下庄) 이 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바오안산좡(保安三庄)”이라고도 불렀다. 몽골군이 서쪽을 침략한 후, 일부 이슬람교를 믿는 색목인(色目人)을 “탄마처퀸(探馬車軍)”으로 편성하였다. 탄마처퀸은 규정에 따라 병사이면서 동시에 농민이었다. 전국의 전쟁이 끝난 후, 원나라가 탄마처퀸을 민적(民籍)에 넣어 민구(民口)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병사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과의 오랜 왕래를 통해서 차차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학자는 1954년에 실시된 언어조사 결과를 토대로, 명구족이 바오안족의 조상이었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풍습과 문화를 관찰해보면 오히려 후이(回)족과 가까운 면이 더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바오안족은 어떤 한 민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여러 민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 : 계단식 밭을 이용하여 주로 밀, 감자, 보리, 콩, 유채 등을 재배한다. 옥수수도 재배하지만 기후조건이 부적합하여 재배량은 많지 않다. 식량은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허리에 차는 바오안족의 전통 칼을 가공하여 내다 팔거나, 도시로 가서 노동을 해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바오안족의 평균 소득은 1년에 1인당 양식 285kg, 평균 소득 680위안(1998년 12월 31일 따쳐자향 정부 통계)으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빈부격차는 커서 부유층 5%, 중류층 15%, 빈곤층 80%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룬다.

음식 : 밀가루, 감자를 주식으로 한다. 이슬람교의 전통에 따라 돼지고기는 먹지 않으며, 기타 동물의 피도 먹지 않는다. 쌀밥을 먹기도 하지만, 벼농사가 불가능한 관계로 부유한 집에 서만 먹는다. 보통 중국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상차이(香菜)를 거의 넣지 않고 기름기도 적어 한국 음식 맛과 흡사하다.

의복 : 바오안족은 원래 전통의상을 중시하는 민족이다. 일반적으로 부녀자들은 머리를 얹어 수건을 두르며, 빨간색, 녹색, 자주색의 옷을 즐겨 입는다. 상의는 소매가 넓은 옷을, 하의는 꽃바지를 입고 수를 놓은 양말을 신는다. 결혼할 때 신부는 수놓은 화려한 색상의 치파오(旗袍: 치마 양 옆이 터진 원피스)와 바지를 입고, 머리에 공모양의 술이 달린 실로 뜬 꽃모자를 쓴다. 신랑은 예식모자를 쓰고 개량한 좡족(壯族) 의상을 입으며, 허리에는 붉은 띠를 두르고 통구두를 신는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하우모자라는 것을 쓰는데 노인들은 검은색, 청년들은 흰색을 쓴다. 더울 때는 소매 없는 옷에 양가죽 조끼를 걸치기도 한다. 날씨가 추울 때는, 옷깃이 옆으로 향한 솜옷에 양가죽 조끼나 외투를 입는다.

그러나 지금의 바오안족들은 전통의상 보다는 거의 현대식 복장을 하고 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모습은 부녀자들이 머리카락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흰 모자나 수건을 두르는 것이다. 그러나 모자의 모양은 유행에 따라 달라진다. 남자들 가운데도 일부는 이슬람식의 흰모자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들과 젊은 층은 거의 쓰지 않고 이에 대해 어른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듯 하다.



따려자향의 간허탄 마을, 이슬람 사원의 5층 높이의 탑. 탑 위의 스피커를 통해 코란 경을 읊는 소리가 온 마을에 퍼진다.

주거 : 나무와 벽돌, 시멘트로 지은 일(一)자형의 집으로 내부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중앙에 의자가 놓인 거실이 있고 양쪽에 침실이 있다. 침대는 방의 한쪽에 벽돌을 쌓고 온돌을 만들어 추울 때에 불을 지필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붕은 기와로 맞지붕과 반 맞지붕 형태를 띠고 있고, 담은 돌과 흙을 함께 사용한 토담으로 튼튼하게 하였다. 담의 높이가 지붕이 가까스로 보일 정도로 높는데, 이는 도둑을 방지하고 남자가 없는 집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부엌은 일자형 가옥 건물 옆에 있으며, 가축을 기르는 마구간은 집의 뒤편에 있고, 각 집마다 정원이 있어 과일나무와 꽃, 채소를 가꾸고 있다.

바오안족만의 풍습 중에 집안의 부부가 사는 방의 문 주변에 글자를 써서 붙여 놓는 것이 있다. 결혼할 때 양 대간(臺諫)과 문 위쪽에 결혼

생활을 축복하는 말을 써 붙인다. 한족의 풍습이기도 한 이런 것을 따르는 데 있어 이슬람사원과 마찰이 있지만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관 : 여성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사(家事)를 배워, 10세 정도가 되면 혼자서 밥상을 차린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 남성이 말하는 것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심지어 처녀는 신랑 될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하며, 단지 아버지의 판단과 신랑 될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만 혼인이 성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님이 방문했을 때에도 음식을 만들지만 할 뿐 접대는 남성이 해야만 한다. 그러나 손님 방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녀 겸상이 일반적이다. 또한 교육받은 여성의 경우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 발언권이나 집안에서의 위치가 나은 편이다.

결혼 : 중매 결혼이 대부분이나 젊은 층에서는 자유연애를 하기도 한다. 결혼의 일반적 조건은 가정형편, 종교(같은 종교와 교파), 외모 등이다. 결혼식은 주로 농한기에 올린다. 전통적인 결혼의 절차는 먼저 신랑측에서 신부에게 소례(小禮)라고 불리는 화장품, 귀고리, 머리끈, 옷감 등과, 대례(大禮)라고 하는 은 장신구와 여러 벌의 옷을 보낸다. 그 후 중매자와 신부의 아버지가 날짜를 잡으면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결혼식 절차는, 신부와 가족들이 헤어지는 의식을 한 후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시작한다. 양가 가족들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한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한다. 요즘에는 신부의 집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종교만 같다면 다른 민족과도 결혼할 수 있지만, 자식은 남자의 민족으로 등록된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가난할 경우

이혼도 가능하지만, 바오안족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이혼이나 재혼이 없다고 한다.

가정은 강한 가부장제이며,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다. 대가족이 많았으나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반드시 만자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고, 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부양한다.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친가 주변에 집을 지어 친족이 근처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장례 : 장례는 이슬람교의 규례대로 행해진다. 죽기 직전에 아홍(阿訇)을 불러서 축복기도를 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평안히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한다. 사람이 죽으면 나무로 만든 침대에 깨끗한 이불을 깔고 머리는 동쪽, 발은 서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집안 분위기는 침통한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떠들거나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슬람교의 관습대로 죽은 사람은 오후에 묻고, 저녁에 죽으면 그 이튿날 아침에 묻는다. 장례 시에는 몸을 흰 천으로 싸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덤을 만든다.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소금, 성냥, 차를 그 가족들에게 주고, 어른은 돈을 준다. 마을 안에 이슬람교를 믿는 바오안족만 묻는 공동묘지를 갖고 있다. 공동묘지 안에는 나무도 있고 약간의 둔덕 모양으로 무덤이 이루어져 있는데, 부유한 집안은 비석을 만들어 세우기도 한다.

제사는 주로 3대까지 지내는데, 부유한 가정에서는 그 이상의 조상에게까지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지내지 않고 기일에 모여 식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가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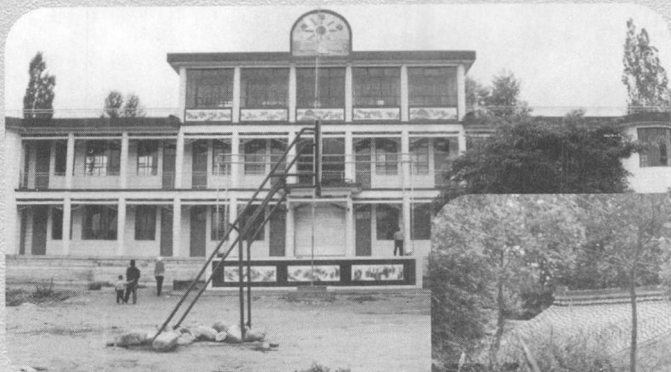


바오안족 마을의 가옥과, 그들이 아침식사로 즐겨먹는 음식

금기 : 이슬람교의 관습에 따라 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동물의 피와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않는다. 술, 담배도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어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라고 한다. 예의를 중시하며, 다른 세대나 이성끼리 춤추고 노는 것을 금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금기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절기 : 바오안족은 이슬람교를 민족 종교로 하기 때문에 명절 중에도 종교적인 명절이 많다. 시작은 종교의 절기로 하였지만, 역사 발전에 따라 현재는 종교 명절들이 민족의 전통명절로 정착하였다.

◆ **얼더제(爾德節) :** '카이치제(開齋節)' 라고도 부른다. '얼더(爾德)' 는 아랍어를 음역한 것으로 '회귀(回歸)' 와 '즐거움 명절' 이란 뜻이다.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은 낮에 금식을 하며 지



▲파허자항의 간허탄 마을의 소학교로 대부분 바오안족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바오안족의 여자들은 가사와 농사를 책임지고, 남자들은 외지로 나가 막일을 한다.

나는 라마단 금식기간인데, 이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이 바로 이 명절이다. 열더제는 바오안 민족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명절로서, 이 날은 남녀노소 모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흥겹게 지낸다. 각 가정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남자들은 목욕을 마친 후에 이슬람 사원인 청진사(清真寺)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며 어떤 사람은 조상의 무덤에도 가서 기념한다.

◆ 구얼빵제(古爾邦節): '구얼빵(古爾邦)'이라는 말은 '희생(犧牲)'이란 의미다. '샤오얼더제(小爾德節)'나 '수이선제(贖身節)'라고도 부르며, 한족은 이날 짐승을 잡는다고 해서 '짜이싱제(宰牲節)'라고도 부른다. 이슬람력으로 매년 12월 10일인 이 날은 각자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양이나 소를 죽여 제사를 지내는데,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은 닭이나 토끼를 잡아 제사를 지낸다.

◆ 성지(聖紀): '성지(聖紀)' 역시 종교적인 명절로서, 이슬람교의 선지자 마호메트의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은 대체

로 1월 중에 있는데, 이슬람력을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고정된 날은 아니다. 이 날은 주로 집단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여한다.

◆ 랑산제(浪山節): 이날은 종교와 관계없는 절기로서, 바오안족들이 랑산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랑산으로 가서 계곡이나 언덕 등지에서 하루를 즐기는 것이다. 이 절기는 일반적으로 5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지킨다.

교육: 간쑤성의 바오안족에게는 메이포, 파툰, 간허탄 마을에 각 1개씩의 소학교(초등학교 과정)가 있다. 그러나 간허탄에 있는 소학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밖에 없어, 메이포에 있는 소학교에서 5학년 과정을 마쳐야 한다(깊은 산골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소학교가 5년 과정인 곳이 많다). 중학교는 파허자항에만 1개가 있어 바오안족 학생들은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리는 향으로 중학교를 다녀야 한다.

일반적 상황: 각 마을에 한 개씩의 보건소가

있는데, 의료진도 갖춘 현대식 소규모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용 가능하며, 수도 시설도 마을 공동으로 이슬람 사원 앞에 우물을 만들어 사용한다. 하지만 부족한 수로시설과 가뭄 등으로 인해 물이 매우 부족해서 잘 씻지 못한다. 그러나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슬람 사원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오안족이 주로 사는 간쑤성과 칭하이성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다. 또한 간쑤성의 바오안족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도 그리 많지 않고, 이 민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매우 적기 때문에 바오안족 사회의 변화 속도는 느린 편이다.

종교 : 바오안족은 100%가 이슬람 교도이다. 신교와 구교 중 구교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보통 한 마을의 중심에 하나 이상의 이슬람 사원인 청진사가 있으며, 이 사원에서 경전인 코란을 가르친다. 이슬람교 외의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오랜 전통으로 인해 이슬람교를 믿고 있을 뿐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간쑤성 지스산현 파허자향 깐허탄 마을의 이슬람 사원에서의 예배 시간은 15분 정도이며, 오전 5:30, 오후 1:30, 5:30, 8:30, 9:30에 각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여성은 사원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집에서 스피커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 또한 청진사에는 3층 짜리 탑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이크로 경전을 읽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진다. 이슬람교는 코란에 따라 전도를 행하고 있다.

이슬람교의 종교적 지도자인 아홍은 장례식이나 생일 때 복을 빌어주는 일과, 이웃이나 개

인의 문제를 권위를 가지고 해결해 주는 일을 한다. 그 밖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브라함, 소피아, 하세느 등과 같은 코란 경전에 나오는 이름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호적에 올리는 이름은 일반 중국식 이름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은 가족 내에서만 사용한다.

기독교 : 선교기록이 없는 미전도종족이다.

※ 바오안족 거주 지역에 가려면

서울에서 베이징(北京)으로, 베이징에서 열차를 타고 란저우(蘭州)로, 란저우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지스산현까지 간 후 다시 바오안족이 사는 마을로 가면 된다.

기도제목

1. 형식적으로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들이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2. 바오안족을 향한 복음전도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3. 복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돕는 이들이 생겨나도록.

참고서적

1. 保安族簡史
2. 保安族, 民族出版社
3. 中華民族, 華夏出版社
4. 中國少數民族概觀, 天津古籍出版社
5. 中國少數民族節會大觀, 江西教育出版社
6. 中國少數民族禁忌大觀, 廣西民族出版社
7. 中國少數民族宗教概覽, 中央民族出版社

자료제공/ 한동대 차이나 필드 리서치팀 2기
보충정리/ 김중하 · 중국 선교사

중국의 관문도시(11)

북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창춘(長春)



창춘시는 지린(吉林)성의 성도(省都)로서 지린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다. 또 전체 도시의 37.2%가 녹지이며 문화, 생활공간이 풍부한 곳이다. 95년엔 35ha의 대지에 창춘 영화성을 지어 영화촬영의 기지로 자리잡았다. 창춘은 '동북지방의 선교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북음사역 면에서도 중요한 거점도시이다.

인구 및 행정구역

창춘시 인구는 680만여 명(97년 통계)인데, 이중 시내(市區)의 인구가 280만여 명, 현(縣) 인구는 400만여 명이다. 시의 총면적은 18,881km²인데, 시내의 넓이만 3,577km²이다.

행정구역은 5개 시구(市區)와 2개의 현급시(縣級市), 3개 현(縣), 150개의 향(鄉)과 진(鎮)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춘 전체인구의 1/3은 이 5개의 시구와 2개의 현급시에 거주하고 있다.

시구: 난관구(南關區), 관청구(寬城區),

차오양구(朝陽區), 얼따오구(二道區),

뤄위엔구(綠園區)

현급시: 쌍양구(雙陽區)의 지우타이시(九臺市),

위슈시(榆樹市)

현: 더후이현(德惠縣), 농안현(農安縣),

쌍양현(雙陽縣)

기후

계절풍의 영향으로 겨울이 길고, 봄에는 바람이 많으며, 여름엔 따뜻하지만 짧고, 가을은 맑지만 기온 차가 크다. 연평균 기온은 4.8℃이며, 최고 기온은 39.5℃, 최저기온은 -39.8℃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567mm이다.

교통

철도로는 베이징(北京)에서 약 15시간, 하얼빈(哈爾濱)에서 3시간 30분, 선양(沈陽)에서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항공편으로는 베이징(北京)에서 1시간 30분, 상하이(上海)로부터는 2시간 30분, 광저우(廣州)에서는 4시간이 소요된다. 철도는 베이징, 선양, 창춘, 하얼빈, 모스크바 경유 노선과 창춘-홍콩 노선이 있다. 그 외에 베이징, 톈진(天津) 등 전국 주요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역사

창춘은 금(金), 요(遼), 원(元), 청(靑), 만주국이 세워졌던 곳이고, 이들이 전쟁을 치른 역사의 무대였다. 그러나 창춘은 1800년에 청조가 '창춘청'이라는 지방행정기구를 설립한 후부터 발전하여 1865년 처음 성을 쌓았는데, 1883년에는 인구 9만에 불과하였다. 1896년 러시아가 침략하여 철도 건설권을 장악하였고, 1906년 러일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제가 권한을 장악하였다. 1908년 일제는 만주철도 부속지를 확대하고 창춘역을 지었다. 당시 시의 크기는 21km²였고 인구는 15만이었다. 1931년 9·18 만주사변 후 창춘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1932년 3월 일제는 만주국을 세우고 창춘을 '신경(新京)'으로 개명하였다.

1944년 시의 면적은 80km², 인구 82만이었는데, 1946년 5월부터 국민당이 장악하여 시의 인구는 17만 명으로 감소했다. 공산화 이후 1954년부터 지린성 성도로 지정되어 이듬해에 전국 10대 도시로 지정되었고, 79년부터 중국의 15대 경제중점 도시가 되었다. 중국산 자동차 제조로 유명한 창춘 제일자동차제조공장(第一汽車製造廠)은 만주국 당시 관동군의 세균제조공장이었다.

경제

창춘에는 석탄, 석회암, 진주, 동, 은, 철 등 광물 외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일정량 매장되어 있으며, 공업과 농업이 비교적 균형있게 발달되었다. 91년까지 3,065개의 공업기업이 있으며 공업 총생산액은 178.9억 위안(元)에 달하였다. 이는 지린성 전체 공업생산액의 1/3을 차지하는 액수이다. 특히 교통운수설비 제조공장은 중국 전체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전국 13%), 창춘 제일자동차제조공장은 중

국 자동차 생산의 1/5, 창춘열차공장(長春客車廠)은 철도 생산의 1/2, 창춘트럭공장(長春拖拉機廠)은 중국 3대 트럭공장의 하나로 전국의 1/10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외에 현지의 자원과 조건을 이용한 곡물가공, 하이테크, 석유화학 공업이 발전하였다.

농업은 평탄한 지형과 비옥한 토지의 자연조건 하에 옥수수, 콩, 쌀, 수수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국가의 주요상품 곡물기지 및 옥수수 수출기지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들어 축산업의 생산이 증대되고 있다.

1988년부터 창춘 신기술산업개발구(長春高新技術產業開發區)가 설치되었다. 이곳은 통신, 금융, 상업 등 기초시설 등이 잘 갖추어졌으며, 교통이 편리하여 시내의 역이나 호텔, 공항 등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이 개발구 내에 18개의 대학, 39개의 국가급 연구기구, 12개의 설계센터, 8개의 계산 및 실험센터 등이 있다. 창춘시는 90년도부터 외국투자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기독교 상황

창춘시는 최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파룬궁(法輪功) 교주 리홍즈(李洪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훨씬 이전부터 기독교 신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온 곳이다. 창춘에는 공식적으로 4개의 이슬람 사원, 2개의 카톨릭 성당, 그리고 2개의 한족 삼자교회가 있다. 이 두 교회는 신도 수가 만 명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여서, 한 주간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500~600명 가량 될 정도이다. 이들 한족 교회들은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헌금을 통해 교회를 건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공식으로 운영되는 조선족 삼자교회는 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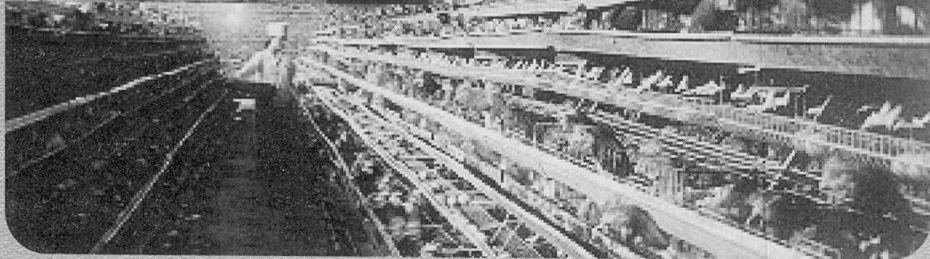
가 있는데, 200여 명 정도의 신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 외에 다수의 가정교회가 장로 등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4명의 장로가 회의를 거쳐 지도자를 양육시킨 후, 인근 지역으로 파송하여 다른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형태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00명 이상 모이는 가정교회도 많기 때문에, 이들 가정교회 지도자를 양육하고 지원하는 외국인 사역자들도 많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창춘시에는 탈북 동포들도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이 사역을 진행하던 사역자들이 공안에 체포되어 오랜 기간 감금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창춘은 지리적으로도 동북삼성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중국선교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한국인 사역자 체포 등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중국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심어야 한다.

기도제목

1. 창춘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다른 지역 선교도 감당할 수 있도록.
2. 최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 동역자들을 위로하시며, 심령을 더욱 강하게 하시도록.
3. 지식인과 대학생, 고위층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을 많이 세우시도록.

연지 (延吉)



연지시는 지린성 동부에 위치한 연변 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의 주도(州都)로서, 연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다. 연변은 지린성 동쪽에 위치하여 북한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지린성 조선족의 90%가 이 자치주에 살고 있다.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들리는 곳으로, 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거쳐 왔다.

인구 및 행정구역

연지시 총인구는 38만 명으로, 전체 자치주 인구의 17.4%가 이곳에 살고 있다. 이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90.6%에 달한다. 연지시 인구의 59%가 조선족이다.

총면적은 1,340km²인데 시구(市區)의 면적은 23.8km²이다. 이중 산지가 78%이고 경작지는 9%밖에 안 된다. 연지시에는 9개의 거리와 4개의

향, 2개의 진(鎮), 그리고 200개의 주민위원회와 66개의 촌민위원회가 있다. 투먼(圖們), 둔화(敦化), 룡정(龍井), 훈춘(琿春) 등 4개 시와 허룡(和龍), 안투(安圖), 왕칭(汪清) 등 3개 현(縣)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한 및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에 있어서 일찍이 중국, 북한, 러시아 간의 삼자무역이 활발히 전개된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두만강 유역 개발과 함께 국제무역의 거점도시로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기후

온대 기후로 여름엔 고온다우하고, 가을엔 시원하며 겨울은 춥고 길다. 연평균 5.7℃로 최저 기온은 -32.7℃이고, 연 강수량은 550mm이다.

교통편

훈춘에서 텐진(天津), 베이징(北京), 창춘(長春), 선양(沈陽)간 열차가 연지를 경유하여 하



새로 지은 연지교회(상)와 옛날 예배당의 모습.

루 12회 운영되고 있으며, 두먼, 훈춘 간의 철도, 러시아의 마하린까지의 철도가 운영되고 있다. 도로는 훈춘의 장링즈(長嶺子)를 거쳐 자르노비항까지 있고, 청진항으로 가는 도로가 룡징, 북한의 회령을 거쳐 이어진다. 항공편은 베이징, 선양, 따론편(大連), 창춘행이 취항하고 있다.

역사

예전에는 연지를 '난강(南崗)', '연지강(煙集崗)' 이라고 불렀다. 1875년 이전까지만 해도 산 짐승들이 나올 정도로 깊은 삼림지대였는데, 1881년 청나라가 이곳에 '초간국(招墾局)' 이라는 관청을 설치하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연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34년 동북을 강점한 일본이 연지를 '간도(間道)' 로 고치고 이곳을 자원약탈과 동북침략의 근거지로 삼으면서부터이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한 이후, 46년에서 48년까지 중국 공산

당 지린성위원회가 이곳에 위치해 있다가, 1952년 9월 연변 조선족자치주가 설립된 후부터 자치주의 직할시가 되었다.

경제 현황

연지에는 철, 동, 석탄, 금, 몰리브덴, 목재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고, 석유는 1억 톤이 넘게 매장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기계, 시멘트 공업이 비교적 발달하였다. 이밖에도 건축자재, 건축재료, 야금, 석유화학, 동력자원 등의 산업이 발달하였다. 연지시는 연변 지역 공업 생산액의 26%를 차지하는 신흥 공업도시이다.

총생산액 중 4.7%만이 1차 산업이고, 2차 산업이 59.9%, 3차 산업이 35.3%를 차지한다. 수입에서도 농업은 5.5%임에 반해, 공업이 65.2%, 건축업이 7.9%, 운수·통신업이 3.7%, 상업, 요식업이 17.7%를 차지하여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음을 볼 수 있다. 농업 총생산액은 지린성 전체의 0.4%밖에 안되며, 그 비중은 농업이

66.2%를 차지하고 축산업이 30%를 차지한다. 제2차 산업은 점점 쇠퇴하는데 반해, 3차 서비스업은 98년 17.5억 위안으로 78년에 비해 그 규모가 14배가 증가하였다.

옌지시는 동북의 교역 중심지이고 조선족 특산품의 집산지로 유명하다. 특히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91년 9월 9일 개교한 옌벤과학기술대학(延邊科學技術大學)은 중국과 한국 간의 합작교육을 통해 문화 및 경제, 기술교류를 증진하고 있다.

옌지시는 국제 교류를 위해 인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 3시간 거리에 있는 북한의 청진항을 옌지시 전용항으로 임대하여 화물 수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옌지시 인민정부에서는 '옌지 소수민족 개혁 개방 특별시험구'를 설치하여 동광 공업기지개발구, 모아산 관광구, 신평고 신기술개발구, 의란 축산업개발구를 지정하였다.

기독교 상황

옌지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것은 1903년 영국의 한 선교사에 의해서였다. 그 이후 이 일대에 뿌리내린 기독교는 점차 발전하여, 30년대 초 허룡(和龍)현에만 17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신도가 1,800여 명에 이르렀다. 훈춘의 신도 수는 5,000여 명에 이르기도 했다.

천주교도 1906년 독일인 신부에 의해 전파되어, 40년대 초엔 신자가 14,800명에 이르렀다. 65년 통계에 의하면 당시 천주교인이 2,700여 명, 기독교인이 2,100명, 불교승이 3명이었다고 한다. 현재 27명의 종교계 인사들이 성, 자치주, 시 인민대표 또는 정치협상회(政協)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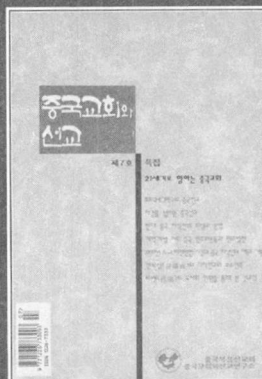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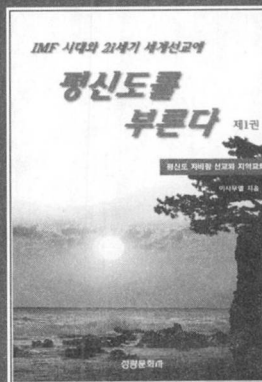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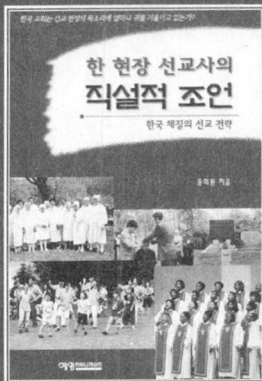
대표적인 삼자교회인 옌지교회(延吉教會)는 조선족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12,000명의 성도

를 자랑하는, 옌벤 전 지역을 포괄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교회이다. 옌지교회는 룡징교회, 왕청교회 등 옌벤 지역 다른 교회들을 관리한다.

옌지는 백두산을 가기 위한 경유지로 한국과 많은 관계를 가진 곳이며, 조선족이 이 지역 문화,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 사업가들이 드나들면서 돈을 물쓰듯 하고, 조선족 현지처를 두는 등 한국인에 대한 나쁜 인상을 남겨놓은 부정적인 경우도 많았다. 최근에는 북한 처녀들이 조선족이나 한족들과 결혼하여 거주권이 확보되면 도망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민의 사역자들이 영향받지 않고, 거룩하심으로 보호받도록 기도하자. 이 지역에서는 조선족을 상대로 한 유치원이나 양로원, 장애인 사역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도제목

1. 옌지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녹아져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주변의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로 서도록.
2. 이 곳의 사역자들이 사단의 속임에 빠지지 않고 매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3. 이 곳의 조선족 동포와 탈북 동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듣고 구원을 얻도록.



한 현장 선교사의 직설적 조언

윤희원 저 · 예영커뮤니케이션 · 244쪽 · 7,500원

저자는 이미 『한 무명 선교사의 역설적 조언』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한국 체질에 맞는 선교 전략의 방향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책은 최근 몇 년 간 한국의 경제 기반이 흔들리면서 표류하고 있는 한국 선교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현장에서의 자세, 세계선교를 위하여 한국 교회가 짊어져야 할 선교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한국 체질에 맞는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하는 현장 선교사들의 현실과 고뇌를 통찰하면서, 주제적인 선교이론과 작업을 시도하고, 나아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사랑을 담은 조언을 해 주고 있다.

IMF시대와 21세기 세계선교에 평신도를 부른다

이사무엘 저 · 성광문화사 · 324쪽 · 7,000원

2권으로 된 이 책은 평신도 자비량 선교를 성경적 · 역사적 ·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성경과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에서의 평신도 자비량 선교의 예를 제시하며,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평신도 자비량 선교의 유형들을 실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교역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지역교회와 초교파 선교단체 간의 협력문제에 대하여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언급하고 있다.

중국교회와 선교(제7호)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 324쪽 · 7,500원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에서 『중국교회와 선교』제7호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1년에 두 번 발간되고 있는데, 이번 제7호 특집주제는 '21세기로 향하는 중국교회'이다. 필진으로는 조나단 차오(CIM 국제총재), 랑자린(홍콩 지엔따오(建道) 신학교), 싱푸쥔(홍콩 지엔따오(建道) 신학교), 천레이(대만 따오성(道生) 신학교) 등이다.

또한 현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의 중국 가정교회, 삼자교회, 조선족교회에 대한 비전을 다루었으며, 중국 사회문제로는 중국 민주화, 지식인, 지식인 기독교 개종과 소수민족과 관련된 티베트 및 소수민족에 관한 글, 그리고 종교자료가 실려있어 중국선교 관심자나 헌신자들이 창조적인 선교전략 등을 모색하는 데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황하에서 천산까지

김호동 저 · 사계절출판사 · 220쪽 · 9,000원

이 책은 중국 전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4대 소수민족인 티베트족, 회족, 몽골족, 위그르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들 각 민족들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접해 있었던 까닭으로 몽골처럼 한때 중국을 지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강력한 중국의 힘에 눌려 계속된 간섭 하에 놓여 왔다. 따라서 이 책은 이들 각 민족들이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 속에서 갖게된 애환과 계속된 패배 속에서도 버리지 않는 소망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중국 소수민족들의 종교가 그들의 역사와 삶, 정신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 소수민족 선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난징대학살

아이리스 장 저 · 김은형 역 · 도서출판 끌리오 · 320쪽 · 12,000원

『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일본의 끔찍한 만행에 대한 보고서이다. 대학살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중국인의 손녀인 아이리스 장은 생존자들과의 심층적인 인터뷰와 새롭게 발견된 4개 국어의 문서들을 토대로 이 글을 썼다. 이 책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씌어져 사실감을 더하며, 특히 화보로 구성된 사진들이 당시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전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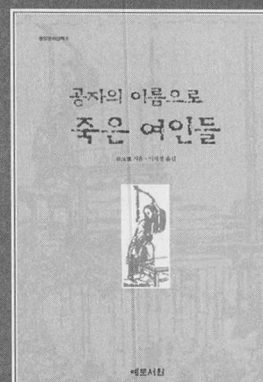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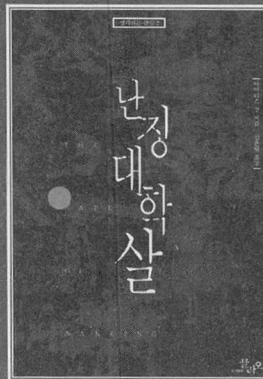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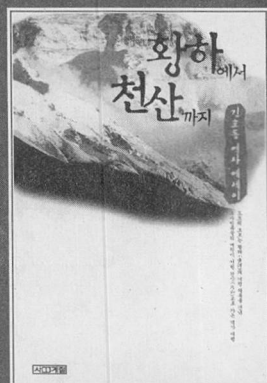
“20세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로, 전세계 전쟁을 다룬 책 중 고전으로 자리매김이 될 것이다.”라고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낸시 톡(Nancy Tong)이 극찬을 한 이 책은, 수십년 간 일본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해 온 사건을 역사 속에 되살려 놓았다.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田汝廉 저 · 이재정 역 · 예문서원 · 248쪽 · 7,500원

이 책에는 정절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수절하거나 자결한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한 여인은 남편이 죽자 따라 죽겠다고 결심하는데,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이를 만류하기는 커녕 오히려 잘한 선택이라고 자랑스러워한다. 결국 그 여인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그 고을의 이름을 높이면서 굶어 죽어 간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여성의 정절에 대한 강요나 자결 행위가 순전히 유교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유교의 개창자인 공자는 사람의 생명을 희생물로 삼는 어떠한 의식에도 반대했다. 공자는 산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을 대신하던 나무인형(俑)을 망자와 함께 묻는 장례 풍속조차 극렬하게 비난했다. 유학은 생명의 가치와 더불어 삶을 영위해 가는 현세적인 삶의 유의미성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수절과 자살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동양 중세 사회의 현상을 오로지 유교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비록 겉으로는 공자(유교)의 이름을 내세우며 행동하고 표창하기는 했지만, 그 심층에는 오히려 그 시대의 특징적인 사회·경제적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저자의 논의의 출발점이다.





선교 게시판

해외 선교 단체 정보

오픈도어선교회 성경전달 사역

중국

기간: 2000년 2월 중(5박 6일)

경비: 65만원

신청마감: 2000년 1월까지

중동

기간: 2000년 2월 중(2주)

경비: 170만원 (예상)

신청마감: 2000년 1월까지

인도차이나

기간: 1999. 12. 13(월)~18일(토)

경비: 65만원

신청마감: 1999. 11. 13(토)까지

* 모든 경우 비자 수수료는 별도 청구.

문의처: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Tel: 02-486-3171~2)

KRIM ART

"컴퓨터 맵핑(mapping) 워크숍"

선교사역 도중 당면하는 문제나 선교단체의
특정전략을 훈련생이 직접 연구 프로젝트로
만들어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일시: 1999. 12. 6(월)~10(금)/ 5일간

장소: GMF 안산센터(변경 가능)

회비: 미정

문의: KRIM(Tel: 0345-408-8294)/ 이정표 간사

제3차 단기 P&M 사역

사역지: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

기간: 99. 12. 20(월)~27(월)

참가인원: 선착순 0명, 의료인과 비의료인

경비: 130만원(국민은행 081-25-0016-538)

사역내용: 이동진료 사역, 중보기도를 통한

치유사역과 교회개척

신청마감: 99. 11. 30(화)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문의: 인터콥 M&M 배미라 간사

(Tel: 02-796-3541~2)

중국선교 세미나

주제: 현대 중국 사회의 부패 문제

강사: 박미진 (본 연구소 연구주임)

일시: 1999. 10. 28(목) 오후 7시

참가비: 5천원

문의: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Tel: 02-318-6867)

'99 선교인천

일시: 99. 11. 8(월)~11(목) 저녁 6시 30분
장소: 인천 송월장로교회(Tel: 032-765-7851)
주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 14:12)

내용: 세계선교의 흐름과 나의 동참, 특수선교에 대한 이해와 동참, 후원에 대한 이해와 준비·실천에 대하여

선택특강: 영적전투, 미전도종족선교, 선교와 문화, 해외캠퍼스사역, 인터넷선교, 국내 외국인 선교, 전문인 선교, MK선교 등

강사: 정민영(GBT 공동대표), 유병국(한국 WEC 대표), 김용기(태권도 선교사), 정제순(GBT), 김선정(교사선교사), 김교철(중국선교연구협회 회장), 이영재(KCM) 그 외 다수

회비: 2만 원

주최: 인천 해외선교단체연합회(중국어문 선교회, 엘림해외봉사선교회, AAP, 예수생명운동, 연안선교회, WEC, 외향선교회, GMP, GBT)

문의: 인혜연 사무실

(Tel: 032-863-1231, H.P: 019-282-1419)

중국 연구모임

중국에 관심이 있고 중국의 제반상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과 연구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이로 야기되는 제반문제들을 연구하여 중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올바른 선교적 접근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중국 경제발전과 제 문제

일시: 99. 10. 2~12. 11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12:00

문의: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Tel: 02-318-6867)

EAM 선교사 후보 모집

동아시아선교회는 21세기 중국선교에 동역할 선교지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원: 정식지원자 5명/ 예비지원자 20명

사역분야: 신학교육/지도자교육

학원선교/제자훈련

행정사역/현지 및 본부사무실

교회교육/청소년 교육

자격요건: • 중국선교의 소명이 분명한 사람

- 교회나 기독교단체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일해 온 사람
- 본회의 선교사역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

선발과정: 예비지원서 제출/심사

정식지원서 제출/심사

성경 및 교리시험

(신대원 졸업자는 제외)

인선위원회 면접(최종심사)

문의처: 동아시아선교회(Tel: 02-878-3750)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기도합주회: 매월 첫째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사무실

중국어교실: 초급반(화, 목)/중급반(월, 목)

오전 10:00~12:00, 약 3개월 과정

선교중국어교실: 주 1회(금).

오전 10:3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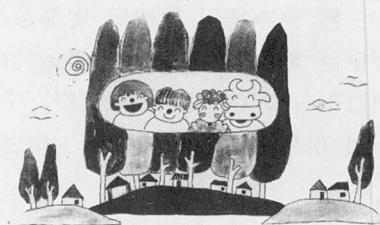
중국선원사역: 중국 배 승선전도.

주 2회(화, 금). 자원봉사자 모집 중

문의처: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Tel: 032-762-0748, H.P: 011-244-1106)

E-Mail: bauri@chollian.net



为受逼迫的教会祷告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主耶稣啊! 你是我们的好牧人, 你的杖和你的竿都安慰我们。
zhǔ yēsū a nǐ shì wǒmen de hǎo mù rén nǐ de zhàng hé nǐ de gān dōu ānwèi wǒmen

祢曾应许要与我们同在, 直到世界的末了。
nǐ céng yīngxǔ yào yǔ wǒmen tóng zài zhídào shì jiè de mò liǎo

我们相信祢会帮助祢的教会, 成就祢的应许。
wǒmen xiāngxìn nǐ huì bāngzhù nǐ de jiào huì chéng jiù nǐ de yīngxǔ

祢的教会尚在争战中, 祢是我们的元帅, 祢晓得我们的软弱。
nǐ de jiào huì shàng zài zhēngzhànzhong nǐ shì wǒmen de yuánshuài nǐ xiǎo de wǒmen de ruǎnrǎo

求祢坚固祢的教会, 使它能成为圣洁,
qiú nǐ jiāngù nǐ de jiào huì shǐ tā néngchéngwéishèngjié

又靠着祢的大能大力打那美好的仗,
yòu kǎo zhe nǐ de dà néng dà lì dǎ nà měihǎo de zhàng

胜过一切的患难和仇敌的攻击, 直等到祢一切的仇敌都作了祢的脚凳。
shèng guò yīqiè de huānnàn hé chóu dī de gōngjī zhí děngdào nǐ yīqiè de chóu dī dōu zuò le nǐ de jiǎo dèng

愿祢的国降临。主耶稣啊! 我愿祢来。奉主耶稣的名祷告, 阿们。
yuàn nǐ de guó jiànglín zhǔ yēsū a wǒ yuàn nǐ lái fèng zhǔ yēsū de míng dǎogào ā men

주 예수님, 당신은 우리들의 좋은 목자이시며,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일찍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도우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견고케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시고,

또한 교회가 주님의 크신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잘 싸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원수들이 당신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교회가 모든 환란과 원수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挽回祭(화목제물)

wǎn huí jì

A : 神是只会惩罚罪人的一位可怕的存在吗?
Shén shì zhǐ huì chéngfá zuì rén de yí wèi kě pà de cúnzài ma

A :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기만 하는 무서운 분이신가요?

B : 罪本身要受到审判与刑罚。神却是爱罪人的。
Zuì běnshēn yào shòudào shěnpàn yu xíngrǎ shén què shì ài zuì rén de

B : 죄 그 자체는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A : 圣洁的神怎么能爱犯了罪的人呢?
Shèngjié de Shén zěnmě néng ài fàn le zuì de rén ne

A :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범죄한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나요?

B : 所以说神的爱是绝对和奇异的。神在我们因犯罪而成为神的敌人时，他差耶稣做了我们的挽回祭。
Suǒyǐ shuō Shén de ài shì juéduì hé qíyì de Shén zài wǒmen yīn fàn zuì ér chéngwéi Shén de dǐ rén shí tā chāi Yēsū zuò le wǒmen de wǎn huí jì

B :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기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A : 你是说耶稣是代替犯罪的人类受了惩罚?
Nǐ shì shuō Yēsū shì dài tǎi fàn zuì de rénlèi shòu le chéngfá

A : 예수님이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B : 是的。借着耶稣，我们得与神和好，不再惧怕神，而与神亲近了。
Shì de Jièzhe Yēsū wǒmen dé yǔ Shén héhǎo bú zài jùpà Shén ér yǔ Shén qīn jìn le

B :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 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除 祢 以 外

#3 5 6 5. #3 #3 5 6. #7 6 5 #3 5 1
 除 祢 以 外, 在 天 上 我 还 能 有 谁? 除 祢
 chú ní yǐ wài zài tiān shàng wǒ hái néng yǒu shéi chú ní
 추 니 이 와이 짜이 티엔 샹 워 하이 녕 요우 쉐이 추 니

#3 2. 5 5 1 2 #3 2 #3 5 #3 5 6 5. #3 #3 5
 以 外 在 地 上 我 别 无 眷 恋。 除 祢 以 外 有 谁 能
 yǐ wài zài dì shàng wǒ bié wú juàn liàn chú ní yǐ wài yǒu shéi néng
 이 와이 짜이 떠 샹 워 비에우 쥐엔리엔 추 니 이 와이 요우 쉐이 녕

6. #7 6 5 #3 6 1 #3 2. 6 6 1 2. 3 2 6 1--
 擦 干 我 眼 泪? 除 祢 以 外 有 谁 能 带 给 我 安 慰?
 cā gān wǒ yǎn lèi? chú ní yǐ wài yǒu shéi néng dài gěi wǒ ān wèi?
 차 간 워 이엔레이 추 니 이 와이 요우 쉐이 녕 파이 게이 워 안 웨이

#3 2 1 1 2 #3. 5 6 6 5 #3 - 2. 1 6 #3
 虽 然 我 的 肉 体 和 我 的 心 肠 渐 渐 地 衰
 suī rán wǒ de ròu tǐ hé wǒ de xīn cháng jiàn jiàn dì shuāi
 수이 란 워 디 로우 티 허 워 디 신 창 짜엔 짜엔 디 쇠이

2 - #3 2 1. 2 #3 5 5 6. 5 #3 #3 2 #3 2 2 #3 2 6 1--
 退 但 是 神 是 我 心 里 的 力 量 是 我 的 福 份 直 到 永 远
 tuì dàn shì shén shì wǒ xīn lǐ de lì liang shì wǒ de fú fèn zhí dào yǒng yuǎn
 투이 단 스 셴 스위 신 리 디 리리양 스위 디 푸 편즈 따오 용 위엔

새 일꾼을 찾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연구부 간사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
시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판 · 연구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지금
즉시 출판 · 연구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 02)533-5497, 석은혜 선교사

동아시아선교회에서 선교사 후보를 모집합니다.

21세기 중국선교에 동역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정식지원자: 5명
예비지원자: 20명
사역분야: 교수요원, 학원선교,
행정사역, 교회교육

문의: 동아시아선교회
☎ 02)878-3750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간사를 찾습니다.

인천항 중국 선박에 올라가 중국 승무원들
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전임사역
자(간사)를 찾습니다.
중국선교에 소명을 받은, 중국어 구사 능
력이 있는 분을 환영합니다.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 032) 762-0748 정선영 선교사
H.P 011-244-1106

단기 선교사를 찾습니다

1. 사역지: 동북아시아 A국
2. 사역기간:
2년 이상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3. 사역분야:
-피아노 교사
- 제과제빵 기술자 및 관리자
-원예농장
(나무와 꽃, 농작물 재배 협력자)
-유치원교사(전공자 및 경력자)
-초등학교 교사
-도서관 사서
-Coffee shop staff
4. 자격: 각 분야 기능직
5.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 02)793-7769(직통),
02)794-5100(교환202)

사역 중국어 과정 수강생 모집

중국어는 어느 정도 준비되었으나 직접 사역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곧 선교지에 나가고자 하는 분을 위해 사역 중국어 과정을 개설합니다.

교육일정: 학기당 20주, 1년 2학기

수업시간: 주 2회(화·목)

※수요일에는 중국어 예배를 진행합니다.

개 강: 99년 12월 초(자세한 일정은 개별 안내)

교육내용: 사복음서 강독을 통한 성경 중국어/
기초 양육 중국어(신생명)/ 성경양송/ 기도문

자 격:

1. 중국어 구사 능력:

중국(대만) 유학 2년에 상당하는 수준 이상 또는
국내 대학 종문과 재학 이상

2. 중국선교 헌신자 또는 사역자

문 의: 중국어문선교회 개척선교부 T. 02)594-8038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면,

중국어문선교회 문서선교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 소책자와 양육 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강하림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 535-4255

● 초대의 글

이 시대에 한국이 중국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르익어 많은 헌신자들이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사역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중국복음선교회에서는 중국선교 사역전문가에 의한 실제적인 중국선교사훈련을 통해 중국 선교사로서의 영성과 인격의 형성, 중국어 극사와 설교, 중국 실제사역의 이해, 중국현장 적응능력 등을 적절하게 갖춘 전문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중국선교사훈련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중국영혼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평생 헌신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을 중국 선교사 훈련의 장에 초대합니다.

2000년도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 선교사훈련원 학생모집

● 대상

1. 중국선교 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2.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3. 전문대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2년 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4년 이상 근무한 자

● 훈련 및 교육내용

영성 및 인격훈련/ 선교사로서의 인격형성 및 영성, 경건의 훈련
 공동체 훈련/ 공동체 삶속에서의 개인성장 훈련
 은사 및 사역의 개발/ 개인의 은사 및 사역의 개발
 사역실습/ 현장 적응능력 향상과 실제사역의 실시
 중국어/ 기초부터 자유로운 언어 구사수준까지 설교능력배양
 중국선교 사역학/ 전문적인 중국선교 지식과 사역이해 도모
 중국화/ 개괄적인 중국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의 소유
 일반선교 사역학/ 폭넓은 세계선교와 선교문제에 대한 식견함양

● 일정

1. 훈련 및 교육기간: 2000. 3. 2~2002. 2. 28 (2년 4학기-국내교육, 해외실습)
2. 일 시: 매주 화~금 오전 9시~오후 4시30분 (평일주간)
3. 교육장소: 본원 강의실
4. 전형방법: 서류/면접/면접시험
5. 제출서류: 본원지원서/신앙고백서/최종학교졸업·성적증명서/사진 2매(3*4)/추천평가서 2통(담임목사, 교우)
6. 원서교부 및 접수: 연중교부/1999. 11. 30 마감
7. 시험일자: 논술(1999. 12. 6), 면접(1999. 12. 7~8)
8. 합격자발표: 1999. 12. 21
9. 개강일자: 2000. 3. 2
10. 문의: Tel 318-3956 (중국 선교사 훈련원)



중국선교 전문지

중국을 주께로

1999년 11.12월호 (통권60호)

발행처/ 시립(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 · 김중하 · 김피득 · 마민호

왕쓰웨 · 지인성 · 한수아(가나다 순)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 · 최귀례 · 권수영 · 곽숙 ·

박정희 · 전하영

편집디자인/ 박정영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9년 10월 20일

인쇄처/ 친구인쇄 ☎ 02) 2264-5354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 0344)906-9191~4

가격/ 5,000원

(1년 정기구독 3만 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문서사역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중구 답동 44-24 원지당 약국 3층

전화: 032) 762-0748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시시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cpm.or.kr>

☆ E-mail

sinim@chollian.net

☆ PC 통신 천리안

sinim

편집후기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함께 99년 천년의 마지막 세기가 저문다. 다리가 끊긴 줄도 모르고 가속의 굉음을 내며 달려가는 기차처럼 온갖 군상을 싣고, 오늘 의 지구호는 이렇게 휘몰려 간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우리는 이 한 해 무엇에 힘써 왔던가? 우리가 거둔 열매는 무엇인가? 연말이면 누구나 한 번쯤 자문해 보는 말이지만, 어느 해보다도 절실한 느낌으로 다가옴은 무슨 까닭일까.

올 한 해 「중국을 주께로」가 주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큰 위로를 삼으며, 부족한 저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고, 기도로 동역해주신 애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의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30,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42,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7,40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30,000원, 우편료 23,400원, 합계 53,40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31,200원, 합계 61,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02-592-0132, 0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중은행 99번 창구/ 지로번호 760236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008-01-0454-178(예금주: 박성주)

독자카드 1999년 11.12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한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

1.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십시오.

☐ 신규구독 ☐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1년 30,000원(6권) ☐ 2년 60,000원(12권) ☐ 3년 90,000원(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이름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우 -)		(통 반)	출석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통 반)	

전화신청 및 문의 02) 533-5497, 02) 592-0132

“중국을 주께로” 중보기도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 3)

중국 선교의 문이 왜 열리지 않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로써 모든 닫힌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선교의 모든 문들은 닫힌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크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누가 이 세대에 기도의 큰 용사로, 이 영광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중국을 위해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동역의 장이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중국을 섬기실 분들을 초청합니다,



시간: 매주 월요일 저녁 6:30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훈련원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Tel. 02) 592-0132, 594-8038

중국을 주께로

1999/9·10 (통권 59호)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희어진 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중국 교회의 외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을 주께로」를 구독하십시오. 중국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그들을 올바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눈과 귀가 될 것이며, 중국 선교에 동참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선교 현장의 숨결을 전할 것이며, 그리고 중국 선교사를 돕는 후원자들에게 기도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 비전이 있는 교우나 당신의 후원자를 위해 대신 「중국을 주께로」를 구독 신청 하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30,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TEL: 02) 592-0132, 533-5497, 594-8038,

535-4255, FAX: 599-2786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중국을 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 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

(회지 구독요금이라 적어 주십시오.)

※ 미주지역 정기구독: LA의 JOY 기독교화점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2-7282).

특정/중국 소수민족 선교는 어떻게?

제3국의 중국선교/이스라엘에서의 중국인 선교

중국 뉴스 초점/WTO 가입과 중국 정부(政局)

시사 안테나/중국 정부의

연재기획/중국 교회를 찾아서

금합니다/탈북 동포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책부록』 중국기도

